

瑞山文學

제9집 · 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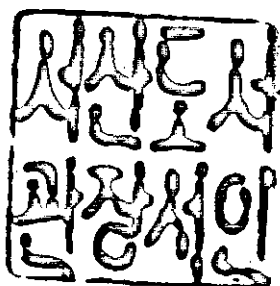


서산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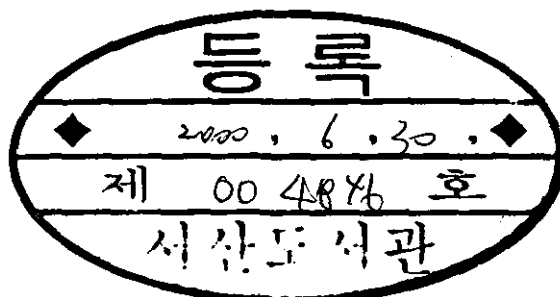
EM004846

서 산 문 학 회



瑞山文學

第 9 集



서산문학회

瑞山文學

서산문학 9집을 내며 - 終了 그 다음. 8. 류 상 동

詩

- 가야산에 눈 녹아 외 5편. 10. 김 명 화
다시 서산 사투리
- 산으로 간 그미에게 외 2편. 20. 김 순 일
황도풍경 외 4편. 24. 김 충 자
봄이 오는 날 외 4편. 29. 김 태 우
가야산 석문봉에 올라 외 7편. 36. 박 영 춘
머리감는 아침 외 8편. 53. 박 태 진
새벽을 사냥하다 외 4편. 69. 박 희 량
어느새 외 5편. 75. 송 숙 희
우울한 봄날 오후 외 2편. 81. 윤 용 문
가을 예감 외 5편. 85. 이 경 숙
길1 외 7편. 91. 이 영 동
빨래를 하며 외 4편. 99. 이 종 안
능소화 외 5편. 104. 주 병 구
월출산 외 3편. 113. 최 병 기
라일락 외 3편. 117. 최 소 녀
고백 외 7편. 121. 한 근 식
하지 외 4편. 129. 홍 인 옥

제 자 / 송국범
표지화 / 한동철

제 9집 • 1999

隨筆

- 白衣 • 135 • 김 현 구
산 길 외 2편 • 138 • 김 현 주
마음의 울타리 • 148 • 문 혜 옥
작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 152 • 성 정 희
전교생 꽃동네 체험 1 외 2편 • 157 • 송 국 범
옥녀정 물방아 외 3편 • 170 • 신 득 균
엘리베이터 풍경 • 190 • 유 병 인
다시 불러보는 노래
- 인생은 나그네 길 외 1편 • 193 • 유 인 석
거목 세 그루 외 1편 • 206 • 이 순 수
까치의 수난 외 2편 • 214 • 한 동 철

공 트

- 토산불알을 찾다가 • 229 • 남 정 화
사탕 외 1편 • 236 • 윤 용 문

기행수필

- 아! 白頭靈山 • 240 • 이 영 하

시와 산문

- 명칭한 내 시의 자궁,
서산이여 • 261 • 김 순 일
제 1회 서산시 청소년 문학제
- 백일장 우수작품 • 270
표지그림 이야기 - 참새잡이 • 296 • 한 동 철
편집후기 • 편 집 부

‘종료(終了)’ 그 다음

회장 류 상 동

늦가을의 햇별은 아쉽기만 합니다.

거두어 드리는 손길, 발길, 마음이 바쁘고 조이는 모습입니다.

한 시간의 수업을 마친 학동, 하루 일과를 끝내고 문을 나서는 직장인들, 구조조정이든 빅딜이든 갖가지 사연으로 물려난 인파가 두리번 서성입니다.

시간 단위이건, 년도이건, 오랜 세월이건 삶의 과정에서 어느 순간 마침의 한 점을 일단 ‘종료’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종료에는 그 나름의 의미와 성패간의 평가반성이 누구에 의하여서이든 이루어지겠는데 ‘마침’ 그 자체만으로 하나의 기쁨으로 처리 할 수 있고 또 그렇게 되어야 하겠습니까.

주어진 금 쪽 시간을 잘 보냄과 맡은바 임무를 수행하고 그 터널을 통과함, 삶의 애환과 향기의 경험 경륜을 말 할 수 있기 때문이고 ‘종료’는 곧 다음 시작의 바탕이고 새 출발 그 자체인 동시에 씨앗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다시 맞이하는 ‘종료’가 ‘기쁨’이 되기 위해서는 더욱 땀 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목표와 설계가 마련되어야 하며, 인간에게는 이 세상 저 세상을 망라하여 ‘종료는 없다’ 그 다음이 무한하다는 무한의 역사를 믿고 만들어 나가는 예언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서산 문학 창간호에 드렸던 인사말을 근거로 따져보니 우리모임이 어언 22년이 되었군요.

인간 생년으로 하면 이제 건장한 청년기로서 혈기가 막강할 뿐 아니라 현실을 통찰하고 책임져야 하는 동시에, 자만과 걱정이 표출 될 수도 있기에 ‘삼가’ 하는 모습도 겸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차와 음악 작품이 있는 집에서 매주 토요일 자체 연수에 여전하신 회우님들 신입 회원님들의 자신이 넘쳐 보이면서도 봉사와 겸손의 미덕 속에 우정을 돈독히 하심은 성장과 발전을 촉진하고 있으며, 서산시 읍내동 144-1번지 서부상가 1층 45호에 서산문학회의 작은 간판을 붙인 일도 고무적인 기억거리가 될 것입니다.

정부에서도 문화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는 좋은 시책들이 마련되고 있는 차제에 우리 문학도들은 더욱 정도(正道)를 지키면서 대작의 꿈을 키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제 9집을 발간함에 있어 책을 엮는 일과 필요한 제반 사항을 원만히 하기 위하여 앞장 서 주신 회우님들의 격려와 지도, 사랑을 베풀어주신 지역사회 인사님 지원 기관의 관계관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60일 앞으로 맞게될 새해 새세기에도 더욱 문학적 성장과 인간적 행복이 충만하고 ‘종료’ 그 다음의 기쁨이 영원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99년 11월 靑亭研究室에서

가야산에 눈 녹아

김 명 화

한 걸음 옮길 때마다 울컥대는
가야산 밟으며 간다 눈 녹는 산을
나는 여태까지 알지 못했다
올려다보면 산 같은 너도 이따금
이렇게 가슴 물러지는 날 있었을 텐데
우우우 발 밑에서 무너지는 서릿발처럼
네가 무너져 버리고 싶은 날 있었을 텐데
언제나 내가 네게로 무너졌다 무턱대고
보채기만 했다 나는
바람 불 때마다 뒤집히는 나뭇잎
동동거리다
제풀에 쓰러지는 나뭇잎이었다
바람이 골짜기 지나다 말고 머뭇거린다
행복한 일이다 저만큼 뒤돌아볼
길이 있다는 게
신발을 고쳐 신으며 돌아본다 멀리
두고 온 내 발자국 눈 녹아 흥건할 것이다
참 그랬었지 네게 가는 발자국마다 눈물
우리날 것 같던 길이 있었지 오늘은
모든 길이 평화롭다
감사하다 철 바뀌는 가야산에 와서 비로소
내가 철든다
조금 남은 가야산길이

환하다 가끔은 내가 산이 되어야 한다
눈 녹는 가야산처럼 네게도
울컥울컥 눈물 나는 날 있을 것이다

가을이다

후리후리 키만 키우던 수숫대
홀쩍 목 빼더니
하늘에다 대고 부풀린다 수수알
저러다 더러는 쏟아지기도 하겠지 그 앞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려는데
어어- 내 생각이 먼저 쏟아진다
스무살 같은 속이
흰히 들여다보인다 그리운 것 투성이다
부끄럽다 이제 나도
무엇을 그리워하지 않을 나이가 됐는데
시속 팔구십을 넘나드는 출근길에도
그리운 풍경들 따라온다 힘 안 들이고
나는 스무 살이 되고
열두어 살이 되고……
눈이 맵다 고추잠자리 몰려다니는 들에
잠자리보다 가벼웠던 나이
내가 있다
들풀처럼 너풀너풀 쏘다닌다
그때랑 똑같이 쑥부쟁이며 쑤바귀꽃까지
다 보였다
종일 때도 없이
커피를 마시고 커피물 속으로
가을꽃들이 무리무리 피고

또 졌다 그리고 늦어지는 저녁
나는 딱 말 한마디를
준비하기로 한다
가을이다

달맞이꽃에게

말 안 해도 난
다 안다
어깨죽지며 겨드랑이 멍울멍울
그리움이 터져나와
꽃잎으로 피는 거지 너는
괜히 나를 흔들어 놓고 지나가는
바람같이
기다림이 기다림으로만 돌아와도
괜찮다 괜찮다
표 안내고 아프면서
노랑게
여우고 있는 거지 너는

비오는 날 밑그림

일학년 교실 앞
엄마들이 아이들을 기다립니다 저마다
우산 하나씩 품고 와
키가 작거나 샘 나게 늘씬하거나 한 스물 대여섯 돼 보이거나
서른 다섯은 족하 돼 보이거나 지금
그녀들은 다 엄마입니다
아들 딸을 기다리는 그녀들은 행복한
그녀들은 아이 생각만 하며 서 있을까
문득
나는 그대 생각을 합니다 참 아까운 십분
와글와글 아이들이 떠듭니다
넘기 싫은 내 나이 같은 아이들 육학년 오반
선생님입니다 나는
아이들이 쪼르르 교실에서 나오고 그녀들
엄마들이 웃습니다 세상에 저렇게
아름다운 미소가 어디 있을까
우산이 잠깐 흔들립니다 참지 못하고
누군가가 누군가를 껴안는다는 건 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지 우산이 자꾸
기울어집니다 아이의 얼굴을 가리고 아이의
책가방을 가리고 우산 밖으로 그녀들의 등허리가
다 젖습니다

詩・김 명 화

.
. .
. .
. .
벌써 십 년도 훨씬 넘은 날
그대의 한쪽 어깨가 자꾸 젖고 있습니다

선배님 떠나시던 날

그날 판은 좀 맛나는 걸 사드린다고 불고기백반
준비했는데 어린 총무의 형님 누님 오르내리는 너스레에도
불고기백반은 영 맛나지 않았습시다
못하시는 소주를 서너 잔 하셨을 걸요 선배님
차마 할 말을 찾지 못해 우리는
너무 많은 말을 했습시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중 빛나는 말 우리 하난데
이젠 가요 소주 서너 잔의 흥조로 웃으셨지요
왈칵 따뜻해지는 눈가를 보았습시다 정말 가야지요
두 손으로 밀어 놓으시던 방석 오히려
다시 앉으실 것처럼 내 놓으시던-
선배님의 자리를 보았습시다
우리는 아무도 그냥
앉으세요를 못했습시다
맘에 있는 말 하지 못했습시다
모를 일이지요 술기운이 후다닥
삼사십년 세월을 끌어당겼을지도
조용한 흔들림 누르시면서
이렇게 가는 거야 하나도 안 감추고 보여주신
선배님 처음 아이들 앞에 서셨을 때도 그렇게
아름다우셨을 테지요
아름다운 뒷모습 보여주신 선배님
가르치는 일이 끝난 게 아니었습시다

집이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형제가 지은 세상에 둘도 없는 집
먼 나라의 껌테기를 다 깎아내고
사람냄새가 폴폴 나게 지은 집
착하고 힘 좋은 남자들 통나무 같은 남자들이 어울려 지은 집
대들보를 올리던 날
돼지머리가 뭘 안다고 하면서도
돼지머리에 대고 형님이 절한 집
형과 아우가 봄여름을 통째로 바친 집
비오는 날
어설폰 현장 사무실에 아넬 불러 커피를 내놓고
아름다운 집이 될거야라고 동생이 말한 집
어린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와
흐뭇하게 바라보는 집 저희들끼리 자랑스러워
바라보는 집
세상의 저울로 장사를 해도
장사 속으로 지어지지 않는 집
마음은 늘 산에 가 있는 주인이 산처럼 생각하는 집
바라보면
알프스와 부춘산이 다 보이는 집
시월 아무날이나 그 집 창가에 앉으면
그 아래 억새꽃과 눈이 딱 맞는 집
맨 처음 찾아온 사람에게 노란 장미를 준-

사람이 사람을 만나러 오는 아름다운 집
집이 하나 있습니다

다시 瑞山 사투리

- 山으로간 그미에게

김 순 일

밤하늘에 검벽이는 크고 작은 별
별과 별 사이
수 없이 지고 돋는 별
산으로 간 너도
이 밤 저 별들 보이니

새로 태어난
아기별 하나
새벽 이슬에 젖은
풀냄새 어깨 위로 내려와 앉을 때
풀밭에 제비꽃 핀다

그래
네 마음도
흙내 구린내 나는
중생들 속으로 내려와 봐

부처는 죽은
별똥 속에도 산다는데

네 허탈했던 웃음
웃을 벗고 내려와

죄 짓고 볶아 먹고
또 죄 짓고 볶아 먹으며
진한 살 냄새로 물어봐

부처꽃만 꽃이라
해지면 달맞이꽃 핀다.

다시 瑞山사투리

- 주막집에서

우리 들이는 곤드레만드레 취한 척 게슴츠레해졌지 궁뎡
이 보들보들한 주모를 가운데 앉혀놓고 네놈 어디 언제까지
버티나 보자 술을 퍼먹이고 퍼마셨지 취할수록 주모의 미소
는 더욱 야들야들해지고 춘향이 보다 더 낭창낭창해보이고
네 이놈 아직도 안 떨어지거나 동이 술을 퍼먹이고 퍼마셨지
봉창 밖에선 암팽이의 교성이 활활 타오르고 어느 때 쫄인가
그러면 그렇지 네놈이 그렇게 퍼마시고 배겨낼 수 있겠나 그
녀석 오줌깨를 움켜쥐고 비틀비틀 나가서는 잣간에 코를 박
고 세상 모르게 꿈아떨어졌을 때 나는 주모의 황황한 허벅지
를 더듬으려 젖무덤에 코를 박았지 밤하늘의 별들이 모두 쏟아
아저 내려와 창문을 뚫고 킬킬댔지

새벽에 나는 잣간에 코를 박고 꿈아떨어진 줄 알았던 그녀
석의 오아시스 나무 그늘에서 코피를 흘리고 있는 어리둥절
한 나의 손을 화들짝 빼냈지

詩・김 순 일

다시 瑞山사투리

- 감천배¹⁾

보름달보다 더 태깥이 좋은
명월리²⁾
미인일수록 가슴이 펍펍하구나

눈 코 입 그리고
계곡의 웅달샘까지
이십세기³⁾의 미인으로
성형수술한 그녀
속살이 차갑구나

광대뼈 솟고
납작코에 뺨새눈
지지리도 못생긴
감천배
속살이 사근사근
계곡에는 달디단
샘물이 펍 펍 흐르는

1) 서산시 부석면 가사리에서 나는 맛과 살이 제일 좋은 배.

2) 배의 이름

3) 배의 이름

황도 풍경

김 충 자

유월 초사흘 여들매 물
황도 바다
물 쓴 갯벌은
능쟁이 황발이네 운동장
엄마 아빠 애기게 모두 모여
왕발 치켜세우고 유희를 한다.

잔뜩 찌그러진 하늘
어디가 하늘이고 바다인지
자정이 넘은 캄캄한 밤
후레쉬불 내리면
황도가 아닌 흑도에 온 것 마냥
하늘과
바다와
능쟁이와
나와는 하나

간간히 불어와
흰 등을 식혀주는 간끼벤 바람결은
황도의 인정인가

저기 다리위로 가로등 퍼런 불빛
임자 대신 고깃배 서너척 지키고 있다.

그래, 그제 행복하여라

초침소리는 섬을 잊은 채 정월 열 아흐레 날을 향해 줄달음박질 한다.

단 촌음도 붙잡아 댈 수 없는 지금은 새벽 세시, 내일을 향한 하루가 다시 열리고 이틀후면

다른 가문의 며느리가 될 둘째 딸의 폐백으로 유과를 담고 있다. 하얗고 검고, 푸른 유과처럼 스물 다섯 해 동안 키우며 생겼던 수많은 이야기들, 잘해준 것보다는 못해 주었던 기억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가지가지로 마음이 아리다. 허전하다. 내 어머니도 나를 시집 보낼 적에 이렇게 허전했으리라. 내 딸도 이 다음 제 새끼 시집보내며 이렇게 마음 아리겠지. 그래, 그제 행복하여라. 그래, 그제 행복하여라. 어미가 못다 해 준 몫까지 두고두고 행복하여라. 한 알 한 알 지성껏 쌓아 올리는 유과 바구니에 엄마의 사랑의 기도 한 올 한 올 실타래를 풀어 담듯 이 바구니에 담는다.

“그래, 그제 행복하여라”

게국지에 관하여

시집오던 그 이듬해 동짓달 그믐께 김장이 끝나던 날 포기 지 담고 남은 시래기 배추며 무청 못도 생긴 늪은 호박에다 파, 마늘, 송송 썰어 넣고 원 여름내 절여 먹고 남은 능쟁이 박하지 게국물 짓국 퍼 넣고 볶다만 풋고추 절구통에 쿵쿵 찌어 버물버물 버무려 게국지 담는 법을 할머니께서 일러 주셨다. 김장이 끝난 늦은 저녁상에 게국지 푸짐하다. 무쇠 솥에 밥 안치고 막 담은 게국지 커다란 투거리에 거듬거듬 담아 밥솥에 넣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 밥물 끓어 게국지에 넘어 들고 밥물과 어우러져 물렁하게 푸욱 익은 찹쌀한 게국지 밥 한술 뜨고 그 위에 척척 얹어 먹으면 꿀맛이 이러하리 마파람에 개눈 감추듯 밥 한 사발 후딱 해치우고 무쇠 솥 누룽지 주걱으로 득득 긁어 뜨거운 송늪 한 대접 마시고 나면 세상에 부러울 것 하나 없던 시절, 그 옛날 우리 조상님들 허기진 뱃고래 채워 주었던 게국지. 구수한 인정으로 얼버무린 게국지는 우리네 향수다.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매년 거르지 않고 담은 게국지가 재료는 같아도 옛날 그 구수한 맛이 아니어서 늘 안타깝다. 공해로 짓찌들어 산성화된 토양에서 자라 맛버린 무,배추 탓일까. 우리네 조석상에 주인처럼 오르내리는 인스턴트식품과 조미료가 우리 입맛을 후질러 버린 때문일까. 아니면 인정 많고 음식 솜씨 구수한 우리 할머니께서 게국지를 버무리는 내 곁에서 간을 보아주시지 않아서 일까.....

정 아

아침이 열리면 눈 부비고 어김없이
바람 아래 미술학원 병아리반으로 가는
우리 꽃님이

할아버지 무릎에 앉아
“자리 자리 잠자리 호박잎에 앉았다”
종알종알 동시 한 수 읊어 주는
귀여운 나의 참새

미스코리아 되겠다고
긴 드레스만 고집하며 제 에미 졸라대는
미운 오리새끼

화첩에는 늘 꽃과 햇님과 제 엄마로 가득찬
나의 꽃돼지

몇 살이냐고 물으면 그새 이만큼 자랐나
양증스런 손가락 짹 펴보이며
다섯 살이라고

아무리 보아도 내 손녀 같지 않고
하늘에서 뚝 떨어진
별아기씨 같은 아이
내 새끼

詩・김 충 자

복 날

진중일 돌다돌다 몸살이 난 선풍기
복날 개 햇바닥처럼 늘어져
더운 김 내뿜으며 헉헉

빗방울 서너개 떨어진 건 장마
별장개 불달은 화살촉
사정 없이 내리쏘고

양수가 말라 갈라진 논배미
만삭이 된 이른 벼
앙가슴 풀어 짓히는 소리
하늘을 뚫는다.

열대야
한여름 밤을 살아내는 불가마
몸이 끓고
마음도 끓고
압력솥에 보신탕
덩달아 끓는다

봄이 오는 날

김 태 우

골마다 텅굴던 갈잎 사연을 엮어
신혼에 부푼 사랑을 어루만지며
미소 띤 얼굴로 내 앞에 서 있던 너

봄별을 먹고 사랑을 토해낸
분홍빛 꽃망울은
山 처녀의 치마폭에
두견의 정열을 담아
님에게 편지를 띄워 보내고

등성이를 숨가쁘게 오르는
춘삼월 초우가
다 피우지 못한
숫총각의 애절한 사연을 듣고
소리없이 울부짖을 때

까살진 황토바람이
山 허리를 휘돌아
설레는 꽃 소식을
우리 가슴에
온 종일 지피고 있었지.

장 애

사랑의 눈으로 보면

이 세상 모두가
연인처럼 아름다운 걸

이웃들은 하나 같이
모여 사는 기쁨을
내 것처럼 나누는
포근한 어머니 품이 되는 걸

양심의 눈으로 보면

오늘을 가는 사람들은
네온 만큼이나 찬란하게
희망에 찬 내일의 태양을
가슴에 품고 살려
하루 하루를 수놓아 가는데,

지성이란 위선의 탈을 쓴 나는
바로 보고, 듣지 못하며 탐욕의 利己에 몸을 기대어 신선
한 아침햇살이 부끄러워 전신이 마비되고 돌같이 차가운 무
거운 장애의 굴레 속에서 태양마저 삼켜버린 용감한 멍청이
로 보이는 걸…….

장애가 된 눈으로 보면

진리와 아름다움을 보고도
실천하지 못하는 이성은
황금 장애로 사지가 뒤틀려
오욕의 연자매를 돌리고 있는 걸.

고향 (19)

절레꽃 향내 배인 개울은
떠지지 않는 눈까풀을 열고
봄을 맞는데
버들피리 꺾어 붙던 당신은
향수에 아려
촉촉이 내리는 밤을 맞습니다.

물안개 피어오르는 개울가엔
밤을 지새워 울어대는 소쩍새와
풀벌레들의 애절한 밀어도
고향을 등지고 도심에 찌든
우리네에게는
무척이나 그리운 戀歌입니다.

바람을 타고 쏟아지는 별빛에
실버들만 개울에 머리를 감을 때
까만 낮도깨비 불에 놀란 우리는
더 이상 달아날 수 없는
사람들 틈에서
영영 깨어나지 못하는
고향을 등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꽃 지

비릿한 아우성을 들으며
할아버지 할미의 사랑이 여무는 곳엔
천년을 하루 같이
아름다운 사랑을 문양으로 빚은
사연을 되새김질하며
속 시린 포구가 하루를 열 때

밀려오는 파도의 합성을 들으며
젊은 아낙들은 소함 대신
객들을 낚고
조개껍질 툼바구니엔
돌개들이 반짝이는
허리를 흔들며
디스코 춤을 추어댁니다.

갯바위에 등을 기댄 연인들 사이로
상성한 갯벌 위에 발가벗은 태양이
벌짱게 무르익을 때
꿈을 먹는 파도는
할미 가슴이 배개가 되어
발짱게 물든 하늘에
사랑의 불을 지핀다.

火葬場

하늘은
가멸진 인간의 숲에 비를 뿌리고
호느끼는 아버의 가슴을 후벼 대며
참회하는 매마른 이 곳에
가난한 가슴의 깊은 내 곳에
살아 숨쉬는
작은 호롱불마저 앓아가는가.

가슴 저미어 온 삶이라도
강산이 한번도 변하지 않았거늘
밤 새워 맺힌 이슬이
마르기도 전에
피우지 못하고 시들어 버린 너에게
하얀 슬픔의 향기 만
밤을 지새우고,

이글거리는 태양은
아직 거친 숨을 몰아 쉬며
산마루에 걸쳐 있을 때
마른번개가 벌거벗은 영혼을 때려
빛을 잃어 어둠 속을 내 닫고,

아-, 삶은

고뇌의 언덕에서
구름처럼 흘러가거늘
九天을 헤매는 나의 벗이여
어찌 두려움에 떨고 있는가
이 곳이 영원한 내 집인 것을

가야산 석문봉(石門峰)에 올라

박 영 춘

돌문을 열고 하늘을 보니
허전한 바람은
젖은 가야봉을 휘휘 돌아
어디로 갔을까?
나는 산위에서 하얀 구름을 쳐다 본다
먼데 산 어깨가 줄줄이 앉아 있고
물줄기가 뿌리와 씨앗을 찾아 달리고 있다

사람들은 대대로
산과 물을 믿으며
삶의 모습을 땅에 맞추어
숨결과 땀방울을 땅에 묻으며
땅의 삶을 받아 살아간다

산들은 겹겹이
하늘에 우뚝 솟았다가
짐짓 몸을 낮추어
산에 물줄기를 데리고
낮게 낮게 마을까지 내려와
살진 어미소 마냥 옆드려 앉아
사람 사는 모습을 구경한다

산과 물을 닮은 사람들은

산의 뜻을 받들고
물의 마음을 헤아려
산처럼 물처럼 삶을 산다

가야봉을 휘휘돌아
바람은 어디로 갔을까?
나는 산 위에서 하얀 구름을 쳐다본다
산마루에는 안개만 머뭇거리고
저 멀리 서해 바다는
새 천년의 무한한 꿈을 꾸고 있다

자귀나무

산자락
공원길에 자귀나무가
꽃수술 길게 붉어
참으로
공작새들이 앉아
꼬리를 펴터이는 것 같다
꽃 곱게 이고
붉은 입술로
한껏 향기를 자아내는 자태가
선녀들이 춤을 추는 것 같기도 하다

그녀는 속으로 울고 있다
제 그림자를 잃고
검은 눈물을 흘리고 있다
까망 벌레똥이 쌓이기 때문이다

길은 아직 멀다
옥수수 넘어지는 발 그늘이 올 때까지는
아직 한참 가야한다
바람이 불기 시작한다
무서워 말라
제 그림자가 없다고
결코 무서워 잊지 말라

또다시 태양을 깃 속에 품으려거든
그 깊은 뿌리로
발가락 끈질기게 뻗고 뻗어
거름이란 거름은 다 긁어모아라
하늘의 힘을 땅의 힘을 다 잡아 당겨라
빗물을 마시고
바람을 마시고
온 몸에 따듯한 빛이 들어오면
그림자를 만들어라
붉은 입술을 죽여라
붉은 향기를 살려라

일어서 뛰고 싶은 풀

일어서고 싶다
일어서고 싶다
땅위 거름이란 거름은 다 모아
하얀 구름송이 파란 바람송이 다 끌어 들여
끈질긴 뿌리로
질푸른 얼굴로
사대삭신 육천 마디 생생하게
핏빛 땅위에
파란 얼굴로
일어서고 싶다
일어서고 싶다

뛰고 싶다
뛰고 싶다
허공의 기력이란 기력은 다 모아
하늘의 힘 땅의 힘 다 잡아 당겨
무쇠 같은 팔 다리로
핏물 같은 얼굴로
고라니처럼 토끼처럼
팔짝 팔짝 뛰고 싶다
산을 뛰어 넘고 싶다
강을 건너 뛰고 싶다
그리하여

팔 다리 살에
어깨에 등허리에
손목의 찢줄에
온몸의 마디마디에
영거불은 끝들을 끊어 버리고 싶어라

이제 부는 바람들
이제 꾸는 꿈들
저 바다 집채같은 파도도
전부 내 이파리 스치게 하고 싶어라
전부 내 그림자 만지게 하고 싶어라

빗물 마시고 숨쉬고
바람 마시고 춤추고
땅의 가슴에 안기여
마디마디 생생하게
일어서고 싶다
뛰고 싶다

시작(詩作)노트

마음껏 먹고 실컷 마시고 이 골목 저 골목으로, 노래방으로 가요주점으로 싸다님이 거침없었던 지난 날처럼,

산으로 바다로 들로 일하기 위해 열심히 열심히 일어서 뛰어 다니던 것도 거침이 없었던 지난 날처럼,

일어서고 싶어, 뛰고 싶어, 나는 지금 안간힘을 쓰고 있다.

뜻하지 않게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지구의 반쪽이 갈라지는 것 같은 절망감을 안고 좌절과 실의에 빠져, 태산이 무너져 나가는 것 같은 아픔을 맞고 보니, 일어서서 뛰고 싶은 마음이 나의 전부요, 희망이요, 소망이요, 꿈인 것이다.

때대로 수시로 야속하고 비통한 눈물은 가슴 옆 겨드랑이로 흐르고 흘러, 서해 바다가 다 내 눈물인 것처럼 설움과 절통함으로 온 몸 살 속에 갈기갈기 박혀 있다.

사대작신 육천 마디가 예전처럼 생생하게 핏물 뚝뚝 떨어지는

얼굴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일어서 뛰고 싶다.

그래서 요즈음 나는 산을 오르고 대지를 뛰고, 하늘을 호흡하며, 자아를 찾고, 자신을 찾고, 내 작은 우주의 조화를 찾아, 고라니처럼 토기처럼 팔짝 팔짝 뛰고 싶어 운동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는다.

산을 뛰어 넘고, 강을 건너 뛰어 헉헉거리며, 풀밭을 날아다니고 싶다.

그리하여 머리에, 얼굴에, 어깨에, 가슴에, 등허리에, 옆구리에, 허벅지에, 다리에, 팔에, 손가락에, 눈동자에 갈갈이 영

겨불은 끝들을 끊어 버리고 싶다.
지금은 많이 끊어졌고, 벗겨졌다.
이제 나는 담배도 술도 완전 절교다.
이제는 깊은 산 속의 다람쥐같이, 높은 산의 청송같이, 한
잎 풀 포기같이, 풀잎의 이슬같이 청정하게 살고 싶다.
산을 뛰어 오르며, 이 시를 쓰노라.
이제 땀이 난다. 세상에 까닭 없이 피는 들꽃은 하나도 없
구나!

詩·박영준

할아버지 꿈

여름 밤
모닥불 피우는
할아버지 꿈을 꿈니다
그때마다
꿈속에서 나는
눈물을 한없이 흘립니다

다독이는 모닥불
감자더미 익어가고
넓적다리 개구리가 고소한데
진정 마음이 아프고
슬픈 것이 서러워서
나는 한없이 읊니다

스치며 지나가기에
서러운 삶이
정말로 마음 아프다하는데
허연 수염털만 헤치고
허연 모닥불만 헤치고
할아버지는 말이 없습니다

할아버지야!
할아버지야!

한없이 한없이 웅석이다가
눈 둔덕이 굼뜨게
아침 창문을 스르르 엽니다

옛 길

머리가 화끗화끗
반백이 넘어서
채보파리 뗏장 보따리 들춰메고
넘던 고갯길
옛길을 걸어 봅니다

냇물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송기를 벗겨도 보면서
취뿌릴 뽕아도 보면서
아스라한 옛길을
걸어 봅니다

콩 천대 튀기다
줄행랑 치던 문둥이 고개를 넘어
민들래가 만개가 피고
진달래가 온 산에 퍼지고
뼈꾸기가 그리움게 우는 곳
부엉이 언덕 뜰부기 마을로
아카시아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니
아가씨가 괜히 풀랑거리는 길로
아른 아른한 옛길을

건고 건고 또 걸어 봅니다

어려서 그땐 확실히
희망 하나만으로도 즐거웠습니다
운동장을 뛰어다니며
미래와 살던 나와 내 동무들
지금은 없고
잔디만 함성처럼 푸르릅니다

넷물을 건너서 숲으로
고개를 넘어서 마을로
그리운 옛길을
낙엽과 추억을 밟으며
그리웁게 그리웁게
걸어 봅니다

詩・박영춘

날 다람쥐

가지에서 가지로
나무에서 나무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땅은 밟지 않고
하늘에서 하늘로
날아다니는 구나, 너는

너는, 삶을
밝고 비인 마음으로
있는 그대로
아름다움게 사는구나

무릇, 사람들은
나와 나의 것으로
가득 찬 삶을 살려 하는데
아무렇든지, 너는
받을 것도 없고 줄 것도 없이
풀 포기 하나, 나무 한 그루, 들맹이 하나라도
너와 더불어 노닐고 있구나
밝은 삶을
있는 그대로 사는구나

침묵으로 사위를 지켜볼 뿐
가지에서 먹고
가지에서 사랑하고
가지에서 하늘을 꿈꾸는구나

가지에서 가지로
이 산에서 저 산으로
하늘을 마음껏 뛰며 날며
너도 없고 나도 없는 고요한 삶을
모든 분별이 사라진 삶을
그저, 말짱게 사는구나

산 불

췌! 췌!

휘몰아치는 바람을
산골짜기는
삼켰다가 토해낸다
창공을 불사르며

화냥년 꽃 격으며 놀던 산
긴 머리 풀어헤치듯
형크러진 산불
푸른 산골짜기는
삼시간에 이글이글
시키면 화마가 날뛴다
찢어진 붉은 깃발 휘날리며
어차피 구멍 뚫린 창공
또, 무참하게 구멍 내려고
불은 칼질하며 춤을 춘다

산 앞가슴은
애가 타고 속이 타 끓는다
화닥화닥 신음 투성이다
등어리 알살 드러나
검은 먼지 죄 없이 뒤집어쓰고
엎드려 용서 벌 듯이

바람에 달달 떠다

놀란 토기눈 핏발 맺히고
가쁜 숨 방망이질하는데

산꼭대기
찢어진 깃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선 듯
가물가물 목 조인다

산골짜기 골목마다
화냥년 싸질러 다니듯
마음대로 제 세상인양
아비규환 불난리 피우고
검은 말 불칼 진군하는 너
산불, 산불아!
용맹하게 날 뛰던 권세

전리품은 무엇인가, 비겁한 허세구나
땅위에 있는 모든 것, 몽땅
젓더미로 끌고 가는 비정한 놈
의리없고 분별없는 불장난꾼
걸주지 속은 못줄 불같은 놈

희망도 보람도 없이
굴짜기에 허무만 남기고
비굴하게 사그러지는 너
산불! 산불! 산불아!

머리 감는 아침

박 태 진

하루도 홀로 숨쉴 수 없다는 걸 알고서는
우물물 퍼 올려 하얗게 머리를 감는 아침
네 몸 속의 검었던 물이 털로 솟아났다고
새벽부터 창안으로 흥 보이는 단풍잎들과
저 세상 땅에 떨어져 다시 태어날 행로를
이 세상 안에 또 태어나서 까맣게 잊었다

머리카락처럼 태어나 나 찾아 살아온 길은
멋드러진 형상으로 詩의 집을 지으려 하나
마음의 무게중심은 뿌리 깊은 思想에 얽혀
하루 하루 여기저기 펜끝으로 형클어진 방
텅빈 하루의 生死를 켜는 귀뚜라미 사연에
새벽 창문과 눈을 뜨고 달과별 그려넣었다

눈 길

어디서 솟아나는 것일까
소록 소록 소르르
눈송이 가로등 불빛에 모여
첫사랑이 뭘 줄 안다고

예랑 미술학원에서
도화지 속에 그린 작은 집
달도 입김을 불어 넣는
이 밤, 영혼의 숨소리
귀에 소르르 들릴까

호롱불 켜고 첫날밤 맞은
먼 산 속의 신랑 신부집

그는 아씨와 둘이 걸었다
손을 잡고 걸었다
목도리를 감싸주었다
소록 소록 소르르

영혼의 등 하얗게 켜
길가의 가로등
사랑에 입맞추며 속삭인다
포근한 달밤이라고

詩・박 태 진

호룽불 권 첫날밤 이야기
먼 산 속에서 잠을 잔다고
눈길은 저 혼자 길을 간다

소야곡(小夜曲)

달을 보면, 그토록
이 서산(西山)도 보고봤던 걸까

지구는 수억만 세상을
스스로 안아도 즐겁다 도는

이 밤, 세상의 집에
눈 쌓인 운동장에도
고요히
이 빈터에 등을 켜
달님!
우리 둘은 속삭였다

행복의 빛은 살며시
이 숲 속의 주인인
내 영혼에도
환히 내려오시는데

오늘 밤 나의 아내와
운동장 한바퀴를 신나게
달무리 따라 빙--
가슴속 태허(太虛)를 그리는
당신은,

詩·박 태 진

태초부터 하나님의
광명(光明)을 임신했던 거다

결혼 행진곡

교회에서 가슴의 문을 열고 걸으면
성가를 따라 길이 흘러나간다.
이웃집 사람들 마음의 대문은 닫혔다
고개 숙여 실망한 채소들에게
잘 자거라 인사하며 귀가하는 밤,
그녀와 손잡고 접어든 논길 앞에는
목사님처럼 서 있는 늙은 소나무가
둘이 사랑하니 주례를 서리라,
내 속에 앉아 살아 계신 천사가
둘이 이대로 결혼하면 좋겠다
마법의 나라로 달려가는 다리처럼
달빛과 예식 준비하듯 융단 깔고는
“신랑은 신부를 맞이하여 진실로
살아서도 죽어서도 사랑하겠는가”
결혼 행진곡 따라 걸으며 묻자,
둘이 껴안은 그림자들 키스를 한다
하객들로 모인 마을 개구리들이
양 볼 부풀리며 연주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지은 예식장이 아닌
자연 속에서 별 보며 결혼을 한다,
귀에 대고 속삭일 듯한 풀잎들
반딧불들이 어둠 속에서 짹 찾는
논길을 그녀 업고 다 건너가면
차들은 숨막힌 도시로 빠져 들잔다

순금당 어르신

차가 없는 시민의 거리란 이정표 아래
십자로의 골목 북쪽으로 접어들자
생업의 이력이 간판부터 열리는 아침
이마에 상호 달고 줄지어 선 상가들
일찍 일어나야 사람된다던 어르신은
순금당이란 보석가게 앞길 쓸으시며
이웃집에게 부지런함부터 파시었다
골목길 통로처럼 뚫린 가슴속에 들어선
게임방이나 나이트며 유혹하는 간판의
멋 찾아 쇼핑 나와 걷는 청춘 남녀들
순금당과 이웃한 롯데리아 문 앞에
젊은이 식욕이 들락날락 하는 걸 보며
먹는 장사가 남는 장사인 줄 알지만
삶은 이 집의 순금보다 귀한 것이라며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맹세한 대로
청춘 남녀에게 사랑을 끼워 주시었다
입술에 술 한 방울도 대지 않는 신조로
서산에서 50년간 살은 주인 어르신은,
그렇게도 많은 보석들 중에 친딸에겐
반지 하나 끼우지 않은 겸소함을
예비사위 앞에서 산증인으로 가르치셨다
이름하여 순금당이란 보석집 가정을
지금까지 화목하게 이끌어온 어르신은

詩・박 태 진

첫째도 둘째도 부모부터 공경을 하라며
솔직 사랑 겸손이란 가훈 물려주시며
명문 출신다운 詩心인 보석을 닦으리란
확신으로 따님과 의 결혼을 허락하셨다

우리 교장 선생님

삼화목장에서 풀 뜯는 황소처럼
여름을 뜨겁게 마시고 계신가
팔도우유각 모서리진 입을 열어
흰 삭결 쪽 드시는 선생님은,
산에서 살다 오신 신선이실까
한가로이 소풍을 나온 구름처럼
머리엔 수학여행용 모자 쓰신 채
부춘산의 어깨와 춤을 추시듯
그렇게 발걸음 가볍게 가볍게
교정 화단으로 또 수업 나가신다
이제 두 눈과 얼굴 속을 보면
학생들과 모종삼 들고 돌 고르고
화단을 일궈 꽃씨를 심었던 마음
세례 내리는 햇살에 반 · 짝
생명을 푸르게 피워낸 앞사귀들의
귀에 대고 가르침 속삭일 것 같은
우리 학교 농업 선생님의 특기는
우리 학생들 배움을 여는 교실 안
가정의 화목을 함께 기원하듯
모교 방문한 어머니 가슴속에 앉아
삶의 가락 맞추시듯 장구 치시며
신명 나게 살풀이꽃 피우시는 거니
우리 학교 농업 선생님의 본명은

이 나라 사물놀이 자격증 소유자
이 학교 교장의 인간문화재이리라

詩・박 태 진

소나타 내시경(內視鏡)

신작로가 싫다 핸들을 튼다

방송국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

소나타 들으며 산마음으로 접어든다

귀속도 창자같은 흙길속으로

휘돌아 오르며 빠져 들어가면

무우밭

기와집

초등학교

산

하늘을

타고

오

르

다

내

리

는

가

을
중턱

해- 웃는 산정승이
호령하며 문 지키고 서 있는 출구
자연이 숨긴 마음 엿볼 수 있을까
저기 호수에 잠겨 낮잠드는 하늘
산새 소리에 무감각한 자동차 안에서
옛시절 고향 풍경을 반추하듯
지나온 삶 내시경하며 내려오면
자연(自然)을 다 구경했다 말하라
천안행 신작로로 접어들려 하자
내속의 난, 아직 소화불량이라고
차 밖으로 멀미가 울, 킁 치솟는다

수 작(酬酌)

창 밖의 길거리엔
눈이 내리고
폭폭 쌓이고
사랑은 어디서 올까,
아메리칸 호프집 안
세기말 유행가 흐르고
하루도 그냥 갔는데
여기 생(生)을 마시러 온
해병대 출신 선생님
“우리 뽕뽕나 할까”
부러 수작 거시는데
결혼 한 지 10년 된
아이가 들이나 있는
술대접 서투른 어머니
엄지와 검지로
이것 때문에
이판에 나와 시중돈다고,
돈이 숨어서
사람들을 조종한다고
눈이 점점 내린다
폭폭 쌓인다
나의 시(詩)도 수작 건다
알고 보면 사람들

詩・박 태 진

왜 사는지 모른다고
술을 마시라

짝사랑

학생들 뛰노는 운동장
교정을 빙 빙 산책한다

어릴 때부터 등나무는
뿌리부터 천연(天緣) 맺어
서로의 몸 껴안고 오르며
행복하게 결혼하였다,

열매의 껍질이, 짝!

이 가을 고요한 햇살에
생명과 탄생하는 소리
입 벌리고 증언한다

저기 운동장에
짝사랑 얘기할 학생같은
초코렛같은 열매
손아귀에 쥐었다 펴 본다

그녀의 얼굴이 아른 아른
그녀의 말소리 소곤 소곤

이 가을 날 햇살 속에서

짝!

짝!

짝!

하늘로 묻혀버릴 이야기는

이 교정 운동장의 학생들

고운 마음속에서

사랑의 싹을 짝! 튀울리란다

새벽을 사냥하다

박 회 량

빛나는 하늘 그 밑으로
까만 땅들이 잠들어 있을 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수 천 년을 걸어온 그분의 소리 쫓아
오늘도 나는 사냥을 나선다

죽었다는 것조차 모르는 죽음이
그림자처럼 생활 속에 들어와 있을 때,
나는 울무 속에 새가 되어 울부짖었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가엾은 이 새를 살려주세요

살이 찢기고 피가 흐를 때
기억해내야 했다, 아주 오래 전
내 손이 생기기도 전이고
내 몸둥이에 살이 붙기도 전에
‘옛다 생명이다’
씩씩한 목소리로 내게 하신 소리

그랬지, 나는 살아있었지
하늘을 향해 숨을 쉬는 나는 생명이지
깨달은 그 순간,
그분이 가만히 내속에 들어오셨다

살아있다는 것은 정녕 살아있다는 것은
독수리처럼 날개를 펴고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바로 그것!

별들이 하나씩 몸을 감추면
이제는 나도
당신과 함께 서서
새벽을 가르는 사냥꾼이 되다

벌초하는 날

세월을 먹고 무성하게 자란
이름도 모르는 풀들만
여저기 흩어진 무덤 위에
예의도 없이 올라앉았다

사람이란 누구나
한 번쯤은 돌아누워야 하는 걸
누워있는 사람이나
서있는 사람이나
다른 것이 없으면 어찌하나

‘너는 무얼하다 오려는가’
소리 없는 낫질 속으로
스러지는 풀들이 물어보는데

한줄기 바람이, 흘러가던 물이
모두가 하나되어 노래를 하고
내 부끄러움도 잊드려
무성한 풀들과 씨름을 한다.

첫 사랑

깊어진 나이 밑으로 한줄기 바람이 들어옵니다
잠도 못 이뤘던 내 사랑이 기억을 훑날리며
바람 앞에 서있습니다. 당신은 아시나요?

대숲 사이로 걸어오신 당신이
보이지도 않는 저 하늘을 날다가
세월을 노저어 바람되어 달려오십니다
참으로 부지런하십니다

당신은 아시나요?
이제는 내만큼의 무게가 되어
누군가가 기대어도 좋을 내가
그 땐 왜그리 작았었는지
아마 모르실겁니다

휘---○
당신이 한 번 쓸고 간 자리엔
작은 추억 하나 웃고 있습니다

작은 나라

일번부터 끝번까지
서른 여덟 명이 다인
나의 나라는
중간에 새 늑은
이민을 갖지만
이름도 다르고
얼굴도 다르고
성격까지 같은 늑이
하나도 없는
그래서 날마다
대형 사건들도
가득한 나라

아침이면 어김없이
나의 왕좌를 찾아
문을 여는데
“7시 53분 3반 김승우 들어왔었음”
고 작은 나라를 지키려고
일찍부터 파수병
애 많이 썼다.
오늘도 시끄러운
내 작은 나라는
든든한 백성들이 있어
행복하다.

직원 회의 시간

계단도 다 내려가기 전
학급 경영록이 무거워집니다
교무실은 아직도 저만큼인데
마음엔 벌써 비가 내립니다
언제부터인가 선생님이 두려운 교사가 되어
새가슴만큼만 숨을 쉽니다
가르치는 것도 어려운 우리들인데
말끝마다 붙어버린 '지도' 때문에
지도따라가기만 바빠집니다.
손비빔을 못하면
그저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까지...
우리들의 언어는 짧아지기만 합니다
너나없이 고개 숙인 채
나라 위해 묵념, 아이들 위해 묵념
그렇게 길고 긴 이십 분은 외롭기만 합니다.

어느새

송 숙 회

출고 어두워질 때
오래된 포도주 한 잔
두 눈에 그윽히 떠올려 보지만
포도주 물무늬 하 사라져 버리고
어느새
그렇그렇 열리는
물 그림
내 그림
내 그리움

어느새

노을이
산허리 쪽으로
조금씩 무너지더니
아파트 베란다에
쫓그려 앉은
여자 이마 위에
어느새 가을이

무너지는구나

이 사

또 다시 짐을 싸고
이제는 충청도가 아닌
먼 전라도로 길을 툰다.
고향으로 가게 되어 좋으나는 물음에
열심히 두 눈만 꺾꺾거린다.
십 년이 넘게
토닥토닥 다진 인연들이
축축하게 젖어서 앞이 보이지 않는 걸까
버리고 갈 무엇도
꼭 지니고 갈 무엇도
알지 못한 채
건너 뒀 내일이 다시 온다는 걸까
손등으로 쿡쿡
눈자위를 눌러 본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지나온 과거에서
미래가 보이는
지나온 과거에서
미래가 열리는
나는 보자기를 싸듯 주섬주섬
나쁜 기억만을 챙기면서
내게 향할 미래를 주시중이다.
누구나 그러듯이
가끔씩 포기했다는 듯
목 메인 소리로 중얼거린다.
이보다 더 나쁠 수 없다.

나밀이에게

그대가 늘 좋아했던 마종기 시인
살아있는 꽃을 보면 가슴 아프다는
그의 시 한 구절을 떠올리며
전이되는 아픔처럼
살아 있는 그대를 향해
눈물 흘린다.
내가 살아 있어서
꽃들이 살아 있어서
혹은 그대가 살아 있어서
오늘도 습관처럼 아침이 열리는구나
시들어 쏘아져 내릴 꽃잎들의 탄식이
덧없다는 건가
실뿌리 하나하나 물을 모으는
생명의 안간힘이 고맙다는 건가
산중에 겹겹 숨어 있을
그대 정다운 이름 떠올리며
그대가 살아 있어
나도 아프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특 아이를 올려 놓고
찬 방에 눌러 앉아
바람소리를 내는 빈 가슴을 본다
아파트 구석구석
가고 싶은 만큼
두들기고 싶은 만큼 유리창을 흔드는
바람은 제 갈대로
아주 자유로운 생(生)이나 보다
나에게나 너에게나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다면(無相의 신이 있다고 했다)
무에 그리 성념이 대단하겠는가
무에 그리 기쁨이 크다고 하겠는가

나에게나 너에게나
정정당당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
오늘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우울한 봄날 오후

윤 용 문

우울한 봄날 오후
무심코 창 밖을 보네
내 한숨이 낮 달고
한 마리 하얀 나비 되어
해를 향해 날아가네

아빨싸 햇살에 찢린 동공
우유빛 안개 넘치며
세상이 흐려지거늘
감으나 뜨나 세상은 망망 대해(大海)라

무너질 것만 같은
주저앉을 것만 같은
어지럼증에
눈을 꼭 감고 진정하노라니
마치 꿈속인 양
말간 햇살만이 가득하네

넓게 펼쳐진
초록 들판이
눈에 들어오기까지
마음 풀어 펼쳐놓고
명상에 잠겨본다.

베트남

역사의 도시 호치민
본때를 보이겠다며
12일 동안 쉼 없이 미 폭격기들의
난동 속에서 살아 남아
지금 숨을 고르고 있다
잠자는 용이 살아나고 있다

사상을 넘은
정신적인 지주
민족주의자 호치민
그가 살아 있는 하노이
호린 우기의 하늘 아래
잠자는 용이 깰까 싶다

조국의 새금을 아끼기 위해
“나의 무덤을 만들지 말라”
유언은 모두의 가슴에 간직하고
호치민이 잠자는 듯 누워 있는 묘 앞에
어린이들이 노래하고 있다.
호치민 찬가를…….

내 파수도

유난히 따가운 날
쉬 가지 못할 곳
내 파수도에 간다

서해를 지키는 파수도
그 섬을 지키는 조약돌 방파제
외로이 어장을 지키는 이 하나
그 섬에 있다

하늘의 뜻으로
조약돌을 빚은 파도
파도가 조각한 피암절벽
그 섬에 있다.

안 노인이 지켜온 자리
분신인 양 염소 몇 마리
솟은 절벽에 올라
그 섬을 지킨다.

안면도 송림을 덮고 오르는 해로 맞아
수평선 너머 황해에 해를 빠뜨리고
술잔 속에 달을 마신다

하루, 이틀, 닷새, 엿새...
언제나 곁에 있는 줄 알았던 মানুষ도
TV도, 신문도 없는 곳이지만
돌아오는 뱃전에서 뒤만 돌아보았다.

묵었던 몸은 떠나지만
마음을 나누어 그곳에 두었고
섬도 나누어
마음속에 담아왔다.

가을 예감

이 경 숙

태풍으로 몇 갑절 몸값이 오른
고랭지 배추를 다칠세라 신문지 위에
뉘어 놓고 푸른 겉잎을 떼어낸다
갑자기 툭 튀어나오는 검은 그 무엇에
그만 놀란 가슴을 쓸어 내린다
아주 작은 꼬마 귀뚜라미
아직 무더위가 기승인데
어느 산언덕 바람을 안고 내게로 왔을까
가을을 예감하며
베란다 화초 위로 옮겨 앉은 꼬마 전령은
삼십 년 전 아버지 계시던 강원도 고한 땅
시린 물소리 곁으로 나를 데려간다
왈칵
눈앞이 흐려진다

소낙비

우울한 낮의 등을 밀며
서늘한 바람이 세찬 빗방울을
던진다
들깨 밭 사이사이
보조개 같은 우물이 패이고
아카시아 우거진 사잇길엔
붉은 물웅덩이
멀리 부엌게 흐려진 풍경을 뒤로
옥수수 앞 주룩주룩 물을 쏟는데
반만 젖은 나는 키 큰 옥수수
옆에 서서 우산을 접는다
온 몸을 적시는 시원한 빗줄기
그제서 개이는 내 안의
일기 불순

詩·이 경 숙

봄 날

냉이 꽃 자욱한 언덕엔
연두 빛 바람이 웃고름을 풀고
호미 끝에 감기는 봄의 숨소리가
꿈인 것도 같은
몽롱한
봄날

구 토

햇살 뽕뽕하던 여름 나는
절망이 쏘아 던진 화살에 맞았다
출렁이며 반짝이던 금빛 바다와
파란 웃음소리 힘차게 펄럭이던
하늘은 제 빛을 잃고
어둠만이 혈관을 타고 흘러 다니며
커 오르던 욕망의 그 뿌리까지
검게 물들었다
의식은 흐릿하게 적막 속으로 꺼져 가고
세월은 폐허가 되어
몇 번의 여름이 생각 없이 지나갔다

또다시 햇살은 줄을 당기고
매미는 온몸으로 여름에게
대들고 있었다
자지러지는 매미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찢으며 내 의식을 흔들었다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다

詩・이 경 숙

오후 네 시

창문틀에 얹어진 제라늄 화분
긴 팔 들어올려
빨갭게 꽃을 피우고 있다
석창살에 갇힌 파란
마름모꼴의 하늘을
가만가만 건드리고 있다

길

이슬람의 나라
마호멧의 천국
이란의 도시에도 예수의
카톨릭 성당이 있다
전혀 보편적이지 않게
거기 보관된 머리카락 한 올에
현미경으로나 보이는 글씨로
성경 구절을 새겼다는 어떤 사람
가장 좁은 길 위로 세상을
건너 간 사람

세월은 나를 앞질러
하얗게 달려가는데
행선지가 자주 바뀌는 내 여행에
건너야 할 머리카락은
어디 있는지

길 1

이 영 동

언제라도 누구라도 갈 수 있는,
곳

언제나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곳

네가 아니면 도저히 갈 수 없는,
곳

나만이 흐릿하게 갈 수 있는,
곳

내생이 끝나는 곳,
한 평 반 그 길

길 2

서산을 출발하여 39번 국도 따라 서울을 향한다. 음암 운산을 막 지나 고개를 넘어 내 달리면 당진으로 향하고, 삼교호 제방 길을 따라 인주 사거리를 향하면서 걱정이 밀려온다. 오늘은 어느 방향으로 탈까? 한 참을 고민해도 결정을 내리지 못하겠다.

36번을 탈까? 1번을 탈까? 서해안 고속도로를 탈까? 순간 교통방송에 주파수를 맞추고 소리를 한껏 더 키운다.

- 도로교통안전협회 제공 오늘의 교통정보를 각 현장에 나가있는 취재원들을 연결하여 도로사정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경부고속도로 안성 인터체인지에 나가있는 000 취재원을 불러 보겠습니다. 그 쪽 교통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경부고속도로 안성 인터체인지입니다. 이 곳의 교통 사정은 그다지 원할 한 편이 못되고 있습니다. 상행 선은 가다 서다가다 서다를 반복하는 거북이 걸음을 하고 있고, 하행 선은 다소 지체되는 곳은 있지만 소통은 대체로 원할 합니다. 이곳……다음은 중부 및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호법 인터체인지에 나가있는 000를 불러보겠습니다. 그 곳은 어떻습니까? 네 이곳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만나는…….

벌써 신호는 바뀌고 무의식적으로 돌린 좌회전, 이 곳은 막히지 않을 테지.

길 3

얼마를 헤메었던지 가름도 못하고 무작정 걷기만 하던 길,
길 눈은 어두운데다 처음 가는 길이라 더욱 갈피를 잡지 못
하고, 처음 출발은 맞았는데 왜 그리 꼬불꼬불하고 알 수가
없는지,

삼 년하고도 몇 개월이 흘렀는데도 답은 나오지 않는다.
지도를 펴놓고도 이 방향 저 방향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 골
목 저 골목 아무리 기웃거리어도 답을 구할 길이 없다.

언제나 찍어 맞추던 사지선다형 문제라면 차라리 좋겠다.
답이 딱 떨어지는 단답형이라도 괜찮겠다.

비가 오려나 보다. 하늘을 보니, 그런데 눈도 올 것만 같
다. 도대체 해는 언제 또 뜰지 궁금하다.

길 4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달콤한 향기를 쫓아 무작정 달려갔다. 그 곳의 끝이 어디인지 그 출발점을 찾고 싶었다.

선명한 무지개가 있는 그 사이로
하얀 구름 너머에 기다리는
붉은 태양의 심장을 향해
한마디 고함소리로
그 곳에 다다르고 싶었다

동화 속의 어린 왕자처럼
누구와도 친구가 되어
그 곳을 함께 찾아
힘차게 한 발을 딛고 싶었다

길 5

바람불면 어디든 가리라
그 가녀린 느낌마저도 간직한 채
한 줄기
강한 유혹도 때론 벅을 삼아서

눈이 오면 어디든 가리라
차가운 육각형 그 신바함이 사라지기도 전에
소복소복
깊은 발자국을 남기며

비가 오면 가리라 어디든
강나루 한없이 긴 그 길 따라
흠뻑 젖은 채로 목말라하는
나를 기다리고 있을 그 곳으로

길 7

어디로 갈까
한참을 망설이다 어두워지는 하늘을 바라본다
하나 둘 별 빛이 반짝이고
발 아래 가로등이 하나 둘 켜진다

처음 출발은 한 곳인데
목적지는 없다
이 길로 가면
아니 저 길로 가면
모두가 가는 길인 것 같은데
미로 속을 헤매이고 있는 느낌은 무엇일까?

삶이 힘들어 잠시 쉬어 가고 싶은데도
도무지 알 수 없는
목적지 없는 그 길을
오늘도 찾아 헤메인다

길 8

어디 두고보자 누가이거나 너 하나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졌는데 너는 어디 두 발 쪽 뺄고 편히 잠을 잘 수가 있는지 두고보자 나는 한번 한다면 하는 사람인데 네 인생이 종치든지 내 인생이 종치든지 어디 한 번 두고보자.

그 한마디에 획 돌아서는 매정한 사람 자기 말만 해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성큼성큼 가버리는
그를 향해 무엇이 그렇게 화나게 했는지 내 자신도 도무지 알 수가 없다 하기사 세상에 두고보자는 사람치고 하나도 무섭지 않더라

그날 저녁 나는 두 다리 쭈욱 뻗고 피곤한 하루를 마감하며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편안한 잠을 잘 수가 있었다
그 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갈 수 없는 길

때이른봄비가추적추적내리고있는그시간사이로생을달리하
는곡(哭)소리가토닥토닥들려오는저멀리가늘게한서린절규
가움산한하루를맞이하게한다

바람이 불어오는 쪽으로

한편가야할의무가있는것도아닌곳으로자신도모르는사이발
길이움기고있는사람들팔짱을끼고너도나도한곳으로가고있
다무엇을위해서가아니래도

물어 물어 찾아가는 길

한평생잊기위해태어난사람처럼망각이란세월의굴레속으로
점차최면이걸려지고이태쯤지나면언제였던지열손가락확떨
쳐헤아리곤하는

그 곳은

차마 갈 수 없는 길

빨래를 하며

이 종 안

다시 맑아진 시냇물에 옷을 빨다
조용히 흐르는 물소리처럼
품어지는 비누거품
혼자만의 여울 속으로
시름이 흘러간다
우묵한 개울가 속
되비치는 하늘, 수풀
내 가슴에도 푸른 하늘 뜬다
키가 큰 풀은 목장의 풀
내가 지은 이름인데
고풍 저수지에서 떠내려 왔다
뜨겁던 유월의 해가 기울면
사람들은 분주하고
어느새 풀잎마다 작은 이슬방울
나는
집으로 돌아가야 한다

아버지

길병원 심장센터 수술실 앞에서
삶과 죽음의 중간으로
수술에 오르신 아버지
하얗게 굳은 손을 잡으며
아버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하지만
유리창 너머 밝은 불빛 아래
아버지의 영혼이
가시는 게 아닌가
잔뜩 긴장되고
벌써부터 우리들은
눈이 흐려지는데
평생 하나님만 믿으신 아버지
나 또한 그런 아버지만
믿기로 했다

詩・이 중 안

잉 어

나는 화려한 치장을 한
수족관 속 노란 잉어
크고 탐스런 입에 비해
좁은 공간에서
하루에도 수없이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만
낮익은 친구 붕어가 있으니
외롭지 않다
때론 차단된 그림 속 수초에 부딪혀
입이 아플 때도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겠노라 하지만
나도 모르게 가고 있는
나는 멍청이 잉어
고향을 잊은 지는 벌써 오래 전이다

詩・이 중 안

가지를 치며

나무크기 만큼
수분을 감당할 수 없어
맨 아래 가지서부터 자르기 시작해
적당한 간격을 두고
뺀어 있는 나무만 남긴다
꼭대기로 오를수록
자르기도 힘들어
툽날은 쉽게 닳고
아절한 아래를 보면
허전한 빈 공간 속으로
풀잎들만 돋보인다

친 구

빛나는 삶 속에
오랫동안 숨었던 친구를 만났다
그 동안 얼마나 변했는지
섬섬끓은 과찬도 하며
어릴 적 나무꾼이었던 그녀가
평양공주가 되어
남편을 유학까지 보냈다는
보람된 자랑도 들으며
유년의 부풀던 젖가슴
치마 허리로 감추던 시절 떠올리며
깔깔대며 웃기도 했다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 곡 못 부르는 것도
매혹적이라 할까

능소화

주 병 구

1.

담장 위로 빠죽이 내밀었던
그날의 능소화가
얼먹은 가슴인 것을
나중해야 알았다

아이를 들쳐업고 보리방아 찧다가 손등을 찧어도 침침한
등잔불 아래 바느질하다 핏방울이 맺혀도 못 본 척 돌아서
던 남편이었으니 읊내 주막 어떤 년과 눈이 맞아 밤새는
줄 모르던 사내였으니

고갯길은 넘어도
넘어도 끝이 없었다
배암처럼 늘어진 밭고랑에 앉아
퍽퍽 호미질하며
빨개진 가슴팍을
후벼댔 뿐
영킨 실타래는
풀어도 끝이 없어

2.

기저귀 갈아 채우고
옷매무새 만져주던 눈망울이

기다려보라는 듯 하여

밤새 열에 들떠 보채는 아이를 대신해서 앓아 누웠고 맴다
짜다 투정부리다가 가방 들고 학교 가는 아이를 동구 밖까
지 숨어서 따라가던 어머니는 차디차게 식은 아침을 달게
먹었다 어느덧 아들이 덩수룩하게 자라 두 눈 부리부리해
지자 어머니는 그만 아들이 남편인 듯 한데

해를 잡으러 떠난 아들은
저녁 노을에 묻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고름이 배어난
빨건 가슴으로
아무 옷이나 대충 입고
우두커니 문가에 섰다

성큼 들어서며
'어머니'하고
부를 듯 하여

詩·주 병 구

1999년 7월

감추려고 칭칭 동여맨 뱃속에는
장차 그 어미를 집어삼킬
씨앗이 또아리 틀고 있었다

반역은 싹터
무르익어
언제라도 터질 듯 부풀어올랐다

태양을 보라
검은 연기 뿜어내며
마지막 채비를 하지 않느냐?
산과
들판
시들시들 누렇게 지쳐

악을 쓰며 울어대는 눈물을
정성스레 포장하는
폭풍 전야는
눈빛만 번득일 뿐
아무도 나서지 않는다

한사코 감추고 싶지만
또아리 튼 모습

이제 뱃가죽에 선명하게
꿈틀거리고 있다

꿈 길

그 길은 예전에 한 번 거쳐간 듯
낯설지 않다
그러나 길이 아니다 몸뚱이 겨우
지나갈 구멍 속이다
뱃속 창자 어딘가 인 듯한
어머니와 연결된 탯줄 같은
그러나 밟고 지나가야 할 길인 듯

빠져든다 굉장한 힘이
빨아들인다 나는 스스로
홀쭉해져 그에 웅한다
어느 때는 등실등실 떠
머문다 그때가 더욱 답답하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잘 모른다 다만
어렴풋이 살아있다고 느낀다
그러나 반은 죽었다

빠져들 뿐이다
평화로운 죽음을 향해
가라앉을 뿐이다

고구마

거실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하얀 수반 속에
정수된 물과 영양제를 받아먹으니
낮 빛 뽀얀 귀족이다

그래서 자라
너 땃 뽀이나 자라 몸을 가누지 못하여
가는 뿌리 여러 갈래로
정찰대를 내보내지만
배부른 김에 땅을 찾아보지만
아무리 둘러보아도 찾을 수 없다는
보고만 여전히 들려온다

튼실한 사내아이도 낳고
곰살스레 딸을 껴안고
잠드는 꿈을 꾸지만
네모난 수반에 갇혀
일어서는 성욕은 하릴없다

나일론 같은 줄기로
지쳐 기웃이 기댄 것이 그만
싸늘한 콘크리트 담벼락이다

0 혹은 1로 가위질하는

0 혹은 1이란다

하늘은 0001이고 구름은 0010

바람은 1001이고 나비는 1010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나'를 코드화 하면

0은 제멋대로 구르고

1은 곤두박질 쳐 나뒹굴텐데

아, 아내여

당신을 안아줄 디지털을

3이나 8정도는 안되겠는가

손가락 두 개로 싹둑거리며

우주를 가위질하고

산산이 부수어 대고 있으니

참새는 3초의 주기로 변신한다

새집 같은 카운터를 마련하고
슈퍼마켓은 참새를 키운다
참새는 3초의 주기로
화장을 고치느라
손과 발이
눈과 귀가 분주하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줄 속에
여럿이 발맞추어 뛴다
한 명이 넘다가 빠져나오고
눈치를 살피던 하나가 얼른 뛰어든다
줄은 거둬 돌아가고
나는 차례가 되어 그 속으로 뛰어들어
3초 짜리 토막을 할당받아
팔짝팔짝 뛴다

알았다니까
저 참외는 하나에 얼마씩이지요?
천 원에 두 개
지난번엔 정말 미안했어
담배는 어디에 있나요
여기 있어요
알았다니까

두 갑 주세요
알았습니다
뭐 사줄건데
계산 좀 해 주세요
잠시만요…….

건네준 천 원 짜리를
좌르르 세더니 마지막 장에
딱 소리내며 마감을 표한다

나는 얼른 줄 밖으로 튀어나오고
참새는 계속 줄을 돌리고

월출산

최 병 기

월출산 구정봉
산새가 쫓아낸 시간으로 하루를 만든다.

떠나간 사람의 눈빛같은 가을엔
넉넉한 가슴으로 들판에 서기로 하자.

떠나간 사람은 그 떠나감으로
돌아온 사람은 그 돌아옴으로
이 풍요로운 계절을 맞기로 하자.

시나브로 찾아온 바람이 분다.

빈 가슴 텅 빈 행복으로
계절의 길목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기다려야 하는가.

비 석

친구여 내 아우여
그렇게 지껄이며 웃던...
내 떠나가도
잊지 말아다오.
얼음을 짖어 젊음을 사르던...

어느날
내 마지막 모습이 뵈거든
그 은쪽 초엽에
내 이름자 새겨다오.
그리고 기억해다오.
내 피켈이 살아 있는 한
언제나 함께 있다고
눈속에 청초한 에텔바이스로...

타향에 내리는 비

휘어져 돌아와
눈시울 적시는 그대의 미소

지난 사월
따뜻한 대지의 추억처럼 남은
햇살조차 잘리워 비가 됩니다.

고개 들면
조각달 떠나간 여기는 타향

님이여
서러워 마소서
하늘마저 그리워 비가 내립니다.

詩・최 병 기

기 도

뼈꾸기가 울었다.

한번씩

한번씩

뭔지 알지도 못하면서

모짜르트를 듣는다.

검은 구름사이로

언뜻 내비치는 하늘이 푸르르다.

눈을 감자

주여

오늘 하루라도 우리로 살게 하소서.

라일락

최 소 녀

비 새는 다락방이 있고
아름드리 장독에
붉은 고추 대 여섯 떠있고
감꽃이 피어나던 읍내동 전세집

뒷집 마당가에 라일락
간간이 흔들리고
기타 치던 아가씨
눈앞에 삼삼하다

담 너머 너머로 향기 실려와
자꾸만 뒤로 가는 발걸음
잃어버린 시간 불러 모아
그리움이 한 움큼 밀려온다

바람 따라 취하는 보라빛 향기

지금 내 마음

조립식 주택 옆구리
눈발이 사각댄다
뺏속까지 얼어붙어
꿈마저 으스스하다

아파트
양옥집이 아니어서 싸늘한가
한파 타고 달려온
새벽 종소리도 시렵다

마른버짐 번지는 때
어디 봄날뿐이라
구겨진 마음
다림질 할 수밖에

비오는 날에

어둠이 가라앉은 밤
부드러운 기척이 있어
귀를 열어보니
숨죽여 걸어오는 비의 발자국
맨발로
약속 없이 찾아와
밤 사이사이
풀뿌리 단단해지고
나뭇가지 싱그럽다
누군가 울 것 같아
빗소리 보듬는
깊어 가는 밤

詩・최 소 녀

오 늘

너무 많은 것도
너무 작은 것도 싫어
예까지 온 거야

아름답던
지난 날을 쓸어담아
내 인생의 그림을 그리는 거야

가문 가슴에
마른침을 삼켜도
내일의 꿈은 있어
비안개 헤치며
무겁게 밀리는
지쳐버린 오늘

고 백

한 근 식

늘 함께 하던 아내가 낯설게,
외출한 이 시간은 낯설은 외로움이다

멀지만도 않은 곳의 知人에게서 보고 싶다는 말 한 마디,
그 말 한 마디는 쓸쓸함이다

분에 넘치게 내려주시는 이 가을 햇살 한 무더기,
이 한 무더기는 두려움이다

함께 할 때 나누고 싶었던 따스한 말 한 마디
어눌하여 그대로 시들어버리고…….

헤헤거리며 받기만 하고 드리지 못했던 속 좁은 마음속으로
또 한 줄기 은혜로운 마음 내리고…….

구석구석 화안히 쏟아져 내리는 이 가을 햇살 아래에서
감출 것 없이 드러나는 이 모든 것은

감당하기 힘든 나의 부끄러움이다

詩・한 근 식

풍 경

송화가루 풀풀 날리우는 오월의 들녘
이상하게 생겨먹은 대파 꼬투리
무더기로 꿈틀대는 밭고랑 사이를

시어머니와 새댁이 걸어가는 풍경

눈길 닿을까봐 먼데로 던져놓은
시어머니의 주름진 視線 속으로
동네 총각 녀석들의 불손한 웃음소리

가득 차오르는 풍경

고운 종아리를 슬쩍 간지럽히는
대파 꼬투리의 스치움에 화들짝 놀라버리는
새댁의 빠알간 수줍음이

오월의 저녁노을로 붉게 번져 가는 풍경

풍 경

내가 마시는 이 한 잔의 茶
무엇이 될까
한 모금 마시다가 창 밖 내다보니,

단풍으로 물들어 있었어 노오랗고도 붉게.

내가 쓰고 있는 이 한 줄의 詩
무엇이 될까
한 줄 겨우 마치고 창을 열어보니,

낙엽되어 떨어져 내리고 있었어 쓸모 없이 나뭇구는 낙엽.

그 아래에서 힘겹게 비질하는 청소부에게 미안함
미안함이 되었어
茶는 이미 식어버렸고 詩를 쓴다는 미안함으로 비워놓은
나머지 공간

그 흰 공간 사이로 함박 눈 소리 없이 내리려나

初 夏

밤 꽃 냄새 비릿하게 푸르른 초여름 밤

개구리 발엔 무성한 벼포기

물풀 적당히 덮여 있겠다

밤 깊어 가겠다

맘 놓고 짹짹하는 암수 개구리들의

씩씩한 아우성에 야들한 숨소리 부끄럽지않다

이 참에 그 야릇한 소리 섞어본들 어찌알라

논둑가 신혼 방에서의 대담한 사랑놀이

마지막 순간인 듯 숨가빠 이뤄질 때

시간은 적당히 흘러간다

출렁거림 속에 섞여오는 부시럭거림

또 한 차례 푸르른 밤 꽃 냄새 후 풍겨 오고

얼마 후 밤하늘은 갓 태어난 아기 별로 가득하겠다

默 想

내 아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바람 불어오는 것
그리고 가는 것
이 모든 것조차 하찮게 짓밟았던 풀잎에서 알았을 뿐

내 아는 것
아무 것도 없습니다

사람 좋아하며 산다는 것
그리고 그리워 한다는 것
이 모든 것 이웃에게서 겨우 배웠을 뿐

또한,
내 삶과 뼈와 이름을 물려주신 분들의 은혜조차
겨우 일곱 살 자식에게서 떠듬벅 거리며 배우는

내 혼자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 것도 없습니다

가 족 사 진

- 뉴스가 보도되고 있는 시간에

내가 오늘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우리 집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는 사실이다
조금만 조심했어도 저토록 고생하지 않아도 될…….

여당에서는중선거구제도가지역감정을해소할수있는최선의선거
방식임으로당론을확정시키고이를야당에충분히설득할수있도록
조만간영수회담을추진할예정인데…….

내가 이토록 안타까워 하는 것은
우리 집 딸 아이가 아침 밥을 거르고 학교에 갔다는 사실이다
조금만 일찍 일어났어도 따듯한 밥 한 숟가락도 먹어 보냈
을…….

한편모고등학교에서는선생님의체벌사실을핸드폰을통해경찰에신고하
여경찰이출동하는사건이발생하여이를신고한학생은분명교육부에서급
지한학생체벌이교사에의해저질러지고있음이부당하다고…….

내가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우리 집 아들 녀석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사실이다
장난감을 방 안 구석구석 어지럽히는 것을 보니…….

한편평생을남을위해봉사활동을하며남부럽지않게살던어느노부부가온재산을사회단체에활용하겠다는사기꾼의농간에넘어가온재산을날리고지금은보증금백만원의월세방에서당장의끼니를걱정하며살고있는데장성한아들이있다는사실때문에영세민혜택조차받지못하고있다는사실이…….

내가 이토록 분노하는 것은
우리 집 아이가 모기에 물렸다는 사실과 아침 밥을 거르고
학교에 갔다는 사실,
그리고 아들 녀석이 방을 어지럽힌다는 사실뿐이다.

詩・한 근 식

신 농 부 가

- 가구리 607번지

국화 꽃 五百盆을 몰래 피워놓고
겨우 용기 내어 잔치상 만들어
초례청에 나온 신부마냥 수줍어하는 분들이 계신 곳

‘다 못피운 봉우리 때문에 미안하다니요?’
꽃보다도 향기롭고 아름다운 표준어가 다녀가는 뒤로

미안해유 미안해유
국화 봉우리들의 수줍은 사투리

그 곳에는 개 짖는 소리도 사투리이다

蛇足 : 이 글들이 이뤄질 수 있도록 풍경을 이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하 지

홍 인 옥

낮은 베개 고쳐 베도
더는 잠이 오지 않는 새벽
조용조용 창문을 여니 내가
물 밑에 있네
아직 깨지 않은 소리는
그대로 잠 재워 두고
고요한 풍경과 인사를 나누면
어느 덧 나는 착한 사람의 얼굴이 된다
햇살이 퍼지기 전
다른 사람과 눈이 마주치기 전
소음들이 거리에 나타나기 전까지만이라도
이대로

백삼십일번 버스
달걀 낳 듯 나를 내려놓고 간 밤 길
수다스럽게 핀 대추꽃 아래를 지나
베개를 찾아 누우면
와글와글 길었던 하루가 아늑한 이불이다

이 사

저녁 공양 마친 스님
종종 걸음
흰 고무신이 눈부셔 바로 보지 못하고
기와지붕 한번
슬가지 한번 공연히 쳐다 봅니다

공기들같은 웃음만 남겨두고
성큼성큼 산으로 가
발 닦고 물 마시고 눈 감고 하늘 보고
부처님 만나고
부처님만 만나고
가을에 가을 보태더니
단풍으로 들끓는 산 속
스님 이마엔 오히려
파란 솔바람이 흐르더군요

어스레한 산 길
어깨를 맞춰 내려오며
스님은 짐짓 땡글땡글 웃지만
아랫마을에 사는 나는
오래
마음이 젖을 것을 짐작합니다

오후 네 시에 나는

-겨울

비가 오려는지 날이 저무는지

골목길 돌아가는 할아버지의 헛기침이 춥다며
차 한 잔 청하는 젊은 여자 있어
종이컵 하나씩 나누어 창 밖 내다본다
길은 이쪽저쪽으로 나 있어
커피 자판기는 정면에 따뜻한 애인처럼 서 있어
그가 걸어 온 길 내가 온 길
엇갈린 적조차 없어 때때로
오접된 전화 같아도 어차피 길은
만나게 되어있어
함께 차를 마시고 있는 교차점 사방에
가려움증 같은 어둠이 퍼지고
한 점 두 점 전등이 깨어나면
흐리면 흐린 대로 길이 된 사람과
극. 동. 수. 퍼
차례로 켜지는 낡은 네온 따라
눈길이 겹친다
잔이 비어도 향은 남는 것 처럼
오래 익숙한 향으로 남고자
오후 네 시에 나는

목은 마늘

다섯 살 된 나를 데리고 언덕을 넘어오는
어머니의 등엔
햇수로 삼 년을 내리 앓아 마른 강아지풀 같은 동생
노랗게 잠들어 있었다
이름 같면 일어난다는 만신의 꾀에
종례가 인애 되어 돌아오는 길
두어번 포대기를 고쳐 맨 지친 어머니 가슴
찌릿찌릿 젖이 돌아 안쓰러운 희망에 부풀었으리
새 이름 얻은 동생이 새 동생 같아
인애야 인애야 언덕 다 넘도록 불렀던 나도

인애도
꼭 나 같은 꼭 저 같은 딸을 키우며
살아보니
그 때 넘던 언덕 내 길에도 여러 번
세월 고쳐 업을 적마다
몸의 수액이 줄어
이렇게 사위는 건가
문득문득 사는 일이 아득해 진다

별 안 드는 구석에서 깊은 겨울 지낸 마늘
제 몸 말리며 오롱오롱 싹을 틔웠네
온통 허방다리 짚는 것 같은 세월

오늘은 묵은 마늘이 만신 되어
향내나는 불 밝혔다

자목련

시린 감나무 끝 가는 다리 까치가
아슬아슬 외로워 보였던 지난 겨울
마루 끝 손바닥만한 햇별은
한쪽 어깨도 녹이지 못해
투정하듯 탁탁 구두를 털며
시린 속을 채웠다
녹슨 경첩처럼 삐걱이다
겨울은 아주 가고 연 이틀 비가 왔다

급히 걷어 젖힌 커튼 위
커다란 부채살처럼 활짝
햇살이 달려드는 늦잠 잔 아침
부신 눈을 감으면
지금쯤 그대 마당에
수천의 잎이 숨죽여 더욱 홀연한
자목련 피었을까
내 마음 같은

白 衣

김 현 구

근래(近來)들어 머리 색깔이 노랑, 갈색 등으로 달라지고 있음을 본다.

그런가하면 칼라셔츠를 입는 사람이 부쩍 늘었다.

우리 민족(民族)은 흰색(白色)이 아니면 검은색(黑色)이 기본(基本)이다.

옷가게에도 흰색은 거의 없어지고 색깔 옷이 주종(主從)을 이룬다. 이는 현대감각(現代感覺)과 감성(感性)의 표본(標本)이다.

그러나 색깔은 흰색에서만 존재(存在)할 수 있다. 따라서 칼라셔츠가 현대문화(現代文化)라 한다면 흰 셔츠는 전통문화(傳統文化)의 표징(表徵)이라 할 수 있다.

전통문화의 가치(價値)는 백색(白色)인 것이다.

흰옷을 즐겨 입던 우리 민족의 의상(衣裳)도, 색깔도 달라진지 오래다.

우리 민족은 언제부터인지 민족의 자존심(自尊心)을 나타내고자 할 때에는 으레 백의민족(白衣民族)임을 내세운다.

우리 민족은 흰옷 입기를 좋아하였는데 그런 습속(習俗)이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다.

얼굴이 마음을 나타내는 거울이듯이 옷은 그 사람의 정신세계(精神世界)를 나타내는 문화의 표징이다.

백의(白衣)를 좋아했다는 우리 민족이 흰색으로 상징되는 정신문화(精神文化)를 간직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흰색은 화평(和平)을 상징한다.

고달픈 생활(生活)의 마디마다 고유(固有)의 명절(名節)이 있어 잔치를 벌여왔는데 이 크고 작은 잔치에는 항상(恒常) 흰무리 백설기라는 떡시루가 한 가운데를 차지했다.

설날에는 흰 떡국을 끓여먹고, 추석(秋夕)에는 흰 송편을 빚었다.

그리고 말끔하게 흰색 두루마기를 입었다.

제사(祭祠) 때에는 아무리 형편(形便)이 어려워도 흰 땃바지를 올리고 흰 옷을 입었다. 지금도 집안에 상(喪)을 당하면 경건(敬虔)한 마음을 가진다는 뜻으로 흰 상복(喪服)을 입는다.

인류평화(人類平和)의 제전(祭典)인 올림픽 성화(聖火)를 채화(綵火)할 때도 흰옷을 입는 이런 풍속(風俗)은 흰색이 평화(平和)를 상징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교도소(矯導所)에 죄수(罪囚)가 없을 때에는 흰 깃발을 세운다고 한다.

싸움터에서 백기(白旗)를 들면 항복(降伏)을 뜻하는 것이지만 실은 싸움을 그만두고 화평을 하자는 뜻이다.

흰색은 어떤 색과도 조화(調和)를 잘 이루는 가장 순수(純粹)한 색이다.

치장(治裝)이나 꾸밈이 없는 순박공명(淳朴公明)한 색이다. 그래서 표준색(標準色)인 것이다.

흰 바탕에는 어떤 색도 뜻하는 대로 염색(染色)을 할 수가 있다.

모든 색을 포용(包容)하는 어머니의 색이라고나 할까?

또한 흰색은 다른 색에 비(比)해 월등(越等)히 밝다. 그렇기 때문에 흰색은 밝은 미래(未來)의 꿈을 사람의 가슴에 심어준다.

흰 옷을 즐겨 입던 우리 민족은 깨끗함과 밝은 마음가짐을

추구(追究)하는 선량(善良)한 민족이었음에 틀림없다.

그런 심성(心性)을 가졌기에 전쟁(戰爭)을 싫어하고 평화를 사랑했으며 순수한 민족문화(民族文化)를 간직해 올 수 있었다.

흰색을 즐겨 입는 우리민족은 흰색의 밝은 만큼이나 옅고 그른 것을 가릴 줄 아는 지혜(智慧)가 있었다.

모든 색은 근원(根源)인 흰색(白色) 그 흰색 만큼의 주체성(主體性)도 있다.

이제 지구촌(地球村)의 주체는 우리 백의민족(白衣民族)임을 내다본다. 瑞山文學

산 길

김 현 주

햇빛 맑은 일요일 오후 남편과 가까운 산을 찾았다.

성왕산이라고 하는데 지척에 있어도 처음 오르는 산이다.

산 밑에 차를 두고 시멘트로 포장된 가파른 길을 오르다 보니 오른쪽으로 용연암 이라는 팻말과 함께 자동차가 다닐 만큼 넓고 평편한 길이 나타났다. 나는 담박 그쪽으로 마음이 쏠렸다.

시골 신작로마냥 바퀴자욱 사이로 지렁풀이 자란 길은 평지와 다름없이 밝고 온화 했는데,

남편은 쉬운 길로는 운동이 안된다고 했다. 운동하려고 나온 길도 아니려니와 나는 잡목이 우거진 어둡고 거친 등산로는 좋아하지 않는다. 금방이라도 낮선 무엇이 튀어나올 것 같은, 하다못해

뺨이라도 만날까봐 잔뜩 긴장하며 걷는 닳지않은 길은 가고 싶지 않다. 자연에 익숙하지 못한 탓이겠지만 쉽고 편한 것에 길이 든 때문인지도 모른다.

폭신한 풀의 감촉이, 한 계절을 살고 사위는 풀의 감촉이 발바닥이 아닌 마음으로 닿아오는 그 길로 들어서면서 나는 어디서 읽은 시구 하나를 생각했다.

“청춘은 삶의 한 시절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마음의 한 상태를 일컫는 말이다.

뺨이 빨그레하고 무릎이 부드러워야 청춘인 것은 아니다. 의지가 다부지고, 생각에 격조가 있고, 감정에 활기가 있으면 청춘이다.”

그 시는 감정의 안테나가 곳곳히 서서 낙관의 메시지를 받고 있는한 사람은 여든에도 청춘으로 이 세상을 떠날 수 있다고 노래했다. 그렇다면 나는 몇살의 나이를 살고 있을까.

길은 내리막인가 싶더니 완만한 곡선으로 휘어지며 오르막으로 이어졌다. 부드러운 경사의 양 옆으로 잡목 없이 고르게 자란 솔밭에서 풍경소리 같은 바람이 일었다.

남편과 나는 한 동안 말없이 걸음을 떼어놓았다. 타인의 눈길과 무관히 여리게 편 구절초와, 또 절개지를 감싸고 흘러내리듯 자란 비단결 같은 풀 이름은 무엇일까. 남편은 유년의 기억을 더듬어서 그 풀의 쓰임새를 얘기했다. 가을이면 그 풀을 베어 술을 만들고, 그 술을 가지고 벽 단장을 했다는 것이다. 황토를 푼 물을 그 풀잎 술에 적어서 흙벽을 곱게 칠했다고 하는데 나는 처음 들어보는 얘기다.

어릴적 할머니들이 마당에 모시나 삼베 올을 길고 팽팽하게 늘어놓고 그 위에 솔뿌리로 만든 솔로 풀을 먹이고 불을 쪼여서 뽕뽕하게 말리던 기억은 나지만, 벽 단장은 모르는 일이다.

가을이 되면, 방문 손잡이 부분에 나뭇잎이나 꽃잎을 넣어서 창호지를 새로 바르고, 노랗게 새 짙을 엮어 지붕을 해었고 또 어느 곁에 벽까지 고운 황토물을 발랐다니 삶을 가꾸고 매만질 줄 알았던 옛사람들의 부지런함이 나를 돌아보게 한다. 격조란 그렇게 소박한 멋과, 여유를 일컫는 말이 아닐까.

낮선 길을 걷는데도 오래 다닌 길처럼 낯익은 기시감은 어디서 온 것인지, 만나지는 사람 하나 없이 마침내 등성이에 닿고나니 불현 듯 나는 눈앞의 내리막길을 내달리고 싶어졌다.

유년의 한 찰라에 서 있는 듯, 쇠필통 팔랑거리는 책보를

허리에 매고 막, 숨을 고르고 ‘탈 탈 탈’ 산길을 달려내려갈 준비를 한 것처럼…….

마음만 산양처럼 탄탄한 종아리로 내리막길을 달려가고 몸은 연못 같은게 있을리 없는 산 중턱의 용연암을 향해 올라갔다.

스산한 암자였다. 용의 연못이라는 한자 현판이 붙어있었는데, 인적이 없어 가만히 문고리를 당겨보니 초라한 불당앞에 덩그러니 목탁이 놓여있었다. 불전이라도 놓고 나오고 싶었지만 그냥 문을 닫고 말았다. 폐쇄공포증이 있는 것도 아닌데 어둡고 막힌 곳을 꺼려해서다.

한사코 산 속 등산로를 고집하는 남편을 잡아끌고 갔던 길을 되짚어 내려오느라니, 야생 밤나무 밑에서 두 불이 한껏 부푼 청설모 한 마리가 우리를 보고 놀란 듯 오뎅하니 멈춰섰다.

사람을 그다지 두려워하지 않는 영악한 이 외래종 다람쥐는 나하고 뻥히 눈을 맞춘 채로 움직이지 않았고 남편이 돌을 집어드는 시늉을 하자 그제서야 놀리듯 쟁쟁게 나무가지 사이로 사라져 버렸다. 산 그림자가 내려앉는 숲은 우물처럼 깊어지고 청설모가 사라진 어디쯤에서 밤 인지 상수리인지가 툭 하고 떨어졌다.

내 삶에 이렇듯 향기로운 날이 얼마나 될까. 떨어진 밤알 하나 라도 산 짐승을 위해 남겨두고 싶은, 함초롬히 편 산 국화를 누군지 나중에 올 사람을 위해서 고이 남겨두고 싶은 마음의 향취는 내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고 걸어가야 할 길을 가늠케 한다.

새로운 길에 대한 아쉬움을 못내 접지 못하는 남편의 손을 잡고 산을 내려오면서 나는 아까의 그 시를 읊조려봤다.

“사람은 나이를 먹는 것만으로는 늙지 않는다. 이상에 등

隨筆・김 현 주

을 돌리면서 우리는 늙어간다.” 瑞山文學

시 가(媿家)

내 시가에는 오래된 라일락 나무가 있다.

퇴락한 담장을 가리고 선 무성한 라일락이 골목까지 소리 없이 마중을 나오는 계절에는 말 할 것도 없고, 나목이 앙상한 겨울에도 이 나무 앞에 설 때면 아직도 아늑한 설렘이 내게 남아있다.

그 옛날 어느 저녁 우연히 집 앞에서 마주친 사람이 조금 시든 흰 꽃가지 하나를 내밀었을 때 나는 그게 라일락 인줄을 몰랐다. 자기집에 핀 꽃이라고, 향기가 좋다고 했지만 내게 주려고 일부러 꺾었다는 말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수줍음 많은 그가 매일저녁 그 꽃을 꺾어들고 나를 기다렸을 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환상은 꽃냄새 만큼이나 아련한 것이다. 수 년 동안을 내가 만들어낸 상상 속의 사람을 사랑하고 그 환상에서 깨지 못한채 결혼을 했다. 라일락 가지에 눈이 소복하던 그 해 겨울, 나는 녹의 홍상에 흰 버선을 신고 저녁마다 퇴근하는 남편을 기다리며 대문 앞에 서있곤 했다. 이듬해 딸 아이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라일락이 피었다.

나는 아이를 안고 구름처럼 핀 라일락 꽃 그늘 아래로 나갔다. 아이는 눈이 부셔서 얼굴을 찡그리고 있었지만 나는 아이에게 맨 처음 그 환하고 향기로운 꽃을 보게하고 싶었다.

아이의 품성이 온화하고 한껏 싱그러운 오월 아침 같기를, 아이가 사는 세상이 밝고 기운차기를 소망하면서 나는 아이를 안고 오래도록 나무아래 서 있었다.

그 때까지도 결혼은 내게 생활이 아닌 꿈이었다. 더 바랄

바 없다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첫 돌이 지나면서 내게 욕심이 생겼다. 따로 사는 손윗동서들 처럼 나도 내 살림 늘려가며 살고 싶다는 생각에 골똘해서 엄마보다 할머니를 더 따르는 아이를 떼어 안고 분가를 했다. 십 년만 살고 들어가겠다던 남편과의 약속은 자꾸 미뤄졌다. 아이들이 자랄수록, 내 생활이 편해질수록 잊어버리고 싶은 약속이었던지도 모른다. 그러면서도 해마다 봄이 되면 시가의 옆에 있는 테니스장에서 아침운동을 하고 돌아오는 남편에게 라일락꽃이 피었더니 고맙곤 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해가 갈 수록 그렇게 묻는 것이 남편에게보다도 나무에게 더 미안한 감이 드는 것은 웬일일까.

올 봄, 하루는 올라갔더니 아버님이 라일락 가지를 볼품없이 잘라놓으신 거였다. 뿐만 아니라 안마당에 있던 키 큰 목련은 아예 밑둥 째 잘려지고 없었는데, 누구보다도 꽃을 좋아하시는 어른이 무슨 마음으로 식구나 다름없는 그 해묵은 나무를 베어버리셨는지 나는 차마 나무가 있던 자리를 쳐다볼 수가 없었다.

“늙은이들만 사는데 집이라도 환해야지.”

왜 그러셨느냐는 내 물음에 빼없이 하시는 말씀이었지만 나는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아홉 남매가 자란 집을 고스란히 지니고 싶어하시는, 불편을 불편으로 여기지 않는 아버님 마음을 핑계로 사람과 집이 함께 쇠잔해가는 것을 방관만 해왔기 때문이다. 이십 여 년 전 시집을 때하고 하나도 변한 게 없는 시가의 낡은 한옥은 주변에 들어선 번듯한 양옥들에 주눅이 든 듯 근래 더 낮아졌다. 그나마 대문가의 라일락이 충직한 노복처럼 퇴락을 가려주는 덕에 옛 정취를 잃지 않은 게 다행이다. 그날 배웅 나오신 어머니의 등뒤로 라일락 나무의, 어쩐지 조금 슬픈 듯한 시선을 나는 느꼈다. 그 나무

에 연연하고 그 나무에 마음을 주었던 순정한 젊은 날은 어디로 갔을까. 내 아이들이 꽃 속에서 자라고 꽃 같은 사랑을하기를 기다리던 작은 바람은 꽃향기처럼 날아가고 아이들은 아무 낭만을 모른 채 훌쩍 커버렸다. 딸아이는 이미 내 품을 떠나있고 내년이면 대학에 갈 작은아이가 뜻밖에도 마당이 있는 할머니 댁으로 들어가자는 말을 이해 해준다. 큰애하고 달리 할머니 할아버지를 서먹해 하던 아이인데 어느새 다 자랐나 보다.

이사를 결심하고 막상 살던 아파트를 정리하려니 온갖 기억들이 새롭다. 다 가져갈 수 없는 살림이라 필요한 것들만 고르자니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잘 것 없는 가구 부스러기들을 이리 옮기고 저리 치워놓으며 한사코 버리지 못하는 부모님 심정도 이러실 테지……. **瑞山文學**

피아노

예전 내 첫 피아노 선생님은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처녀였다.

남편의 임지인 한적한 소읍으로 이사를 가서 나는 여섯 살바기 딸과 함께 피아노를 배웠다. 그 때 바이엘을 거의 마쳐가던 딸아이는 새로 피아노를 시작한 엄마를 위해서 두 살 터울의 동생을 온종일 데리고 놀아주었고, 덕분에 하루 대여섯 시간씩 나는 피아노 앞에 앉아있곤 했다. 한 달만에 딸아이와 진도를 맞춰가고 금방 나는 아이를 앞질렀다.

언제나 긴 스커트를 입고 있던 피아노 선생님은 레슨보다 나하고 얘기하는 것을 더 좋아했다. 다리 때문에 학교 가는 것이 싫었다는 얘지며, 외동딸인 자기를 위해서 농사짓는 어머니가 어떻게 자신의 레슨비를 마련했는지, 배를 타고 군산까지 피아노를 배우러 다니는 동안 얼마나 어머니 속을 아프게 했는지를 얘기하곤 했다. 그러던 선생님이 시집을 간다고 했다. 신랑 될 사람이 자기보다 자기가 하는 피아노 레슨을 더 좋아하는 것 같다며 쓸쓸해하던 모습이 지금도 생각난다.

마지막 레슨이 있던 날, 아름다운 처녀 선생님이 아줌마 제자를 위해서 피아노 앞에 앉았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는 창가에서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를 연주하는 뒷모습이, 어깨를 덮는 긴 퍼머 머리의 웨이브가 물결치듯이 흔들리는 모습이, 피아노 선율만큼이나 감미롭고 애잔했다. 그러고 보니 내 앞에서 한 번도 피아노를 친 적이 없던 그녀였다. 늘상 긴 손톱에 흰 메니큐어를 바르

고 있어서 저 손으로 어떻게 건반을 누를까 궁금하곤 했다. 몸이 성치않은 딸에게 애써 피아노를 가르친 어머니 심중을 알게 되면서 피아노 치는 것이 싫었다는 말을 그날 들었다.

그 뒤로 다시 만난 선생님도 대학을 갓 졸업한 아가씨였다. 생기 발랄했던 그녀는 애인 애기를 자주 했고, 레슨을 끝내고 나면 연애했던 애기를 해달라고 붙잡곤 했다. 하루는 철없이 나이 어린 선생님과 수다를 즐기고 돌아와 보니, 작은 아이의 얼굴이 말이 아니었다. 제 누나와 장난을 하다가 눈 밑을 심하게 다친 것이었다. 하마터면 눈이 어찌되었을 지도 모를뻔 한 아이를 보자 정신이 아득해졌다. 아이에게도 미안하거니와, 당장 남편 불 걱정이 태산이었다.

그러나 아이의 상처를 걱정하면서도 남편은 피아노를 그만 두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 아이를 데리고 레슨을 받으러가면 혼자 놀다 지쳐 잠이 들기 일쑤였는데, 그때문인지 아이는 지금도 피아노 소리를 들으면 잠이 온다고 한다. 눈 밑에 남아있는 흉터처럼 내가 피아노에 몰두해 있던 시간들이 아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는 상실감으로 남은 것은 아닌지.

자신이 배운 피아노가 삶의 윤기와 여유보다는 생활을 위한 수단이 되어 버릴까봐 두려워했던 예전의 내 첫 선생님을 십 수년만에 우연히 서울 지하철 안에서 만났다. 몹시 낯익은 얼굴인데 알아보지 못하고 다리를 절면서 전동차에서 내리는 뒷모습을 보고 나서야 생각이 났다. 평범한 중년이 되어있는, 예전보다 살이 올라있는 얼굴에 불행의 그림자 같은 것은 없어 보였다.

사람마다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짐이 주어진다고,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무게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 어느 작가의 말이 생각난다. 내 몫이거니 하면 체념이 아니라 순응의 낙관이 들어선다고, 행과 불행의 차이는 오직 그 뿐이라고

한 말이 누구에게나 위안이 되는 것은 아닐테지만 그날 심상히 걸어가던 그녀의 뒷모습이 내게 아름다운 잔영을 남겼다.

체르니를 치면서 제일 먼저 샀던 악보가 “아드린느를 위한 발라드”였다. 그 악보를 펼쳐놓을 때마다 살짝 그늘이 져 있던 얼굴이 떠오르고, 그래서 공연히 애상해지던 마음의 어떤 너울 하나가 지금은 건한 기분이다.

노을이 아름다운 저녁이면 피아노 앞에 앉아보는 것이 낙이라면 낙이었는데 그 피아노가 짐이 되게 생겼다. 이사 들어갈 시가에 마땅히 피아노를 놓을만한 자리가 없다는 것이다. 다른 가구들하고 달리 마루 끝에 놓더라도 피아노만은 가져가고 싶은 게 내 마음이다.

악기 이상의 우정 같은 게 있었나 보다. 瑞山文學

마음의 율타리

문 해 옥

어디선가 낙엽 태우는 냄새가 손님맛이로 분주한 내 손놀림을 잠시 멈추게 했다.

창 밖을 내려다보니 집 바로 뒷 편에 있는 학교 운동장이었다. 플라타너스 낙엽을 모아 누군가 열심히 태우는 중이었다.

유심히 바라보니 뇌성마비 장애를 앓고 있는 청년이었다. 혹여 그가 실수라도 할까봐 조바심에 난 눈길을 뗄 수가 없었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움직이는 몸과는 다르게 그는 서툴지만 세심하게 뒷정리를 잘 해나갔다.

불씨가 완전히 꺼진 것을 확인하고 그는 준비해온 비닐 봉지에 힘겹게 재를 넣고 있었다.

몸이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잠시동안 그를 불신했던 내 마음을 혹여 그 청년이 눈치챌까봐 얼른 들어 왔다. 그때 가스불에 올려놓았던 ‘황발이’에 넣을 장물이 끓어 넘치고 있어 재빨리 가스불을 끄고 숨을 몰아쉬었다.

넌친 장물 냄새는 집안으로 스며들어 차분하게 마음을 다독거렸던 낙엽 타는 냄새를 한순간에 날려버렸다. 어찌면 며칠 후에 내려오는 남편 친구인 태경씨 가족 때문에 더욱더 그 청년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는지 몰랐다.

그들 내외가 결혼생활 7년만에 힘겹게 예쁜 공주를 출산했던 일이 엇그제처럼 느껴졌다.

고생 끝에 가진 아기라 많은 사람들이 축하해주었고, 모두들 그 부부가 아기 키우는 재미에 흠뻑 빠져 행복해 할 것이

고 또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었다. 그런데 태경씨 내외는 딸 아이 첫 돌날 친인척들에게 아이를 입양할 것이라고 말해 모두를 놀라게 했다. 더욱 놀란 이유는 그들이 입양하려고 하는 사내아이가 뇌성마비를 앓고 있는 일곱살난 장애아라는 사실이었다. 아이를 못 낳은 것도 아닌데 왜 입양을 하는지 또 더구나 친부모도 힘들어하는 장애아를 입양하는지 모두들 걱정하며 좀더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충고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라며 서둘러 아디 맞을 준비를 하겠다고 했다.

지난 주말 난 그의 아내의 들뜬 목소리의 전화를 받았다. 순조롭게 원하던 착하고 맑은 아이를 입양하게 되어 기쁘고, 일곱 살이 되도록 바다를 보지 못한 아이를 위해서 바다에 가려고 한다고 했다. 난 그 부부가 좋아하는 황발이 비빔밥을 해 놓을 테니 오라고 했다.

나로서는 생각조차 힘든 일을 해낸 그들 가족이 보고 싶었다. 그녀 또한 흔쾌히 대답을 해주었다.

사람을 좋아하는 남편 때문에 주말마다 손님이 끊이지 않아 처음에는 잠자리와 음식준비 때문에 고민스러웠지만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난 뒤 나 또한 그런 분위기를 즐길 수가 있었다.

황발이에 넣을 장물을 식히면서 다시 창 밖을 내려다보았다. 어둠이 그물처럼 내려앉은 운동장은 고즈넉했다.

장물에 넣은 황발이가 맛나게 익을 때쯤 태경씨 가족이 내려왔다. 돌날 보았던 민경이는 뽀얗게 젖살이 올라 기우뚱기우뚱 잘도 걸어 다녔다. 그 뒤로 사내아이가 수줍은 얼굴로 서 있었다. 이름이 준영이라고 했다.

아이의 상태는 걱정스러울 만큼 약해 보였고 장애정도가 심할 거라고는 생각했지만 아이를 보고 있으니 또다시 걱정

이 앞섰다. 우리 큰아이와 작은아이도 조금 놀랐는지 물끄러미 쳐다보고 있었다.

“반갑다. 준영아 우리 한번 악수하자.”

하고 남편이 말했다. 어색했던 분위기가 한결 나아지고 있었다.

힘겹게 살아온 아이가 남편의 가슴에도 다가선 것이 역력했다. 금방 아이들은 무엇인가 서로 통했는지 ‘레고’를 가지고 성을 쌓는 놀이에 여념이 없었다. 놀랍게도 준영이는 우리 아이들이 만들어 보지 못한 견고하고 멋진 성을 오랜 시간만에 완성시켰다. 그들 부부는 그런 준영이가 대견한지 무척 즐거워했다.

조금 늦은 점심으로 그릇그릇마다 새콤한 열무김치를 넣고 고사리, 콩나물, 시금치, 등을 골고루 얹어 놓은 다음 잘 익은 황발이를 손질해 참기름 몇 방울과 통깨, 마지막으로 고추장을 한 수저 듬뿍 떠서 비빈 황발이 비빔밥을 먹었다.

그들 부부가 놀러 올 때마다 잘 먹어서 별다른 반찬을 준비하지 않고 이것을 해주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며 정신없이 다 먹고 난 뒤 문득 우리는 아이들의 식탁을 바라보았다. 이제 겨우 몇 수저 뜯 준영이가 다 먹고 기다리는 우리 아이들을 보고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손을 내저으며 웃고 있었다.

“도와 줘야 되지 않겠어요?”

난 걱정이 되어 물었다.

“안돼요. 장애인일수록 후독하다고 할 정도로 자립심을 키워야 해요. 그래야 어려운 세상에서 제 목소리 내가면서 살 수 있잖아요 며칠 전보다 많이 좋아진 걸요. 저것 봐요 반은 흘리지 않고 먹잖아요”.

준영이가 흘린 음식을 비위가 유난히 약한 우리 작은아이가 치워주고 있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은 서로 도움을 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다

처음에는 태경씨 내외가 너무 심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곧 그들의 가치관이 옳다고 느껴졌다. 사람들이 우려하던 모든 부분을 그들은 몇 해를 생각하고 얻은 결론이란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걱정만 하던 내 마음이 그들한테 부끄러웠다. 그동안 난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내 것만 지키려는 이기적인 울타리를 둘러치고 세상을 바라보았다. 이제는 그런 울타리를 조금씩 허물어 가야겠다.

“아아쭘마, 맛있게 먹었어요”.

준영이는 더듬거렸지만 예의 바르게 인사를 했다.

“그래”.

난 가슴이 아파 애써 외면하고 싶은 아이의 찡뚱대는 얼굴을 바라보고 아이의 눈동자에 시선을 맞추었다.

‘아, 어떻게 된 것일까?’

아이의 맑은 눈동자 속에는 벌써 바다가 있었다.

瑞山文學

작별 그리고 아름다운 사람

성 정 회

길 비닐 표면이 다 닳은 노트 속을 들춰보고 있었다. 전화번호 같은걸 적어 놓던 것이었는데 그 전부터 버려야지 했던 물건이라 이날은 꼭 버리리라 하며 다시 한번 노트 속을 살펴보는 것이다. 그 속에 잊어서는 안될 중요한 전화번호는 없나 긴한 메모 같은 것은 없나 한 장 한 장 넘겨보다 서울 〇〇〇〇-〇〇〇〇 김은기

아- 은기씨의 서울 전화번호였다. 버려야지 했던 노트 속에 들어 있던 그의 서울 전화번호 때문에 차마 그걸 버릴 마음이 차오르지 않았다.

그래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도 한번 그 노트를 버리려다 이때처럼 그의 전화번호를 발견하고 머물러 켜던 시간이 떠올랐다. 이젠 그에게 할 말이라곤 아무 것도 남아 있지 않아 안부 전화를 걸어 보기도 그런 은기씨 그의 이야기를 할려면 아무래도 우리 막내 동생 이야기를 꺼내지 않을 수 없다.

김은기씨 이름을 우리가 처음 들었을 때가 막내 동생이 이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그로부터였기 때문이다. 스무 살 조금 넘었을 때 가버린 막내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불행한 아이였다. 딸 많은 집 막내딸이 그랬고 젖이 부족해 발육이 늦었던 것이 그랬다. 그래서였는지 그는 정상인 보다 늦은 아홉 살이 되서야 언어 소통이 가능했다. 그러나 그것보다 그는 더 큰 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타고난 천성이 보통사람들 보다 지나치게 순진했던 것이다. 큰 문제였던 그 순진한 것을 큰

병 큰 장애로 업고 살은 그의 생은 지극히 척박했다. 여느 집 이라면 쉽게 사랑을 독차지 할 존재인 막내딸 그러나 막내의 시간들은 부모와 적지 않은 형제간에 둘러 쌓여 있어도 시려운 순간 순간들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순진하게 살아서 무엇 하니? 상대가 너를 미워하면 너도 같이 미워해야 되는거야 때리면 같이 때리고 사랑하면 같이 사랑하고…….

우린 그가 연약해서 생긴 일들에 속이 상해 그보다는 키 큰 체하며 알량한 이 세상의 원리를 가르쳐 줬다. 하지만 그는 잘 알아듣는 듯 하다가 슬그머니 놓아 버리곤 했다. 그리고 그 아이 속에 들어가면 생명을 지탱할 수 없었던 악. 악도 때때로 삶에 가미되는 요소이건만 그는 악이란 언제나 자기 안에서 빠져나가도록 자루 끝을 묶지 않고 풀어놓고 있었다.

그렇게 미약하기 그지없는 막내 일로 우린 자주 지치기 시작했다.

꼭 그를 미워해서 만은 아니었으나 결코 사랑해서였다고 말 할 수 없는 원망과 짜증 푸념의 시간이 이어졌다.

그래도 그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담임이나 같은 반 아이들로부터 “그 앤 너무 착해서 그렇지 괜찮은 아이예요.” 라는 말을 자주 듣던 그였지만 막내는 성한 두 눈을 멀쩡이 뜨고도 “아무 것도 보이지 않아. 아무 것도 볼 수가 없어…….” 하며 시각 장애까지 일으킬 만큼 힘든 시간 시간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지나던 시간들이 힘들고 아팠던 그가 스무 살 때 한 교회에 부흥회에 참석했다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받고 복사꽃처럼 피어났다. 성경에도 기록된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여 뜨겁게 기도하던 성도들이 받게된 방언의 능력, 치료의 능력, 예언의 능력을 하나님께 받았던 것이다.

부흥회 행사중 한 교회 성도 모두를 놀라게 만든 성령체험인 그 기적 같은 큰 은혜를 받은 후 정말 그가 아픈 환자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그 병자가 차도를 보이고 이따금 기도 중 예수님을 직접 만나 받았다는 기도 응답 이야기도 신기하게 들을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면서도 부족하다는 표현을 쓰지 않을 수 없던 막내는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회와 기도원을 오가면서 한동안 서울에서 지냈다. 그때 서울 한 교회에서 그가 만났던 은기씨였던 것이다. 무렵 대학에 복학해 재학 중이던 은기씨는 같은 교회의 교우가 된 막내를 착한 아가씨라며 무척 잘해주었던 모양이다. 의외로 막내의 서울 생활은 여러 가지로 좋았던 이야기가 많았다.

은기씨가 혈연처럼 잘해주었고 눈감으면 코 베간다는 똑똑한 서울 사람들이 그의 순진함 천진함을 천사처럼 느끼며 사랑해주었다는 것이다. 그가 자주 이용하던 정릉 구간을 운행하던 버스기사 한 분은 “안녕 하세요”하고 인사 잘하는 막내에겐 우리 착한 아가씨라며 버스 요금을 받지 않았단다.

그만 그만한 것들이 막내에겐 그만 그만큼 행복했을 무렵 그를 찾아온 건 몸쓸 병마였다.

그게 단 순간이었는지 잠복 중이던 병마가 그를 얹잡아 보았는지 병마에 얹혀들던 그가 사그러 들기 시작했다. 결핵증 중 이상인 병이 깊어져서 결의 사람들도 그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게 됐다. 떠나야 할 때가 다 돼서야 우린 그를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음을 가슴 아파했다. 그러나 어찌랴 우매한 인간들 사랑 없는 인간들이 흔히 이루어내는 마른 몸짓들이 바로 그런 것들임에…….

후회하기엔 우린 너무 멀리 와버렸던 것이다. 막내는 자신이 어려서 말을 늦게 배워 겪었던 일들이 한이 되었는지 힘겨운 상태에서도 여러 가지 말들을 많이 했다. 상대방이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또박또박 의사표시를 잘하던 그가 서울

○○교회서 자신에게 잘해주었던 은기씨라고 있었는데 그가 보고 싶다는 말을 자꾸 했다. 그래서 막내가 일러준 은기씨의 전화번호였던 것이다. 하지만 선뜻 은기씨한테 전화를 걸 수도 없는 일이었다. 막내가 보고 싶다는 은기씨는 학생이었고 엄연한 총각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은기씨가 보고 싶다는 막내는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될 사람이 아닌가.

그 상황에 우리는 은기씨에게 전화를 걸어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할지 몰랐다. 또 은기씨가 그 전화를 어떻게 생각할지 알 수 없는 일이었다. 그러나 은기씨를 만나고 싶은 것은 막내가 살아있는 시간의 마지막 소원인지도 모르는 것을…….

우린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다.

서울 은기씨와 조심스레 통화를 이루던 우리는 은연중 그의 현재 상황을 살폈다. 아르바이트, 레포트 작성, 그리고…….

막내가 한번 보고 싶다는 그 은기씨가 그쯤 정신없이 바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모저모 염치를 살필 처지가 아니었다.

서울에서 막내가 입원해 있던 대전 성모병원까지 거리로 보나 은기씨의 바쁜 시간으로 보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가 우리의 사정을 저버린다 해도 어찌 할 수 없는 상황에 모든 것을 남김없이 은기씨에게 다 말해버렸다. 절실할 수밖에 없는 사정 앞에서 그렇게 바쁘다던 은기씨가 “아무리 바빠도 경희가 그런 상황이라면 가야지요, 가야지요, 가야지요” 답했을 때는 그만 울컥 목이 메고 말았다.

단 한번의 주저도 없이 “아무리 바빠도 경희가 그건 상황이라면 가야지요, 가야지요…….” 답했던 은기씨는 통화를 끝내고 바로 대전으로 달려왔다. 그리고 깊은 병 속에 누워 있던 막내에게 한 아름 꽃다발을 안겨줬다. 수줍음을 잘 타고 소탈한 모습이던 은기씨 그 모습 그대로 막내 앞에서 한 이

십분 앉았다 돌아가는 우리들 가슴을 차오르게 할 은기씨가 한가지 제의를 해왔다. 그날 밤만이라도 자기가 혼자 막내를 간호하고 싶다고 간청하니 안될 말이었다. 절대 안될 말이라고 허락치 않는 가족들을 은기씨는 달래고 달래 집으로 돌아가게 했다. 그날 밤 내내 은기씨는 눈 한번 붙이지 않고 막내의 말벗이 되어주고 그를 살피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 흔적을 거두울 막내 그 일없는 우리 막내를 위해 먼길을 달려온 은기씨의 무구했던 사랑. 그제껏 우린 이만한 사랑을 만나보기 힘들었다.

그후 몇 날이 지나고 예정처럼 결국 막내는 서두르며 그 가을날 저녁 속으로 그렇게 떠나버렸다. 그리고 덧없는 시간은 하염없이 아득하게 흘러갔다. 끝나지 않은 이 아득한 먼길을 스쳐 걸으며 문득 사랑이란 어떤 모습인가 생각하며 머뭇거릴 때 떠오르던 지나간 시간이었다.

‘그래, 그때가 가을 이때쯤이었지’ 혼자 말하며 시간의 담벽 밑에서 돌아가는 것을 잊어버린 가을 바람처럼 마냥 서성거리고 있다. 瑞山文學

전교생 ‘꽃동네’ 체험 I

송 국 범

‘**얻**’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그것은 주님의 은총입니다’

얻어먹을 힘조차 없는 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산 기슭 움막에 보호해 놓고 얻어 먹여 살리는 최귀동 할아버지와 의 만남을 통하여 일생을 바치고자 오웁진 신부가 시작한 꽃동네(1976. 9. 12)로 전교생 175명중 신체가 허약하거나 병중에 있는 학생 4명을 제외한 171명과 교생을 포함하여 19명의 전 선생님이 교육의 장소를 꽃동네(5.17-19)로 옮겼다

우리 학교는 오랫동안 전통적으로 이어져오는 특색 교육이 여러 가지가 있다.

25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무감독 시험’ 20여 년 간 굳건하게 지켜온 ‘주인 없는 상점’ ‘꿈. 사랑 공동체의 날 운영’, ‘열린 토론’, ‘무연 고요지 별초’ ‘자주의 날’ 등등등.....

그 중에서 1982년부터 매년 실시해 온 ‘창학이념 수련회’가 있다. 우리 학교 창학정신이 기독교 정신이기 때문에 그 정신을 체험을 통하여 구현해 보고자 해서 시작한 운동이다.

기독교 정신이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다. 바로 이 사랑을 깊이 있게 깨닫고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으로 일깨우고자 시작한 이 수련회가 18여년의 역사를 가지고 해마다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처음엔 한 학년씩 하다 5년 전부터는 전교생을 대상으로 매년 실시 운영되어 왔고 이번에 택한 곳이 꽃동네이다.

꽃동네에 도착하여 원장 신부님과, 담당 수녀님의 안내를 받고 구체적인 일정협의를 가졌다. '전 교생과 전 선생님이 2박 3일 일정으로 오신 것은 처음입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저희들은 감동했습니다. 2박3일의 경비(차비포함 4만 9천 500원)가 결코 작은 것이 아닌데 시골학교에서 이런 큰 결단을 내려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신부님과 수녀님의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더욱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입은 조끼에 새겨진 사랑합니다가 우리들 인사입니다. 자 한번 해보세요? 사랑합니다' 수녀님의 이 말씀으로 꽃동네 체험이 시작이 되었다.

우리 창학정신 이념구현의 궁극적인 목적 아니, 인간 세상의 가장 중요한 실현의 목적, 교육의 근본 목적이 더불어 사는 사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일어나는 학생문제, 청소년문제, 집단따돌림 현상, 반목과 질시와 질투와 이기적 현상, 이 모든 문제는 근본적으로 사랑의 결핍에서 나온 현상이 아닌가? 오늘 처음 시작하는 '사랑합니다'의 인사처럼 진정 사랑의 마음이 학생들 가슴에 샘물처럼 솟아 '꿈. 사랑학교가 되는 것이 우리학교의 바람이 아니었던가?

강당에 모여 식이 시작되었다. 비디오를 통하여 꽃동네가 소개되고 이어서 원장 신부님의 환영사가 있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꽃동네에 맡겨진 의지할 곳 없는 꽃동네 가족이 3천 5백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꽃동네 가족이 점차 늘어나는 것은 그만큼 사랑이 점점 식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행복한 삶이 무엇입니까? 만족한 삶입니다.

사람의 욕구는 세 가지의 큰 욕구가 있는데 첫째가 소유의 욕구, 둘째. 지배욕구. 셋째. 사랑의 욕구가 있습니다. 사랑의 욕구가 용솟음 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욕구가 온 인류에게 퍼져 강물처럼 흐를 때 온 세상은 살기 좋은 꽃동네가 될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꿈꾸며 오늘도 내일도 우리들은 사랑을 전파하고 실천하는 운동을 펼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정신을 배우고 실천코자 여기에 온 훌륭한 학생들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 동안 우리교육은 말로는 사랑 운운해 왔지만 실제로는 지식중심 교육, 성적위주의 교육, 출세위주의 교육,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소수의 성공자와 다수의 실패자를 양성해 왔다.

그로 인해 소외 받고, 인정받지 못한 대다수 학생들의 갈등과 열등감, 소외감으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을 뿐 아니라 인간이 먼저 되기를 가르친 것이 아니라 공부 잘하는 사람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았던 우리교육이 낳은 수많은 부작용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고 그런 부작용의 결과가 이곳에도 나타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본다. 버려진 사람이 모여 사는 꽃동네 가족이 점점 증가하는 것도 바로 그런 것이 아닌가?

‘저희 지향하는 우리의 소망은, 한 사람도 이 세상에서 버려지는 사람이 없는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느님 같이 우리름을 받는 세상,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세상이 우리가 기대하는 꽃동네의 꿈입니다. 그 동안 우리 나라 국민 가운데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어 길가에서 다리 밑에서 말없이 죽어 가는 사람들을 하느님께서는 어여뻐 여기 서서 그들에게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나에게 해주는 것이라는 간절한 소망의 말씀이 있기에 그 말씀 따라서 저희 한 생애가 주님 성령의 도구로 생애를 바치다보니 오늘의 꽃동네가 되었습니다.

무수한 사람들이 지금도 길거리에 버려지고 있습니다. 부모가 버려지고 자녀가 버려지고 사랑했던 남편과 아내가 버려집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들의 사랑이 부족한데서 생기는 슬픈, 하나의 재앙입니다. 이런 쓸쓸한 슬픔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우리 인간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사랑으로 산다는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온 국민에게 사랑을 배워주고 가르쳐 주고 체험시키고자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 교육장을 만들었습니다. 행복한 개인, 가정, 국가, 인류가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오웅진 신부님의 이 말씀은 인류가 가진 다 같은 소망인지도 모른다. 이 소망을 갖고 태어난 우리 인간이 왜 이처럼 잔악해졌는가? 그것은 사랑의 부족 때문일 것이다. 그 사랑의 부족은 어디서 생겨났을까?

어른들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학교에서, 국가에서 잘못했기 때문이라. 아직도 때묻지 않은 학생들만이라도 사랑이 무엇인지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곳에서 깨닫고 가기를 소망하며 내일 아침 06:00-11:30분까지 봉사할 곳이 안내되기 시작했다. 장애인들이 모여 사는 '환희의 집' 버려진 노인들이 살고 있는 '애덕의 집' 병들어 버려진 '인곡 자애병원' 알코올중독자들의 '사랑의 집' 버려진 아기들의 '천사의 집' 심신장애인 요양원, 꽃동네 가족들의 작품전시장 등등..

마음이 한없이 무거웠다. 무거운 짐을 벗는 방법을 깨우치고 가리라 다짐하며 '의지할 곳 없고 얻어먹을 수 있는 힘조차 없는, 사람들이 생기는 원인은 빵의 결핍이기보다 사랑의 결핍에서 생기는 재앙의 결과'라는 오웅진 신부의 말씀을 되새기며 뒤척이는 밤으로 하루 일과를 마쳤다. 瑞山文學

전교생 ‘꽃동네’체험 II

‘나’는 행복합니다

아무 것도 가진 것 없고
아무 것도 아는 것 없고
건강조차 없는 작은 몸이지만
나는 행복합니다

세상에서 지을 수 있는 죄악
피해 갈 수 있도록 이 몸 묶어 주시고
외롭지 않도록 당신 느낌 주시니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세 가지 남은 것은
천상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그래도 소담스레
웃을 수 있는 여유는
그런 사랑에 쓰여진 때문입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 시는 전신불수로 19년째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손끝 하나 움직이지 못해 밥도 남이 떠 먹여 주어야만 하는, 대 소 변도 가릴 수 없어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에 의해서만 부끄러움을 감출 수 있는 아무 것도 볼 수조차 없는 배영희(엘리사벳)씨의 삶을 노래한 시다.

필자는 어제 만난 배영희씨의 그 밝고 깨끗한 미소 띤 얼굴을 떠올리며 새벽부터 일어나 봉사활동(06:00-11:30)장소로 이동했다. 봉사할 장소는 3-2반 여학생 15명과 더불어 환자들을 돌보는 인곡자에 병원이었다. 대부분이 중증환자였고 시한부 삶을 사는 사람들도 많았다. ‘선생님, 이 환자 관장을 했는데 향문을 10분 동안 막고 있으세요. 꼭 막고 있어야 됩니다’ ‘선생님, 이 환자를 목욕탕에서 씻겨주세요’ ‘선생님, 이 거저귀하고 옷 좀 세탁장소에 넣어주세요’

‘학생 이리와 여기 환자 밥좀 먹여드려’ 끝없는 주문에 한 동안 정신이 없었다. 조금씩 여유를 찾으면서 청소를 하고, 팔 다리, 어깨를 주무르고, 얼굴과 손발을 씻겨드리고, 대 소 변을 갖다 버리고……. ‘선생님, 빨리 오세요 큰일 났어요 피를 막 흘려요’ 학생들은 놀래고 나도 어찌할 바를 몰랐다. 솔직한 심정으로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싶었다.

필자는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의 상처 하나 치료해주지 못하는 겁쟁이였고 다른 것은 다 해도 병원에서는 일 못할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해왔는데 공교롭게도 병원으로 배치되었으니 그 어려움이야 얼마나 했겠는가? 명색이 학생들을 인솔해간 학교장이 내색은 못하고 학생들을 열심히 격려하였다. 놀라운 것은 우리학생들의 봉사 태도였다. 한 사람도 쩡그람이 없이 환자들을 친절하게 돌보면서 얘기도 하고 씻겨주고, 몸을 일으켜드리고, 먹여드리고 장난도 쳐주고 열심히 돌보

는 모습에서 얼마나 호뭇했는지 모른다.

봉사활동은 몇 시간 이상해야 되고, 이웃사랑을 몇 백 번 애기한들 이러한 체험만 하라? 한 번의 체험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들은 가슴속에 무수한 상념을 그리면서 진정한 의미의 봉사의 의미를 깨달을 텐데……. 건강하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가를 깨달을텐데…….

필자는 여러 곳으로 나뉘어 봉사하고 있는 우리 학생들의 모습을 보기 위해서 10시쯤 병원에서 나왔다. 가는 곳마다 선생님과 학생들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봉사하고 있었다. 참으로 아름다운 모습이였다. 그곳에는 선생님도 학생도 아닌 오직 소외 받고, 의지할 곳 없고 병들고 버려진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똑같은 아름다운 봉사자가 있을 뿐이였다. 시키지 않아도 무엇을 해야 할까 찾아서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만 존재하는 그런 시간이였다.

교육이 무엇인가?

고귀한 사랑을 배우고, 그래서 더불어 사는 인간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사람으로 일깨우고자 하는 것이 아닌가?

교육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됨을 제일 강조해야 되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져 각종 청소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게 되었음을 명심해야 되리라.

인간 사회에서 제일 중요한 덕목이 무엇인가?

사랑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고, 시기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어 냅니다' 2박3일 일정으로 교육의 장소를 꽃동네로 옮긴 이유도 바로 이 사랑의 정신을 체득하고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자는 우리학교 정신을 배우자고 한 뜻이다.

점심은 너무나도 맛있었다. 고통받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

해서 자그마한 일을 했다는 그 뿌듯함인가? 점심밥은 너무 맛있었고 소중했다. ‘얼어 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 이라 했는데 우리는 얼마나 축복 받은 사람들인가?

빗줄기가 제법 세차다. 교관 선생님들과 학생들은 산악훈련에 들어가고 우리 선생님들은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

산악훈련을 무사히 마치고 비와 땀에 흠뻑 젖어 들어오는 우리학생들을 맞이하며 저 곳곳한 젊은 기상들이 21세기를 이끌어갈 인재라 생각하니 더없이 사랑스럽고 귀여웠다. 조용하던 방에서는 금방 왁자지껄하며 웃고, 떠들고, 장난치는 천진한 모습을 보면서 부럽기까지 했다.

비오는 관계로 캠프화이어 대신 레크레이션과 장기자랑으로 1만 명이 수용될 수 있는 대 강당에서 평택중학교 3학년 학생 500여명과 함께 젊음을 마음껏 발산했다. 모두가 하나 되는 젊음의 잔치였다.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이 되었다. 시한부 삶을 살면서 남을 위한 봉사의 삶으로 매일 매일 기쁘게 사는 연극배우 이주실의 모노 드라마를 보는 것을 끝으로 각 조별로 소감을 발표하고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우리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무엇을 느끼고 무엇을 배우고 가는 가는 지금 당장 확인할 수 없는 일이며 그럴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 꽃동네 체험이 언제 어느 때 그들 마음 속에 살아나 평생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사람도 생길 수 있을지 모른다. 표현되고 금방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들 마음 속에 ‘사랑’이란 두 글자가 깊이 새겨져 그 사랑을 실천코자 애쓰는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이 또한 꽃동네 체험이 준 교훈 일깨다.

퇴소식 시간이다.

‘먼저 우리들에게 사랑을 일깨울 수 있도록 해준 의지할

곳 없고 얻어 먹을 힘조차 없는 꽃동네 가족에게 감사드립니다. 또한 좋은 프로그램으로 교육을 해준 신부님, 수녀님, 지도해 주신 선생님, 꽃동네 가족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사랑을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이웃을 배려하는 삶을 살 고자 다짐하며 떠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사랑합니다, 인사를 끝으로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꽃동네 정신을 가득 신고서……. **瑞山文學**

작은 학교가 아름다운 이유

그 동안 우리교육의 모순 점은 한 둘이 아니지만 대규모 학교의 문제점은 상당하다. 과밀학급에다 대규모 학급과 학생이 존재하는 도시 중심의 거대학교의 문제점은 하나 둘이 아니다.

이런 거대학교에서는 입시를 전제로 하여 획일화된 틀에다 묶어놓고 필사적으로 경쟁심리를 부추겨 대학에 들어가게 하는 데는 일시적으로 효과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양성과 창의성, 더불어 사는 공동체 정신을 기르는데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얼마나 우수한 두뇌들이 잘못된 우리 교육환경과 제도와 교육방법 때문에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사장되어 개인과 국가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는가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이다.

가끔 학생들의 글을 심사할 때 느끼는 안타까움은 감수성이 풍부하고 사고가 자유로워 얽매이지 않는 그들의 상상력에 엄청난 기대를 걸었는데 의외로 메마른 감정과 사고의 획일화, 때론 산문을 논술을 쓰듯 전개하는 규격화된 내용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길 없었다. 이런 현상은 고등학교로 가면서 더욱 두드러졌고 소위 말하는 명문학교 학생들이 사고의 틀이 더 고정되어 있음을 발견한다. 우리교육 현실이 빚어낸 희생물이라 생각하며 서글픔을 느낀다.

누군가 말했던가?

다른 것은 다 못하고 수학적인 머리만 특출했던 아인슈타

인이 우리 나라에서 태어났다면 그는 분명 대학 문턱에도 못하고 이 사회의 낙오자로 전락하고 말았을 것이라고,

에디슨이 이 땅에 태어났다면 어떠했을까?

호킹박사는……? 왕따 당하지 않았을까?

21세기는 무한경쟁 시대다. 국가와 이념을 초월한 치열한 세계경쟁 시대다. 지식의 창출 능력에 의해서 성패가 좌우되는 냉엄한 세계가 펼쳐진다. 이런 미래에 살아갈 우리 청소년들을 획일화된 틀에다 묶어놓고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대학 입시의 합격률을 높이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부추겨온 우리 교육은 20세기로 빨리 막을 내려야 한다.

교육비전 2002년은 이런 모순 점을 해결하기 위한 몸부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이 성공하기 위해선 다음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어렵다고 보며 선진국하고의 경쟁에서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다.

첫째, 학급당 학생 수를 25명 내로 줄여야 하며 전교생 학생 수가 500여명을 넘지 않는 학교가 주류를 이루도록 해야 한다.

둘째, 의식이 변해야 한다. 교육부, 교육청, 학교, 학부모, 국민이 도시위주의 출세위주의 입시위주의 점수위주의 사고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

셋째, 형식주의로부터 탈피해야 한다. 그 동안 우리교육을 부실하게 하여온 큰 주범 형식이 너무 크게 지배해왔다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만 잘 써내면, 지정수업 연구만 잘하면, 교육계획서만 미끈하게 잘 만들어 내면, 겉으로 드러나는 외형적인 것만 잘 다듬어 놓으면, 학생을 희생시켜서라도 결과만 잘 나오도록 하면, 심지어 거짓 꾸며서라도 서류만 잘 만들어 놓으면 교육이 잘된 것이라 평가 받았던 부끄러운 우리교육의 실상에서 과감하게 벗어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기대하는

21세기의 유능한 인재를 양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현재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 문제는 보다 신중을 기해야 하며 경제성과, 효율성의 논리 이전에 교육적으로, 농. 어촌의 장기적인 발전구상과 지역의 특수성 문제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함이 마땅하다.

농. 어촌의 소규모학교가 갖는 장점은 무수히 많다. 학급당 학생수가 20-30여명으로 교사와 학생간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다.

개별화된 학습자 중심의 열린교육이 가능하고 자기 주도적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다. 학생의 모든 특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 학생 하나 하나에 맞는 상담과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가족적으로 오순도순 얘기하듯 교육이 이루어지며 체육대회 하나를 하더라도 모든 학생이 종목마다 다 참여하는 적극적인 활동이 가능하다. 주변환경이 너무 아름다워 그 영향을 받아 심성이 바르고 착하며 맑고 깨끗하다.

학부모, 지역사회, 학교가 하나되는 모두가 주체로 참여하는 공동체 행사가 가능하여 더불어 사는 삶의 지혜를 배운다.

이밖에도 도서실이 여유가 있고, 과학실의 실험이, 컴퓨터실에서의 활동이 자유로우며 여유 교실이 많아 어학실, 수학실, 사회실, 다목적실 등등 교과 교실과 학생들의 회의 공간도 확보되는 등 학생들의 활동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는 다양한 자기개발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우리교육의 틀을 바꾼 수행평가도 소규모학교에서는 바람직한 방향으로 적극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데 대규모학교에서는 이것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형식

적으로 흐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다. 이것이 실패하면 우리 교육은 다시 옛날로 후퇴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다양성을 추구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창의적인 능력과 종합적인 능력은 또다시 말살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제도권교육, 특히 대도시 과대학교가 빚어낸 교육의 파행성에 큰 실망을 안고 대안교육을 하는 자유학교를 필자는 옛날부터 여러 곳을 방문하고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

20여 년 전부터 틈이 나면 방문하는 풀무농업기술 고등학교, 거창고등학교와 한 울타리에 있는 같은 재단의 셋별 중학교, 경남 산청 산자락에 자리잡은 간디청소년학교, 교수직을 버리고 변산 반도 한 언저리에 공동체 실험학교를 연 윤구병 교수가 시작한 학교 등등.....

교육개발원에서도 우리 나라에서 교육을 가장 교육답게 하는 학교로 풀무농업고등 기술학교를 선정했다 하지 않는가? 40여 년이 넘도록 한 학년 25명에 전교생 75명을 교수하고 있는 이 소규모학교가 이제서야 양지로 인정받을 수 있었으니 그나마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 하나?

우리의 미래가 밝고 찬란하게 빛나려면 농. 어촌의 소규모 학교에서 자연과 심호흡을 하며 자연생명과 인간생명을 사랑하는 방법을 터득하고 마음껏 뛰놀며 꿈과 이상의 나라를 펼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가능한 한 소규모학교를 살리는 노력을 기울일 때이다. 왜냐하면 치열한 경쟁과 삭막하기 이를 데 없는 도심의 열악한 환경에서 벗어나 나 자신이 주체가 되는 삶을 배우는 농. 어촌의 소규모 학교는 우리 미래의 빛이요 희망이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다. 또한 그곳은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성과 자발성, 다양성, 바른 인성을 가꾸는데 더 없이 좋은 여건이 갖추어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瑞山文學**

옥녀정 물방아

신 득 균

정상 178m. 산이라는 장엄한 명칭보다는 어린 시절 무시로 올랐던 마을 뒷산 같은 동산이다. 서산 시내를 북서 방향으로 보듬어 안고 흑한 높새를 막아주는 모습은 천상 어머니의 품이다. 편안함 때문일까? 이른 새벽부터 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이 오르고 내린다. 마침 우리가 집을 정한 곳이 이곳과 가까운 곳이기에 이 4년여 매일 새벽 거르지 않고 만나는 지우지기(知友知己)가 된 산이다.

정상에는 8각정 부춘루가 있고 그곳에서 시가의 남서방향으로 300여 걸음 떨어진 8부 능선쯤 아래에 옥녀정이라는 작은 샘이 하나 있다. 하늘에 올라 이곳 수호신이 되었다는 전설 속 옥녀네가 마셨던 샘인지도 모르겠다. 웅달샘이다. 큰 노루 몇 마리쯤 양껏 배라도 채우면 금방 바닥 드러내 보일 정도의 토끼샘이다.

그곳에 물방아가 놓인 것이다. 누가 만들어 놓았는지, 언제부터인지도 정확치 않다. 작년 여름 하나로 시작된 물방아는 두세 자를 간격으로 둘, 셋……. 이제는 십여 개에 달한다. 산행 길 걸음을 멈추고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참으로 재미가 있다. 어느 놈은 탁-. 탁-. 탁-……. 어느 녀석은 툭-. 툭-. 툭-……. 그런가 하면 툭-. 툭-. 툭-……. 숲 속 저만치서 들으면 낙수(落水) 지어내는 듯 애잔하게 들리기도 하고, 초야(初夜) 노송에 몸 기대어 들어보면 외딴 암자 수도승의 예불소리인듯도하다.

참으로 신기하다. 물을 담은 용기의 양에 따라, 공이 밑에

깔아 놓은 받침대의 질감에 따라 소리도 각각이다.

누구일까? 어째서일까? 만든 품새로 보아 어떤 전문적 기술이 있는 사람에게 붙는 공(工)의 칭호를 받을 만한 사람이거나, 어떤 일에 숙달되거나 전문적인 사람에게 붙는 사(師)의 작위에 해당하는 장인은 전혀 아닌 듯하다. 녀석들 중 한들 정도에는 제법한 물레를 달아 주어 진짜 물레방아를 만들어 놓을 법도 하련만, 거기까지는 솜씨가 미치지 못했던가 보다. 그냥 단순히 평형의 원리를 이용한 정도이다. 용기에 물이 가득 채워지면 평형이 용기 쪽으로 기울며 받침대를 디디고 있던 공이가 순간 들려 올라가는 것이다. 그러면 용기에 담겨져 있던 물은 쏟아져 내리고 공이가 받침대를 찰는다. 그 순간 바닥에 받쳐 놓은 쇠붙이의 질감에 따라 부딪는 소리가 나는 것이다.

이것이 옥녀정 물방아의 전부이다. 물을 담은 용기도 제각기이다. 구하기가 어려웠는지, 어느 것은 가정에서 쓰다버린 듯한 플라스틱 바가지를 사용하기도 했고, 어느 것은 낡은 알루미늄 국그릇을 사용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받침대로 깔아 놓은 디딤대도 각양각색이다. 낡은 함석 조각을 사용한 것이 있는가 하면, 어느 것은 폐차장에서 구해 온 듯 변형조차시키지 않은 녹슨 쇠붙이를 그대로 받쳐 놓기도 했다. 그러니 물방아마다 만듦새는 물론 공이를 찰 모습도, 거기에서 부딪쳐 나오는 방아 소리도 탁. 탁. 툭. 툭. 툭, 툭……. 다를 수밖에.

그러나 이 못난이 물방아는 참으로 이상한 마력을 가졌나 보다. 갈수록 나를 끄는 것이다. 처음 며칠은 그저 신기하고 재미있을 뿐이었다. 그러면서도 번듯한 재료 하나 제대로 사용하지 못해 좀 구차해 보이는 모습이 다소는 안타깝게 느껴진 정도였다. 그러던 것이 끝내는 나의 산책 코스 자체를 바

꾸어 놓고 만 것이다. 하기사 산세랄 것도 없는 등산이고 보니, 달리 산책 코스가 많은 것도 아니요, 하산의 방향에 신중한 선택을 요하는 코스도 없다. 굳이 변명을 더한다면 출근 시간을 대야 하는 나로서는 어쨌든 등정과 하산 시 주로 농선을 택해 왔다.

그러나 못난이를 만난 이래 나의 등하산의 코스는 옥녀정 경유로 고정되어 있었고, 이제는 코스뿐만이 아니라 산행 시간마저 이른 새벽으로 앞당겨 놓고 말았다. ‘잠시의 호기심과 연민이 열애로 바뀌었다’ 고나할까? 이런저런 물방아에 대한 안위의 궁금증은 기어이 기상 시간마저 앞당겨 가며 사랑의 열병으로 몸을 달구게 하는 것이다.

나도 이제 지천명, 아무리 미혹에 약한들 연민만으로 열병의 몸살을 앓겠는가? 내가 이리도 못난이 물방아를 찾는 데에는 연민 이상의 경외가 있기 때문이다. 열두 개의 물방아 중 고장으로 멈추어 선 한 두 녀석을 제외하고는 그 지어내는 모습들이 어찌면 그리도 같은지? 용기의 크고 작음에 따라 채워진 물의 양이 다소 다르고, 그로 인해 비우는 시간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그 어느 것도 용기 이상을 채우려 욕심을 부리는 법이 없다. 채워지면 공이 한번 들어올려 방아 한번 철커덩 쪼고, 쪼으면 다시 물이 채워지기를 기다린다.

공이가 크다고 우쭐대지도 용기가 작다고 투정을 부리지도 않는다. 공이가 작으면 대수이고 용기가 큰들 어찌하단 말인가? 그저 자신의 용기를 채우기 위하여 기다리고 채워지면 방아 한번 쪼는 것으로 미련 없이 내려와선 다음에 오는 이를 위해 기꺼이 자리를 비워 준다. 누구의 미덕을 배운 것일까? 참으로 죽한 줄을 안다.

아! 인간사 이런 것이 아니던가? 성함이 있으면 쇠함 또한 당연한 것이고, 오르면 내려와야 하고, 생 또한 물을 전제로

하는 것……. 그리고 앞서 간 이들이 나에게 그루터기를 물려 주었듯 나 또한 다음 세대를 위해 물려줄 또한 이치이다.

자족의 경지에 이르면 중생도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했던가? 그렇다면 이 또한 성불이라 일러 부족함이 있을까? 그윽히 눈감아 들어보노라면 공이질 소리 저 너머 시공 속으로, 못 사람들의 모습이 다가오는 듯하다. 성현군자의 모습이 있는가 하면 필부의 모습조차 말이다.

생각해 보면 성현과 필부가 따로이 있을 수 있겠는가? 현인들이 이 못난이 물방아의 이치를 마음으로 느꼈다면, 무릇 중생들은 그릇 비움의 이치를 간파했던 것일 것이다. 탁 탁 탁 툭 툭 툭 툭……. 어둠이 채 멍멍한 새벽 들려 오는 저 공이질 소리는 무슨 들려옴일까? 무생(無生)의 금속성 부딪는 소리만은 아닌 듯 싶다.

어찌 들으면 성불의 해탈 소리요, 어찌 들으면 피안(彼岸)조차 못 드는 슬픈 영혼 고해의 성사인 듯 하다. 그것이 누구의 음성으로 들려오든 나에게겐 모두가 일깨움의 소리요, 깨우침의 소리다.

탁 탁 탁 툭 툭 툭 툭 툭……. 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인간이기에, 마음 뿐 일깨움의 소리로, 깨우침의 소리로 들리기엔 너무 일상의 물방아 소리로 익숙해져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옥녀봉 물방아는 오늘도 아쉬움의 삶을 살아갈 이 우인(愚人)이 안타까운지 자기 걸 떨어져 가는 중생을 향해 구원의 소리인 듯 일깨움의 소리인 듯 툭 툭 툭……. 그 특유의 질박한 공이질을 보내 온다.

잠시 걸음을 멈추고 뒤돌아본다. 내 자신 그릇의 용량을 익히 알고 있기, 굳이 큰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인간에게는 귀로 들을 수 있는 한계의 소리가 있다고 한다. 그렇듯 내 어찌 순리의 한계 이상을 바라겠는가? 성불(成佛)한 큰스님의

목탁 소리까지는 감히 원하지도 않는다. 다만 범인으로 가져 볼 수 있는 작은 소망으로 족하다. 욕된 하루는 되지 말자고, 남에게 눈흘기는 하루는 되지 말자고 다짐을 해 보지만 이 작은 바람마저도 지켜지려는지 선뜻 대답이 나오질 않는다.

이제 잠시 산을 내려가고 저 물방아 소리가 미치지 못하는 세상에 닿아지면 여기서 가졌던 깨달음의 생각도 잠시. 나는 또 얼마나 많은 군중 속을 오가며 허기를 느끼고, 완속(緩速)의 조바심으로 앞지르기를 하며, 이 작은 키를 발돋움을 하고, 때론 기웃거리며, 눈흘기고, 호주머니 속 동전(銅錢)있들을 만지작거릴까?

나 언제에 이르러 저 옥녀봉 물방아 소리를 귀 아닌 마음의 소리로, 가슴의 소리로 들을 수 있을까?

나 얼마나 많은 세월을 지낸 후에야 저 비우는 용기(容器) 속에 내 마음을 담을 수 있을까?

탁 탁 탁 툭 툭 툭 툭 툭 툭.....

뒤돌아보아도, 뒤돌아보아도

저기 저 대로인데.....

저 소리, 나를 불러 세우는 소리이런가? 왜 이리도 걸음마다 밟히울까?

이 아침 산책인(散策人)은 차마 시린 가슴을 달랜다.

瑞山文學

끝내 못한 V표의 죄책감

우리는 승리를 기원하거나,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또는 군중의 호응을 유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승리의 약자인 V표를 그려 보인다.

특히 선거철을 맞아 각 후보들이 그 특유의 사자후를 토해내며 그것도 손가락 정도가 아닌 두 팔을 하늘 힘껏 들어 올리는 V표의 제스추어를 보고 있노라면 그 용기와 열정에 나도 모르게 매료되고 만다.

V표! 다른 사람에겐 용기와 격려를, 본인에겐 자신감을 갖게 하는 엄청난 힘의 매력적인 언어이다. 그래서일까? 요즈음엔 동리 이장은 물론, 시골 초등학교 아이들 분단장 선거에 서조차도 V표가 등장하고, 배우의 아내들도 예전의 손을 흔들던 모습 대신 출근 길 남편을 향해 V표를 그려 보이는 것을 예사 볼 수 있다.

어려서부터 유달리 숫기가 없던 나는 달리 손가락에 선천적 결함이 있는 것도 아니건만 여러 사람 앞에서 V표를 그려 보인 기억이 별로 없다.

그러기에 몇 해가 지난 지금까지도 V표를 해 보이지 못하는데 대한 후회와 아쉬움이 끝내는 죄책감으로 가슴 아픈 기억이 하나 있다.

몇 해 전 6월 중순쯤이었다. 중학교 3학년 여학생 반 수업이었다. 인사를 나누고 출석부를 펼치려니 조그마한 메모 쪽지가 하나 나왔다. 출석을 점점하는 채 언뜻 내용을 살폈다.

‘국어 선생님께! 이런 부탁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많

은 생각 끝에 용기를 내서 편지를 씁니다. 아무에게도 말쑥하지 않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에겐 힘든 고민이 있어요. 공부도 안 되고요. 걱정만 되어요. 죽고 싶기도 하고요. 선생님께 저의 고민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허락해 주실 수 있으신지요? 허락해 주신다면 다른 학생들 모르게 살짝 V자 표시를 해 주세요. - 선생님의 도움을 간절히 기다리는 학생 올림 -'

순간 참으로 난감했다.

선거 유세장도 아니요. 그렇다고 무슨 경기장도 아니다. 느닷없이 손을 들어 V표를 그려 보인다……. 그 학생에게야 응답의 사인이 되겠지만 영문을 알리 없는 다른 학생들에겐 이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는가? 아니, 이번엔 그 반대로 응답을 보내지 않는다……. 여느 학생들이야 예사 수업에 집중할 수 있겠지만 메모를 보낸 그 학생에겐 얼마나 실망이 클 일인가? 참으로 진퇴양난이다. 그런가 하면 장난기 많은 녀석들이 선생님 찔찔 매는 꼴을 보려고 깃곳은 일을 꾸민 지도 모를 일이다. 그렇다면 이 또한 얼마나 낭패인가?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일은 뻔한 일이다.

하여간 나는 이런 저런 생각과 갈등 속에 별다른 묘책도 찾지 못하고 어설픈 V표 한 번 제대로 그려 보이지 못한 채 수업을 마쳐야 했다.

수업을 끝낸 후 나는 메모 속의 글씨와 내용을 생각하며 많은 생각들을 해야 했다. 선생님의 위엄이라는 알량한 자존심이 그 가엾은 아이에게 주었을 상처를 생각함에 견딜 수가 없었다. 나는 잔무를 핑계로 아이들이 모두 돌아간 그 교실을 찾아 많은 시간이 지날 때까지 메모의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나의 뒤늦은 기대와 바람은 끝내 안타까움과 후회만을 남길 뿐이었다. 갖은 불길한 생각들이 다 떠올랐다. 제발 내일까지 만이라도 아무 일이 없기를…….

‘교직 생활 20 수 년 어찌 자족과 다음 편한 밤만 있을 수 있었겠는가’라는 이 날의 밤처럼 나를 꾸짖으며 후회로 길게 느껴졌던 적도 그리 흔치 않을 듯 싶다. 나의 V표의 메시지가 어설프면 무슨 상관이고 아이들 수업에 다소 지장을 준들 무어 그리 큰 대수이고, 설령 어느 장난기 찻곳은 녀석들의 놀림에 코미디가 된들 어떠랴?

다음 날이 되었다. 한 시간이라도 더 기다릴 수가 없다. 5교시에 들어 있는 수업을 첫 교시로 교체. 시종과 함께 그 갈등의 학급을 찾은 것이다. 우선 자리부터 살폈다. 다행 빈자리가 없다. 일단은 안도가 되었다. 나는 수업을 하며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몇 번이고 그 고뇌의 V표 메시지를 송신했다. 그리곤 그 날도 전날처럼 바로 같은 곳 같은 방법으로 메모의 주인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 다음 날도 또 다음 날도……. 메모의 주인은 끝내 수신음을 보내 오지 않았다.

다행이라고나 할까? 그 학급의 아이들 모두가 별다른 탈 없이 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했다. 그 후 나는 몇 번인가 그 아픔의 빈 교실을 찾았다. 손가락도 아닌 양팔을 벌려 V표의 메시지를 보냈지만 아이는 더 이상 나를 찾는 일도 전화를 걸어오는 일도 없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죄책감은 더해 왔다. 가엾은 아이는 출석부 사이 메모를 끼워 놓고 그 한 시간 내 내 얼마나 가슴 졸이며 내 V표의 메시지를 기다렸을까?

어쨌든 그 아이는 자신의 아픔은 어차피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차가운 현실을 깨닫고는 얼마나 속이 상했을까?

나는 그 아이의 졸업식 날 아침 일찍 그 아이가 머무르며 고뇌하고, 갈등하고, 때론 원망도 했을 - 그러나 세상을 인내하고, 스스로 추스르는 법을 깨우쳤을 - 그 교실을 찾았다. 그리고 칠판이 가득 차도록 몇 번이고 거듭 새겨 V표의 메시

지를 남겼다. 이 날의 내 메시지는 때를 지내놓은 뒤의 후회에 대한 공허한 몸짓에서가 아니었다. 마지막까지 죄책감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나의 구차한 변명에서만은 아니었다.

이제 가엸던 그 아이에게도 많은 세월이 흘러갔을 것이다. 살며 부대끼며 그 때마다 나의 제자는 전날들 보냈던 나의 V표의 의미와 졸업식 날 칠판 가득 채워져 있던 V표의 의미를 어떻게 반추하며 살아가고 있을까? 전 날들 내 V표의 메시지가 후회와 속죄의 서투른 몸짓이었다면, 졸업식 날 내 V표의 메시지는 그 아이 홀로 자신을 추스르는데 대한 찬사의 갈채였고, 앞날들 부대껴 올 삶들에 대한 진정한 인내와 용기의 격려였음을 다소는 헤아려 줄는지…….

아니, 헤아려 줌의 유무가 무슨 대수라? 그 아이, 앞으로도 얼마나 많은 세월 나에 대한 원망의 강을 건넌 후에야 이해를 해줄까? 아무려면 어떠랴? 원망 또한 자기 성취의 힘이 되는 것을……. 이 또한 지난 날 그 아이에 대한 일말의 후회와 죄책감에 대한 나의 보답이 되지 않을까? 나 오늘도 이러한 괴변 속에 지난날을 변명하며, 속죄의 기도 속 잠시 모은 손 풀어 그 날 못한 V표의 어설픈 메시지를 보내 본다.

瑞山文學

산행의 변

'산'은 정복되기 위해서 존재한다.'는 말이 있다. 그래서 일까 산을 찾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이 낮으면 낮은 대로, 높으면 높은 대로 정상を 밟아 보고 싶어한다. 어쩌면 신(神)과 동일해지고 싶은 인간들의 오만이 바벨탑 대신 산을 택한 것인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 이상 정상 정복에 대한 인간들의 야망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이다.

그러나, 나는 정상을 오르는 데 굳이 정복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데 대하여 상당한 거부감을 갖는다. 유명 산악인들조차 8000m 급의 몇 좌를 정복했다느니, 산정에 자국의 국기를 꽂는 등 정복의 흔적을 남기려 드는데 대해서는 더욱 실망하지 않을 수 없다. 나와 같은 사람이 - 산악인은 커녕 동네 뒷산 정도 산행하는 경력으로 어찌 그 영웅적인 탐험가들의 언행에 대하여 감론을박을 할 수 있을까마는 누구보다도 산을 외경해야 할 그들에게서 그런 말을 듣는다는 것은 정말 실망스럽지 않을 수 없다. 물론 그렇게 표현한다고 해서 그들이 산을 외경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겠지만, 진정한 경외는 동일시나 하멸시(下蔑視)가 아닐진대, 더구나 적대시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정복의 상대로 산을 바라볼 수 있다는 말인가?

그러면서 자칭 산악인이라고 일컫는다? 참으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 한술 더 떠 마스크조차 산을 피정복의 대상으로 매도시키며 오만한 산악인들을 소영웅으로 만들어 가는데는 식상하지 않을 수 없다. 서글픔마저 느껴진다.

거기에 반해 나는 산에 대한 인간들의 찬사 중 '산은 내려

다보기 위해서 오르는 것이 아니라 느끼기 위해서 오른다'는 말을 참 좋아한다. 언제 생각해 보아도 편안하다. 되뇌어 볼수록 마음을 끈다. 이 말만큼 산에 대한 존경심과 산행의 목적을 잘 대변하는 말도 그리 많을 듯 싶지 않다. 내려다보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들에게야 모든 것이 '정복'의 대상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러기에 산을 오르면서 만나게 되는 모든 존재들은 부딪쳐 오는 투쟁의 대상일 수밖에……。 설령 그렇게 해서 세계 제일 봉에 올랐다고 했을 경우 그것이 진정한 정복이 될 수 있을까? 잠시 잠깐 머무는 것으로 산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그 뒤의 허무와 고독을 그는 어떻게 감내할 수 있을까?

그러나, 느끼기 위해서 산을 오르는 사람에게 있어서 산은 곧 스승이요, 현인이요, 지우(知友)이다. 그러기에 산행 길 조우하는 무명의 잡초 한 포기, 앞 길 막아서는 암묵의 바위 하나……。 그에겐 모두가 느끼이고 인연이고 깨우침인 것이다.

나는 언젠가 충남 금산에 있는 서대산을 오른 적이 있다. 정상 903.7m. 충남 제일의 봉이라고 한다. 꽤나 높은 산이다.

3월 1일. 철이 늦어서인지 날씨가 만만치 않다. 산을 오르면서 초입에서 생각했던 것과는 사뭇 달랐다. 우리는 300m 지점에도 채 오르지 못해 잔빙과 적설을 만나야 했다. 600m 지점에 이르러는 일행 14명중 11명이 중도 포기. 셋만이 정상을 향했다. 정상이 가까울수록 길은 더욱 가파르고 결빙과 적설은 철용성을 이루며 험사리 입성을 허락하지 않았다. 나뭇가지를 휘어잡기도 하고 절벽을 후벼파기도 하며 뼈에로의 줄타기로 아슬아슬 정상을 향해 나갔다.

바로 그 때였다. 우리의 곡예를 놀리기나 하듯 겨우 예닐곱 살이나 되었을까? 야무지게 생긴 여자 아이 하나가 아빠와 손을 잡고 활짝 웃으며 하산을 하고 있지 않은가? 대견해

보였다. 박수라도 보내고 싶었다. 우리 일행에 비해 아이스 정의 등산화를 신었다는 정도뿐, 장한 모습이다. 나는 잠시 오르는 것을 멈추고 그들 부녀의 모습에 취했다.

그 멋진 모습과 함께 그들 부녀의 대화가 들려왔다.

“학교에 들어가면 일등 해야 돼.”

“국어 100점 맞을 수 있지?”

“산수도, 자연도…….”

나는 뒤로 멀어져 가는 그들 부녀의 모습을 보며 황홀은 잠시로 끝내야 했다. 웬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다. 아이 아빠는 산을 잘못 생각하고 있구나.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높고 험한 산이 얼마든지 많은데……。 아무 것도 모르는 저 어린것에게 너무나 감당키 어려운 욕심을 지어주고 있구나. 세상을 살다 보면 수없이 많은 역경을 만나게 될 터인데…。 어찌 꼭 일등만을 하면서 살 수 있을까? 참으로 힘겨울 것 같다. 하나를 일등하고 나면 다음 것이, 다음 것을 일등하고 나면 또 다음 것이, 또 다음 것이……。 저 아이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 아닌가? 숨이 막힐 것 같다. 멀어져 가는 어린것이 가없어 보인다. 아빠는 이 산의 정상으로 오른 것으로 세계 제일 봉을 착각하고 있구나.

어쩌면 아이의 아빠는 하산을 한 한동안도 딸아이의 무용담을 자랑삼아 회자할 지도 모른다. 아빠의 그 회자들은 자못 철모르는 저 어린아이로 하여금 자기가 정말 엄청난 아이라는 착각에 빠져들게 하지는 않을까?

국어, 산수, 자연……。 아빠는 또 딸아이를 위해 그 뒤로도 얼마나 많은 경쟁의 단어들을 예비할는지 모른다. 가없음이 느껴진다. 아빠가 지워주는 저 단어들의 엄청난 무게를 스스로 헤아리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월이 저 아이를 거쳐가야 할까? 때론 2등도 해야 하고, 아니, 어느 경우에는 끝에서부터

세어야 저 아이의 진정한 위치를 찾을 수 있는 분야도 많을 터인데……. 그 때마다 저 어린아이가 겪게 될 좌절과 열등을 어떻게 감내할까?

그런 먼 훗날 저 아이가 장성하여 다시 이 자리에 돌아왔을 때 어떠한 심정으로 아빠와의 대화를 회상할까? 그리고 어떠한 자세로 어린 시절 철없이 올랐던 산정을 바라볼까?

애정과 교육은 별개의 것일 터……. 왜 세상의 부모들은 자기들 사고의 틀 속에 자녀들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것일까?

나는 잠시 상념에 잠겨 보았다. 아이 스스로 깨닫게 지켜보아 주는 아빠라면 얼마나 더 멋져 보였을까? 이 설빙 속, 귀애하는 딸아이의 손을 잡고 산을 오른다는 것만으로도 정말 멋진 아빠인데.

나는 저 아이가 크게 다치지만 앓는다면 산을 내려가면서 한두 번쯤 눈길에 미끄러지기도 하고 나뭇그라지기도 했으면 하고 바랬다. 그것은 저주가 아니다. 잠시나마라도 나에게 그 신선한 충격을 주었던 아이의 아빠에 대한 보답이기도 하다. 그래서 용기만을 심어 주려 했던 아빠의 욕심이 딸아이를 얼마나 아프게 할 수 있나를, 내 아이도 다른 아이들처럼 눈길에 미끄러질 수도 있고 나뭇굴 수도 있다는 평범한 겸손을 깨달았으면 한다. 그것은 앞으로 저 아이가 1등 아닌 2등을 했을 때 아빠가 받을 수 있는 실망을, 사랑으로 이해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이기도 하다.

나는 귀 쫑긋 세워, 바람결 들려오는 듯한 그들 부녀의 겸허한 대화를 들어본다.

“아가야, 이 세상에는 이보다 더 높고 더 험한 산이 얼마든지 많단다.”

“네가 오늘 오른 산은 그 수많은 산들 중 하나일 뿐이란

다.”

“아빠는 내가 산을 무사히 내려올 수 있는 것으로 오직 감사할 뿐이란다.”

그리고 거기에 더해 그 귀엽고 영리하게 생긴 어린아이로 하여금, 아빠가 여기 어디쯤엔 가는 겨우 서서, 나무에 몸을 맡긴 채, 암벽의 도움을 받은 채, 아니면 겨우 돌부리에 의지한 채, 땀을 닦아냈던 아빠의 힘들어하던 모습도 있었다는 것을 해아리는 지혜가 있었으면 하고 바랬다.

이런 나의 바람은 명산준령의 순수 앞에서 갑자기 숨겨진 인간애가 발로되었다거나 나에게 무슨 평범 이상의 고매한 인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다. 그런 인격들은 나로서는 전혀 미치지도 못할 뿐더러 애써 원해 본 적도 없다. 다만 같은 시공 속에서 같은 산을 오른 산행인에 대한 한 동호인의 진솔한 배려이고 안타까움의 작은 표현일 뿐이다.

나는 산정을 내려온 후, 나를 허락해 주었던 정상을 다시 한번 우러러 보았다. 어떤 외경이라고나 할까 저절로 고개가 숙여진다. 돌아오는 길 당신도 별리가 안타까운 것일까? 안개구름 속 애써 그리운 모습 감추우고 계시다. 나는 몇 번이고 차창 유리를 닦는다. 산정은 거기 그대로 있는데……. 당신은 거기 그대로 계시는데……. 瑞山文學

노래하는 소피스트

독서를 함에 세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한다. 첫 번째는 미래까지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이고, 두 번째는 쓰여진 내용만을 읽는 사람이고, 마지막으로 시간은 지나고서야 의미를 깨닫는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게 본다면 나는 어느 유형에 속할까?

어느 서책은 날짜를 지내 놓고서야 그 말뜻을 헤아리기도 하고, 어느 것은 해를 넘기고서야 겨우 문장의 의미만을 깨닫기도 한다. 그런가 하면 십 년 이상의 세월이 흘러 서책 명마져 까마득하게 되고 나서야 ‘아, 이런 의미가 아니었을까?’ 어슴푸레 헤아림이 오니 독서에 관한 한 나는 그 세 번째 부류에도 끼지를 못하는 아둔한 사람이다. 그렇다고 내가 읽는 책이 달리 고도의 난해한 명저들이거나, 특별히 전문적 소양을 요하는 전공 서적 등속이라면 모르겠다. 책명만 들어도 확창 시절 누구나 한두 번쯤은 쉽게 읽어보았을 초급 수준의 문학 서적을 가지고 이렇게 이해가 어두우니 자칭 아둔자라 일컬음이 결코 겸손만은 아니다.

나는 중·고등학교 시절 그리스나 로마의 소피스트들에 관한 책을 즐겨 읽은 적이 있다. 그들의 달관적 철학이나 고매한 사상에 매료되었다거나, 달리 나에게 철학적 자질이 있어서는 결코 아니었다. 단지 그들의 기행이 재미있고, 그들의 위트와 기지에 호기심이 가져졌기 때문이었다. 그 중에서도 한 소피스트가 진정한 현인을 찾겠다며 백주에 등불을 켜들고 다녔다는 이야기는 그 책을 읽은 중·고등학교 시절 이래

30년이 지난 오늘날까지도 줄곧 풀리지 않는 숙제였다. 그가 그렇게도 찾기를 소망했다는 현인이란 도대체 어떤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

어찌 성현의 지고한 뜻을 헤아릴 수 있을까마는, 어느 날 문득 그 난해한 문제의 답을 일깨워 준 분이 계시다. 실로 꼭 33년 만인 셈이다.

가엾게 표현하여 일명 ‘노래하는 아저씨’ 이고, 세상 인심으로 불러 실성한 사람이요, 광인이다. 학교 아이들 사이에 수수되는 미스터리만큼이나 참으로 모를 사람이다. 사는 집이 학교에서 그리 멀지 않다는 것과 여든을 넘은 홀어머니와 단둘이서 산다는 것 외에는 언제부터, 왜 그렇게 되었는지도 확실치 않다. 달리 갈 곳도 없어서인지, 아이들이 등교하기도 전 출근을 했다간 날이 어두워서야 퇴근을 한다. 무엇인가 알지 못할 소리를 지껄이기도 하고, 청중도 없는 일장 연설을 하기도 하며, 신바람 나게 대중 가요를 부르곤 한다. 그래서 학교 아이들로부터 붙여진 슬픈 이름이 ‘노래하는 아저씨’이다.

내가 이 광인과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학교 울안에 있는 사택으로 이사를 온 몇 달 뒤의 일이었다.

도대체 누구일까? 장난으로 넘기기엔 다소 진지하고, 호의로 받아들이기엔 좀 유아적인 일이 발생했다.

어느 날 아침이었다. 신장 위에 웬 한 줌은 뭉적한 꽃이 놓여 있다. 화원에서 사 온 것도 아니요, 온실에서 기른 것도 아니다. 망대꽃 등속이다. 처음엔 어떤 숙기 없는 학생이 한 일이라니 생각했다. 그렇게 시작된 꽃의 선물은 그 후에도 한 동안 계속 되었다. 그러던 것이 하루는 두어 접이나 뭉적한 마늘을 갖다 놓은 것이 아닌가? 거름흙조차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내 밭에서 뽑아온 것이 분명했다. 들꽃쫂미야

달리 대수라마는 마늘에 이르러는 부쩍 겁이 났다. 묶은 상태로 보아 부모님이 보내주신 것이 분명 아니다. 누구의 짓이든 정직하지 않은 물건인 것만은 틀림없다. 그렇다고 마이크를 잡고 광고를 할 수 있는 성질의 일도 아니요, 아이들 모두를 일일이 조사를 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 후에도 그 발신 불명의 사람은 나의 고민과는 무관하게 종류를 달리하며 그 궁금 증의 선물을 계속 보내오는 것이다. 애호박이 열리면 애호박을 갖다 놓고…….

참으로 모를 일이었다.

처음 꽃이 놓여졌을 때만 해도 어느 순박한 학생이려니, 설레는 마음마저 들었었다. 그러나 횡수가 거듭될수록 천 가지 의구심으로 변했다. 나와 집사람은 나름으로 쪽지 편지를 써 놓아 보기도 하고, 아이들에게 소용이 될 학용품 가지를 밖의 신장에 올려놓아 보기도 했다. 이렇게 숨바꼭질을 하는 것으로 철을 넘기어 늦가을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나는 그 날도 신경을 곤추세우고 밤을 지켰다. 문득 밖에서 인기척이 나는 듯했다.

“누구여!”

나의 느닷없는 다그침에 누구인가 놀란 듯 멈추어 섰다. 나의 연속되는 다그침에 상대편도 어쩔 수 없었던지 두어 번 헛기침을 보내왔다. 집사람이 쫓아 나오고, 플래시가 비추어졌다. 아니, 전혀 뜻밖에도 노래하는 아저씨가 아닌가? 무엇인가를 등뒤에 숨기고 있다. 웬 늙은 호박 두 통을 내려놓는 것이다. 그러고는 겸연쩍은 듯 머리를 긁적이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 가는 것이 아닌가?

나와 집사람은 광인의 모습이 어둠 속 저 멀리로 사라진 한참의 뒤에까지도 할 말을 잊은 채 그대로 서 있었다.

아, 그랬었구나! 봄철부터 이 늦은 가을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이 바로 저 광인이 한 일이었구나.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 나는 아내의 손을 잡았다. 아내의 가녀린 두 어깨가 어두움 속에 흔들리고 있었다.

“여보, 미안하오. 당신이 옳았소.”

한동안의 시간이 지나고서야 아내와 나는 방으로 들어왔다.

어둠 속 사라져간 광인의 잔영 너머로 그 동안의 많은 일들이 스쳐왔다.

우리가 사택에 이사를 온 후 어느 일요일이었다. 집사람이 아이들 간식으로 카스테라 빵을 만든 적이 있었다. 밖의 광인이 안되어 보였던지, 아니면 크리스찬의 양심상 걸렸던지, 커피 한 잔과 빵 몇 조각을 아이들에게 시켜 갖다 준 일이 있었다. 솔직히 말해, 그 당시 나는 아내에게 약간의 불만을 토로했었다. 1회용 컵을 사용해도 될 것을, 왜 구태여 우리들이 사용하는 찻잔과 아이들이 쓰는 호크를 사용해야만 하느냐는 것이었다. 식어빠진 커피 한 모금, 굳은 빵 몇 조각이 무어 그리 큰 배품이라고…. 따지고 보면, 예의의 방법도, 격식의 절차도 생략된 박대였다. 그럼에도 광인은 나의 그 멸시마저도 은혜로 받아준 것이다. 그리고 달리 갚을 것이 없는 처지에서 들쭉을 꺾어다 놓기도 하고, 마늘을 뽑아오기도 하고, 기어이는 부인들에게 좋다는 늙은 호박을 가져 온 것이다.

어둠 속 집사람의 기도 소리가 들려 온다. 남편의 허물을 대속하는 속죄의 기도인지도 모르겠다. 아니면 저 가엾은 영혼에 대한 구원의 간구인지도 모르겠다. ‘너희 중에 단 열 명의 의인만 있어도 내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리….’ ‘성경의 말씀대로 열 명의 의인만 있었어도 소돔과 고모라성은 하느님의 노여움을 면할 수 있었으련만……, 하느님께서 그 열 명의 의인을 위해 성안의 모든 백성들을 구

원해 주시려 했던 것이다.’ ‘당신께서 얼마나 의인을 아끼셨나’를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생각해 보면 지금 이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성의 타락에 일곱에 일곱 배를 더하고도 오히려 넘치는 세상인지 모른다. 그러나 다행 곳곳의 의인들이 있어 우리는 하느님의 노여움을 면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래, 아내의 기도대로 저 광인이야말로 진정 성경의 말씀에 나오는 의인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나에겐 중·고등학교 시절 이래 33년 간 그렇게도 궁금하게 생각해 왔던 숙제를 풀어준 큰 스승일는지도 모른다.

그렇다. 성현 소피스트가 한낮에도 등불을 켜 들고 그렇게도 찾아다녔다는 현인이 바로 저런 분이 아니었을까? 낮과 밤이 거꾸로 돌아가는 세상, 조금이라도 더 자신을 위장하고 살아가야만 귀인이 되는 세상, 밟지 않으면 떠밀리고, 밀치지 않으면 밟히는 것이 상식인 세상, 저런 마음 여린 이가 살아가기엔 너무 힘겨운 세상이었나 보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의 현인 ‘디오게네스’가 통나무 속을 거سو로 기인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도 수없이 독백을 하고, 노래를 하고, 열변을 토하는 광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지도 모른다. 그리고 스스로를 실성한 사람, 광인, 미친 사람으로 불려지며 살아가나 보다. 그렇지 않고는 그는 정말 실성한 사람, 광인이 될는지도 모를 일이다.

이제 이 어두움이 가면 날이 밝아 오고, 그는 또 학교를 찾을 것이다. 그러한 그를 아이들은 전날들처럼 ‘노래하는 아저씨’라 부를 것이고, 세속의 인정은 그를 실성한 사람, 정신병자, 미친놈이라 야유할 것이다. 어쩌면 그는 먼 훗날들에도 그렇게 불려지며 살아갈 것이다.

돌아오는 일요일날엔 집사람에게 부탁하여 따끈한 커피도 끓이고, 카스테라도 구워 달라야겠다. 소주도 몇 잔 마련해야

겠다. 그리고 우리의 집에, 나의 방에, 정중한 예를 갖추어 광인으로서가 아닌 현인으로 그 분을 초대해야겠다. 가능하면 나의 아이들도 이 아빠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분께 소주를 올렸으면 한다.

돌아오는 성탄절 나는 나의 아이들에게 33년 전 내가 즐겨 읽었던 그리스와 로마의 현인들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 ‘소피스트’에 관한 서책을 선물해야겠다. 瑞山文學

엘리베이터 풍경

유 병 인

아파트라는 공동 주택에 산 지 이제 4년이 되었다. 처음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는 낯설고 생소한 것들이 너무 많았다. 단독주택이나 연립에 살 때와는 다른 환경 때문에 난처한 경우도 많다.

15층 한 라인 30가구가 한 엘리베이터를 사용한다. 아파트에 사는 사람뿐만 아니라 가가호호 자장면 배달 온 사람, 일가 친척, 친구 등 외부 손님들도 많다. 나 또한 최소한 하루 두 번은 11층 내가 사는 집까지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르내려야 한다.

오늘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출근한다. ‘땡’소리에 벌써 다 왔나 했는데 아래층에서 다른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

‘아침 일찍 이라서 아파트에 살고 있는 주민을 찾아 온 손님도 아닐 터이고 다시 이사 온 사람인가?’하고 혼자서 생각해 본다.

승강기에 탄 사람 역시 눈길을 잠깐 주고는 곧바로 ‘승강기 안전 수칙’에 시선을 고정시킨 채 말이 없다. 나 또한 애꿎은 자동차 열쇠만 만지작거리다 핸드폰 뚜껑을 열었다, 닫았다 한다. 이럴 때면 왜이리 엘리베이터 속도가 늦은 지.....

저녁에 퇴근하는 데 엘리베이터 앞에 아침 출근길에 만났던 그 사람이 서있다. 아무 말 없이 그 사람 뒤에 서 있다 엘리베이터에 오른다. 각자 자기 집이 있는 층의 숫자를 누르고 아침과 똑같은 동작을 연출한다. 난 속으로 웃음이 나왔다.

그 사람이 먼저 내리고 난 또 올라간다.

‘아래층에 이사 온 사람이 틀림없는가 보구나’ 속으로 생각했다.

세상이 아무리 삭막하고 개인주의 사회로 변했다고 하지만 나 스스로 삭막함을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 지 반성해 본다.

‘그래, 먼저 인사하고 나를 소개하고 미소를 지어보자. 상대방도 기분이 좋아질 것이 아닌가?’

그 일이 있는 지 며칠 후 또 다른 사람과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다.

“안녕하세요? 새로 이사 왔나 보죠. 저는 14층에 삽니다. 제가 살아보니 이 곳이 아주 좋더군요.”

“예, 5층에 새로 이사왔습니다. 김정현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상대방도 반갑게 인사하고 말문을 열어 놓는다.

그래, 바로 이거다. 서로 어색하게 좁은 공간에서 뭐 할 일이 없나 부스럭거리고 엘리베이터 안의 안내문을 몇 번씩 되뇌이며 속으로 읊지 않아도 된다.

먼저 다정하게 인사하면 이웃간의 정을 작은 정성으로 느낄 수 있는데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고 마음을 열지 못한 내가 답답하게 느껴졌다.

미소는 전염성이 강하다.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속담도 있듯이 웃는 얼굴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는 것이다. 나의 웃음이 또 다른 웃음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새삼 엘리베이터 안에서 깨달았다. 아주 작은 것이지만 먼저 인사하고 미소를 지어 준다는 것이 이렇게 마음까지 후련하고 기쁜 것인데 왜 진작에 하지 못했을까?

먼저 말을 전내고 인사하면 엘리베이터 안의 분위기는 확

연히 달라지고 부드러워진다. 그런데 그 말 한 마디 건네기가 뭐 그리 어렵다고 사람들은 상대방이 먼저 말을 걸어오기를 기다리면서 엘리베이터 안에서의 짧은 시간을 어색하고 긴 시간으로 만드는 것인지……. 먼저 인사하고 미소를 지어주면 서로의 어색함은 순식간에 봄 눈 녹듯이 사라지고 새로운 인간 관계가 싹 트게 된다.

아파트라는 폐쇄된 구조를 우리 스스로 인정하며 이웃간의 마음의 벽을 달아 놓고 사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한다. 닫힌 마음을 허물 수 없는 것은 쉽게 열지 못하는 나의 마음 한켠에 있었던 것이다. 瑞山文學

다시 불러보는 노래 『인생은 나그네 길』

유 인 석

『인생은 나그네 길/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정일랑 두지 말자/미련일랑 두지 말자/인생은 나그네 길...』 원로가수 최희준씨가 불러 히트시킨 60년대 후반 대중가요 한 구절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 노래만큼 인생과 삶을 실감나게 또 정감있게 표현해낸 노래말도 흔치 않다. 그렇다 인생은 나그네다.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없다. 그저 한평생을 떠돌다 자기도 모르는 시간에 자기도 알 수 없는 곳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다.

알 수 없는 인생의 길은 어느 누구에게도 똑같다. 세상을 지배한 억만장자도, 세계최고의 권력자도, 또 절세의 미인도 영웅호걸도 세상에 태어나 살다가는 인생 길은 모두 같다.

인생 길은 보이지도 않고 또 아는 이도 없다.

모두가 마음속의 길ियो 마음속의 목표일 뿐이다. 그래서 인생 나그네들은 한 평생을 살기가 피곤하다.

「인생길」 중에서 제일 먼저 찾는 길은 성공의 길이고 출세의 길이다.

「성공의 길」 「출세의 길」은 가장 높은 길이고 가장 험한 길이기때 피눈물 나는 고통이 따르는 길이기도 하다.

인생 나그네들이 목숨 걸고 싸우는 길도 성공의 길이고 출세의 길이다.

서로가 서로를 모함하고 혈투는 길이고 급기야는 투쟁으로 결판내는 전쟁의 길이기도 하다.

프랑스의 문호 「빅토위고」가 일찍이 인생과 삶을 「전쟁」으로 비유한 것도 이 때문이다.

「산다는 것은 싸우는 것」이라고 했다. 「삶의 전쟁터에서 날마다 남과 싸우고 자신과 싸우는 게 인생」이라고 했다.

때문에 전쟁은 인생 삶의 엄숙한 일면이요 피할 수 없는 진실이다. 이렇듯 사람들은 성공의 길, 출세의 길목에서 생(生)과 사(死)의 결투를 벌이게 되는 것이다.

강자와 약자의 대결은 삶의 질서 형성에 불가피한 현상이지만 인간들의 생존 투쟁은 너무도 치열하고 살벌하다.

싫지만 생존 투쟁은 곧 삶을 위한 방법이다.

삶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될 외길이고 또 반드시 이겨야될 외길이다.

투쟁에서 낙오되면 멸망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생길을 걸어야하는 나그네 삶은 괴롭고, 슬프고, 고통일 수밖에 없다.

원로 철학자 안병욱(安秉煜)선생은 「인생과 삶은 여행」이라고 논했다.

「나그네」나 「여행길」은 어쩌면 숙명적인 동반자 관계다.

가는 길도 모르고 가야할 곳도 모른 채 「여행길」에 떠도는 사람을 가리켜 우리는 흔히 「나그네」라고 칭하기 때문이다.

삶의 생각이나 방법은 서로 다르지만 인생길은 누구나 나그네같은 여행길일 뿐이다. 때로는 천길 낭떨어지라도 지나야 하고, 거친 파도 헤치며 망망대해(茫茫大海)도 건너야 한다.

힘준한 산령도 넘고 드넓은 광야도 걸어야 한다.
또 보람도 느끼고 절망도 씹어야 한다.

인생길은 이렇듯 다양하고 다변하다.
그래서 삶은 희망과 절망의 연속이고, 기쁨과 슬픔의 반복
이다.

희망도 절망도 마음대로 다스리지 못하면서 인생은 누구
나 자기 생각 속에서만 집착하게 된다.

허영에 들뜬 마누라 때문에 얼마전 장관직을 물러나게 된
金泰政씨의 경우도 자기 생각 속에서만 집착했기 때문에 절
망의 순간을 미리 깨닫지 못한 것이다.

개혁의 배반자들을 끌어안고 민초들의 원성을 외면해온
대통령 고집도 자기생각 속에서만 집착했기 때문이다.

민초들의 개혁만 강요하면서 권력층 개혁을 외면하는 것
도 자기 생각 속에서만 집착하고 있는 통치자의 외고집 때문
이다.

영세서민들에게만 고통분담을 떠밀면서 민생정치를 외면
하고 있는 정치집단의 부정 비리도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위
정자들의 자기 고집 때문이다.

이렇듯 우리는 나그네이면서 「나그네인 자신」을 망각하
고 산다.

내나 남이나 자기 자신을 깨닫지 못하고 사는 것은 슬픈
인생이다.

싸움에서 이기는 길은 지피지기(知彼知己) 지혜뿐이다.

하기야 내가 내 운명을 알고 산다면 달관(達觀)하고 해탈
(解脫)한 것이다. 내 인생 길이 어디쯤 가고 있는지, 내 스스
로가 무엇을 깨닫고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 길을 가야하는

건지, 모두 알면 누가 인생을 나그네처럼 살겠는가?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생과 삶이 더욱 어렵고 고달픈 이유도 이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삶의 길을 씬 없이 가야하는 숙명적인 인생 나그네다. 멀고 긴 여행을 위해서는 물론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 돈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다.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욕심도 생기고, 투쟁도 생기고, 부정비리도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나 나그네가 많은 것을 소유한다는 것은 정말로 부질없는 일이다. 많은 것을 갖기 위한 욕심은 여행길 나그네 인생을 무겁고 괴롭게 할뿐이다.

마누라의 밍크코트 욕심 때문에 평생을 뼈 깎아 쌓아온 범 무부장관의 인생길은 텅텅이 침몰했다. 지나친 욕심 때문에 인생과 삶을 먹칠한 사람은 이 세상에 부지기수다. 인생과 삶을 편하게 하는 지혜는 욕심에서 해방되는 길이다.

자기고집 속에 묶여있는 집착에서 해방되는 것은 나그네 삶의 자유다. 자유는 분명히 자신의 내면 속에 숨어있다. 내면 속에서 찾아내는 자유만이 보배롭다. 자유를 찾는 지혜는 반드시 자신의 내면을 들어내고 비우는 것이다. 욕심을 버리면 자유가 생기고 고집을 버리면 행복이 생기는 길이다. 자유는 이 세상 모든 나그네가 한결같이 추구하는 기본이다.

자유는 절대로 방종이 아니고 방탕이 아니다. 자유는 가장 기본적인 삶의 질서이자, 엄연한 도덕이고, 기초적 행복이다. 자유가 잡다한 이기심으로 오염돼 있다면 절대로 행복한 자유가 아니고 진정한 의미의 자유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내면의 자유를 찾아 인생길을 여행하는 나그네가 된 것이다. 아무리 큰 고통을 머리 위에 이고 있다해도 자유를 찾는 희망 때문에 견디어낼 수 있다. 비굴하고 부정하게 자유를 얻는다면 그것은 자유가 아

니고 그 순간부터 더 큰 속박이다.

진실이 없는 자유는 불행한 노예다. 불행은 또 인생의 종말을 재촉한다. 진실 없는 자유는 비양심적 자유이기 때문이다. 양심적 자유는 빨리 찾을수록 좋다. 진실한 자유는 성공의 길, 행복의 길로 가는 가장 빠른 인생길이다. 남루해진 허수아비등 뒤로 붉은 노을이 질 때는 이미 늦었다.

새싹 돋는 파란 봄일수록 진실한 자유는 빛이 난다.

나그네에게 가을은 우수를 만든다.

나그네에게 가을은 무상함을 느끼게 한다.

청 술가지 사이로 찬바람이 스칠때면 산허리 타고 앉아, 푸르름을 타고 앉아 젊음을 구가하던 뭉개구름조차도 구천으로 사라지게 마련이다. 아무리 향기 좋고 예쁜 꽃이라도 저무는 가을따라 생명을 마감하지 않을 수 없다. 가을은 수확도 중요하지만 인생에겐 소멸을 의미한다. 그래서 인생과 삶의 깨달음은 빠를수록 좋다. 그게 바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행복해지는 최상의 지혜이기 때문이다.

잇고 얻음이 무엇이었는지, 황혼기 나그네들도 그동안 걸어온 여행길을 다시 되돌아보고 또 추스려야 하는 계절이 가을이다.

낙엽 내음 짙은 가을바람에 몸을 맡기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길에 나그네 의미가 새로워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생과 삶을 「여행길」로 비유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깜깜한 밤, 거센 바람 속에서도 등불 하나가 오랜시간 켜져 있다면 그 뒤엔 반드시 등불을 지켜준 누군가의 역할이 있다. 역할은 삶을 이어가는 기본적 지혜다.

할아버지의 역할이 있었기에 아버지가 존재했고, 아버지의 역할이 있었기에 오늘 내 삶의 길이 있고, 내 역할이 있어야만 반드시 내 가족과 내 후손들이 존재하게 된다.

가난해도 좋고 부자여도 좋다.

불행해도 좋고 행복해도 좋다.

역할의 의미에는 빈부가 따로 없고 행복과 불행을 구별치 않는다. 크고 작은 가치의 구별만 되면 좋다. 가치를 구별할 수 있으면 삶의 이치도 알 수 있다.

빳빳하게 풀먹인 삼베옷처럼 진솔한 마음의 역할이면 최고다.

내가 나를 발견하는 일은 내가 나를 사랑하는 일이다. 예감할 수 없는 삶의 질곡에서 자신을 알고 자신의 역할을 찾아가는 지혜터득이란 대단히 어렵다.

이 세상에 영원히 존재하는 인생은 없다.

「인생은 나그네길/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느냐/세월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나그네 같은 인생노래 다시 한 번 불러본다. 瑞山文學

모임과 만남의 인연

우리 품에

엽서 몇 장 품고 살자.
푸른 잎 때 없이 지고
흘날리다 자취없는 길목

우리 서로

잊었다가 문득 생각나는 날
식지않게 살아온 이야기 몇 줄
엽서를 꺼내 쓰자.

바람든 골, 깊을 수록

울림은 깊고도 멀리 여운지리니

우리 살아가는 길목

우체통은 어디에 있는지

가끔은 찾아볼 일이다.

우리 가슴에

엽서 몇 장 품고 살자.

서로 그리운 마음 엮어

바람만 고이는 우체통에

뜨거운 속삭임 채워넣자.

1999년 5월 21일 서산문학회원들에게 모임을 알리는 엽서
안내문이었다. 유희 작(作) 「우체통이 있는 길목」이란 예쁜

시를 인용한 것이다.

「--- 푸른잎 때없이 지고/홀날리다 자취 없는 길목/ 우리서로/잊었다가 문득 생각나는 날/식지 않게 살아온 이야기 몇줄---」처럼 싹구도 의미 깊지만 이런 시를 인용해서 만나고 싶은 사람들에게 모임의 의미를 한껏 충동여준 충무님의 지혜 또한 문학인의 슬기였다.

대전과 서산을 통틀어 19개나되는 모임에 참가하고 있지만 시문(詩文)으로 안내하며 참석을 유도하는 모임은 우리 서산문학회만의 전통이고 자랑이다. 나는 이 엽서를 받아든 순간 감동을 느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번 모임에만은 반드시 참석해야겠다는 충동을 받았다.

얼굴도 모르는 채 편지 한 장 받고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한 줄의 사연이다.

그런데도 모임을 안내하는 문안은 대개가 딱딱하고 사무적이기 마련이다.

「회칙 몇조 몇 항에 의거---」또는 「무단결석시---」, 「시간 위반시---」 등등의 강제조건까지 명시하는 안내장도 있다.

모임의 성격이나 형태따라 안내문장의 내용이 물론 다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형태, 어떤 성격이든 모임은 모두 만남이다.

또 어떤 형태든, 어떤 대상이든 어떤 이유, 어떤 의미이든 만남은 소중한 것이다. 같은 세상에 태어나 같은 세대에 살면서 서로의 만남은 어떤 의미에서든지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운명이요, 또 삶의 방법이기도 하다.

독일의 옛 작가 한스 가로사(Hans Ka-rossa)는 「인생은 만남의 존재」라고 갈파했다. 그렇듯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이루는 만남 들은 헤아릴 수 없이 무수하다. 연인과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아니면 의지나 취미를 함께하는 동아리 끼리의 만남 등, 만남의 대상도, 만남의 이유도, 또 만남의 형태도 다양하다. 보고 싶은 만남도 있고, 보기 싫은 만남도 있고, 슬픈 만남도 있고, 기쁜 만남도 있다.

우리가 만약 만남 없는 삶을 산다고 가정해 보자. 얼마나 삭막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무섭겠는가? 그런데도 우리는 이토록 소중한 만남의 의미를 곧잘 잊고 살기 마련이다.

『일시 ; 1999년 5월 21일 오후 6시30분. 장소 ; 한일식당 (665-5643)』 서산문학회 회원님들께 보내진 엽서 한 장.

간결한 모임 안내문에 詩를 담아 정겨움을 더한 것도 이때문이라. 날마다 넘겨지는 삶의 새로운 장애는 익숙한 만남들과 생소한 만남이 교체되기 마련이다.

한사람이 떠나면 빈자리에는 반드시 새로운 만남이 찾아온다.

만남은 곧 헤어짐이요, 헤어짐은 곧 만남이다.

그래서인지 어느 시인은 「만남은 이루어지면서부터 헤어짐의 시작」이라고도 했다. 끝내 헤어지는 것은 다시 만남의 기약이고, 만남이 이루어지는 것은 반드시 헤어짐의 철칙이다.

만남도 상대적이고 헤어짐도 상대적이기 때문이다.

함께 산다는 것은 반드시 누구와의 동반을 뜻한다. 따라서 누구와의 함께 삶은 반드시 헤어짐을 전제하는 것이다.

이렇듯 만남은 헤어짐을 동반하건만 인간의 삶에는 만남보다 더 소중한 게 없다.

만남으로 해서 다른 이의 관심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이

에게 관심을 쏟기도 하는 공존의 필수성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끔 작고 가는 물줄기들이 서로 만나 호수나 바다를 향해 흘러가는 큰 물줄기들을 바라보며 만남의 의미를 느껴볼 때도 있다.

사람도 살아가면서 절대로 혼자일수는 없다. 끝내 누구와 만남이 있어야 한다. 그러나 만남은 영원할 수 없다.

생명이 한정돼 있듯이 만남의 기간도 한정돼 있다.

그래도 만남은 피할 수 없는 삶의 운명이다.

만남은 행복한 만남과 불행한 만남이 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진솔한 만남 하나를 제대로 이루고 살 수만 있다면 그것은 아주 큰 행복이다.

진솔한 만남이야말로 한사람의 생애 있어서 땅속까지 파고 들어가는 뿌리의 의미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만남의 존재」일 수밖에 없다.

벌써 5월도 하순으로 접어들었다.

녹음방초가 어느덧 세상을 가득 채우고 있다.

새로운 만남을 재촉하고 또 새로운 이별을 재촉하듯 세월은 이렇듯 빠르다.

누군가를 만나 열싸안고 기뻐하는 이들을 우리는 자주 본다. 누군가를 떠나 보내면 슬퍼하는 이들도 자주 본다.

이게 만나고 헤어짐의 이치려니 생각하려 하지만 왠지 자꾸 쳐다봐지는 것 또한 인간심리다.

「만남을 기뻐하지 말라. 떠남을 슬퍼하지 말라. 만남도 영원함도 없고 떠남도 영원함이 없다. 그저 나무 한 그루에 잎이 피면 만남이요, 잎이 지면 떠남이다」 일찍이 석가세존

께서 중생들께 이룬 말이다.

우리는 가끔 약속을 잊을 때가 있다. 약속을 잊는 것은 약속을 어기는 것이다.

약속을 어기면 이루어졌던 만남도 끊어지게 마련이다.

약속은 곧 믿음ियो, 정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남의 첫째 조건은 서로간의 믿음ियो 정이다.

믿음과 정은 반드시 만남을 만든다. 만남은 또 서로의 필요성에서 비롯된다.

서로가 필요성이 없을 때는 만남이 이루어질 수 없다.

강을 건너기 위해서 나룻배를 찾아가듯 만남은 반드시 서로간의 필요성 관계로 이루어진다. 이성간에도 친구간에도 사회조직과 국가조직간에도 만남의 이치는 같다.

「한 번의 웃짓을 스치는 것도 몇 겹의 인연이 있어야 한다」는 불교논리는 곧 만남의 관계성을 말한다.

만남의 관계성은 정말로 소중한 인연이다.

몇 겹의 인연이 있어야 한번의 웃짓을 스칠 만큼 만남의 인연이 소중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늘 그 인연의 끈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게 쉽지 않다.

「5월 모임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며 유희 시(詩) 「우체통이 있는 길목」 한편을 적어보낸 총무님의 모임안내 엽서가 그토록 고맙게 느껴지고 감명 깊게 느껴진 이유도 이 때문이다.

우리의 만남은 삶을 꾸려가기 위한 단순한 동반자 관계가 아니다. 서로가 마음속에 품고 있는 현명함을 나누기 위해서다. 아니 믿음과 정을 쌓기 위함이다.

세상을 살아가며 동질성의 느낌을 함께 나누는 동반자가 될 수 있음은 더욱 값진 의미의 만남이다.

서로의 만남은 동질성(同質性)의 확인이다. 서산문학 회원들의 모임도 마찬가지다. 만나면 그저 좋다. 몇 달만에 한번씩 만나도 천년지기다. 만나면 마시고, 마시면서 지절대고…….

우리들의 인생 항해가 끝날 때 닻을 내려줄 수 있는 인연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지도 모른다.

거친 항해일지(日誌)를 들여다보며 서로의 수고를 위로하고 그 자취를 확인해줄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 서로다.

우리는 만남의 인연을 거부하며 살수는 없다.

우리들 삶이 궁극적으로 혼자만의 것이라고들 하지만 이웃들의 마음과 만나지 않으면 절대로 불가능하다.

만남이란 상대성(相對性) 원리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많은 만남을 반복하고 그 만남을 보람으로 승화시키려 노력하는 것이다.

때문에 누구의 삶이라도 만남은 중요하다.

어떤 만남보다도 자신과의 만남은 더욱 중요하다.

나와 내가 스스로 만날 때 내 모습도, 내 마음도, 내가 보고 내가 알 수 있기 때문이다.

내 모습을 모르면 남의 모습도 볼 수 없다.

내 마음을 모르면 남의 마음도 알 수 없다.

만남과 헤어짐을 인식하는 길도 내가 내 스스로를 만날 수 있을 때 깨닫게 된다.

우리는 만남과 헤어짐을 인연이라 부른다.

인연이란 정말로 아름다운 말이다. 인연을 맺고 사는 것은 정말로 만남의 소중함이다.

「---푸른 잎 때없이 지고/ 흘날리다 자취 없는 길목/ 우

리서로/ 잊었다가 문득 생각나는 날/ 식지 않게 살아온 이야기
몇 줄/ 엽서를 꺼내쓰자---」 서산문학회원들의 만남. 다
시 한번 새기고 싶다. **瑞山文學**

거목 세 그루

이 순 수

몇 년이나 되었을까.

우리 집에는 거목 세 그루가 있다. 한 그루는 담장 안 오른 쪽 대문 입구에 있는 동백나무이고 또 한 그루는 대문 밖 앞 마당에 쉼터를 만들어주는 살구나무이다. 마지막 한 그루는 언덕 벼랑에 서 있는 만홍 감나무다. 옛날 농사를 위주로 하고 대가족이 살 때에는 감나무와 살구나무가 주식인 곡식 외에 큰 역할을 했다고 한다.

살구나무는 해가 긴 봄날 허기를 채워주는 부식으로, 또한 비타민C 역할, 입덧하는 임신부의 간식 거리로, 젊음이 들에게 선호의 대상이었다고 한다.

헌데 지금은 먹는 이 없이 봄이면 아침마다 떨어지는 살구가 마당에 으깨어져 주어버리기에 거추장스럽고, 가을에는 떨어지는 낙엽이 마당을 쓸기에 힘이 든다. 그리하여 몇 번이나 베어 버리자고 했으나 선인의 유물과 같아 그럴 수 없다고 할 뿐 아니라 이 나무를 아는 동리의 어른도 반대가 심하였다.

그리하여 나무는 지금까지 생명의 위기를 모면한 것이다. 이제와 살구나무의 표피 부분을 보고 있노라면, 인고의 세월 많은 풍량을 겪고 살아오신 어머니의 거친 손을 연상케 하여 한 층 더 정을 느끼게 한다.

감나무 역시 옛날에는 반 주식의 역할을 했다고 한다. 겨울에 독 안에 넣어둔 연시는 노할머니의 밤참으로, 기나긴 밤 길쌈을 하는 아낙네의 출출함을 면하게 하는 간식으로 그만

이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도 지금에는 먹는 사람이 없어 나무에 빨갭게 익어 주렁주렁 매달려 있을 때는 관상용으로나 볼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 농익어 떨어지면 길은 또 얼마나 더러운가, 이렇게 시대를 따라 무용지물이 되어 더욱이 나로부터 학대받는다. 감나무 밑에 차를 세워두면 땀감일 때는 우박이 떨어지는 소리를 하며 차를 상하게까지 하고 익어서 떨어지면 차가 험악해진다. 나는 감나무를 베어 버리자고 성화를 한다. 수많은 세월이 흐르는 동안 벼랑에선 비바람에 흙이 각여 뿌리를 들어내고 거대한 몸집을 유지하려고 열기설기 엉클어져 있다. 뿌리를 보노라면 생의 욕망은 사람이나 식물이나 다를 바 없다. 나는 이따금 삼풍 붕괴 사건을 생각하게 된다. 흙더미 속 그 절박한 여건에서도 단절하지 않고 끈기 있게 극복하며 살겠다고 아우성 치던 그 소리를 생각하며 어려움이 닥쳐도 헤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한다.

나무 뿌리의 한 곳이 노출되면 또 다른 곳을 향해 누비고 뻗어 나아갈 틈을 찾아 안간힘으로 자기를 지탱하며 그 아슬한 언덕의 위치를 거부하지 않고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자리를 묵묵히 지켜나가고 있다.

나는 지금 터 갈이를 하여 피할 수 없는 운명의 자리를 지키며 감나무의 뿌리에서 인간 본원의 철학을 터득하고 있다. 현대 사회는 시대의 흐름도 있겠지만 너무 쉽게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기도 하고 포기하기도 잘한다.

IMF로 인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고아가 되어 있나, 남편의 무능력함을 참지 못하고 남편과 자식, 가정을 버리고 집을 떠난 주부들이 얼마나 많은가, 내가 지금 학교에서 상담하고 있는 몇 명의 중학생도 비행 청소년으로 문제아는 그 학생의 탓만은 아니다. 부모에게 있다해도 과언은 아닐게다. 대

다수가 결핍 아동들이다.

콘크리트 벽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어찌 자연의 저 섭리를 알 수 있으랴.

지금의 시골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도 태고의 이야기인 양 들은지 아득하다. 인간칠십고려장(人間七十高麗葬)이 아니다. 지금은 지천명(知天命), 이순(耳順)의 고려장이다. 토분만 없다 뿐이지 넓은 산과 들로 둘러싸인 넓디넓은 고려장이다. 자급자족하는 고려장이다. 젊은이는 모두 외지로 가고 시골에 남아있는 사람은 오십을 넘은 이들 뿐이니 이 말이 과연 아니다 싶다. TV라는 매개체 때문에 밖으로 나오는 사람이 별로 없다. 전화가 있으니 까치 까마귀의 희·비의 소식 전달이 필요 없다. 시골의 노인 아닌 노인의 얼굴엔 세월의 강이 흐르고 손은 이 세 그루의 표피 같이 굳은살 같은 몸을 지탱하기에 여념이 없다. 무너진 틈을 쌓아줄 힘이 모자라 나무의 뿌리가 노출되어도 막연히 바라 볼 수밖에 없다.

마지막 한 그루의 나무는 백목련이다. 지붕 높이가 무색하도록 큰 키 평지에 있어서 뿌리는 노출되지 않아 굳굳하고 봄이 오면 꽃을 활짝 피워 사랑을 제일 많이 받는다. 허나 보아 줄 이 없으니 그 아름다움을 능력껏 발휘하지 못하는 것이다. 별 탈없이 철에 따라 꽃피고 묵묵히 집을 지켜주어 사랑을 듬뿍 받고 있다. 어디에서 무엇이든 불필요한 존재가 아닌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 나는 비록 농부는 아니나 이에 익숙하여 작은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이 되어 필요한 존재가 되리라 노력하고 있다.

노출된 뿌리를 이끼로 가누며 피할 수 없는 운명을 묵묵히 지키는 나무의 뿌리와 같이 부모님의 땅 창조주의 만드심에 복종하며 한 알의 밀알로 썩어 살아나리라.

수십, 수백 년을 변함없이 자기의 위치를 지키는 세 그루

의 나무 필요하지 않아도 아름답다 해주지 않아도, 싫어해도,
태어남을 거부않고 불편없이 굳건하고 의젓하게 자연 그대로
를 만족해하는 그 모습 우리 인간도 깊이 터득하여 목숨의
귀함도, 존재의 소중함도, 태어남의 존귀함을 현재의 나로서
만족함을 깨닫고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자연의 섭리대
로……. **瑞山文學**

서울 나들이

서울에 가면 공적인 문화모임을 빼고는 친구와 쇼핑을 한다.

J친구와 서울거리를 나왔다. 출근시간이 지났는데 전철이 만원이다. 서울엔 인구가 지방 곳곳에서 모여 공적인 직업이 아닌 자유업이 많아서 인가보다. 명동 R백화점에 갔다. 꼭 사야할 물건도 없으며 여자의 본능으로 의류코너부터 갔다. 가을 옷들이 벌써 눈길을 돌리게 한다. 밍크, 모피코트 쪽으로 갔다. 눈을 부시게 한다. 여기에 매료되어 고관, 장관 부인이 청문회에 나와 시골 오지에 사는 이까지 그 위대한 얼굴을 볼 수 있지 않았나? 가격표를 보았다. 입을 벌리지 않을 수 없다. 천만 원에 가까운 금액, 정말 그림의 떡이란 말 여기에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 싶다. 감히 우리 같은 서민이야 엄두에나 내어볼 수 있겠느냐?

스포츠 용품 코너로 갔다. 친구가 등산용 잠바를 사야겠다고 한다. 이곳 저곳 한바퀴를 돌아도 마음에 드는 것이 없나 보다. 친구의 성품이 꽤나 섬세하고 빈틈없긴 하지만 고르는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생각이 든다. 나는 다른 곳으로가 시골과 서울과의 가격 차이를 알아보니 모든 물건이 시골이 꽤나 더 비싸다. 아마 운반비가 있어 그런가 본데 그렇다 해도 너무 많은 차이가 나는 것 같아 화가 치민다. 시골 문화도 낙후되어 있는데 물건값까지...

오늘따라 머리가 아프고 냄새가 싫다. 휴식공간이 있는 곳으로 나와 냉수를 마시고 의자에 앉아 있으니 엘리베이터에

서 오르내리는 많은 사람이 한번씩 나에게 시선이 돌아온다. 할 일없이 앉아 있는 모양이 처량하고 한심스럽게 보여진 모양이다. 그래도 머리가 아파 비상용 약을 먹었다. 허나 별 효험이 없다. 몸이 쇠약해서 그런가 보다. 하루 해가 긴 줄 모르고 즐겨하던 쇼핑도 하지 못하겠구나 이런 저런 생각을 해 본다. 전엔 의자에 우두커니 앉아 있는 노인을 보면 밖에 무엇하러 나왔느냐고 비웃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벌써 나에게 돌아 왔다? 몸을 추려 일어서 가려는데 친구가 잠바를 사 가지고 왔다. 거금을 주었다고 한다. 잠바 산 착복식으로 점심을 사겠다고 했다. 오래간만에 분위기 있는 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었다.

종로 교보문고로 갔다.

시집, 에세이, 소설, 홍수처럼 흘러나온 책들 몇 권을 뒤져 읽어도 전처럼 암기는 되지도 않을 뿐, ‘아, 이 시집’ 하고 감탄사를 느낄 마음의 감정도 없어졌나보다. 종이 내용만 목을 텅텅하게 할 뿐이다. 예 같으면 내가 좋아하는 시를 외우고 에세이의 좋은 구절을 메모를 했을 터인데 이렇게 공기 마저 받아들이지 못하다니 J친구는 아무 불편 없이 책들을 보고 있다. 전 같으면 친구가 가자고 몇 번은 했을 터인데 내가 먼저 가자고 했더니, 친구가 소리 없이 웃더니 「너 인제 시골 사람이 다 되었군. 이 탁한 공기를 적응하지 못해하니 말이다」 라고 한다.

서울에서 시골에 내려와 맑은 공기와 쾌적한 환경에 적응이 되었나 보다. 요즈음 언제부터인가 서울에 가끔 오면 피로가 앞서 몇 시간씩 버스를 타고 와 그런 줄 알았는데, 외출하면 서울 친구를 따르지 못했다. 시골에서는 자신이 운전을 하여 운동부족과, 맑은 공기와, 환경변화의 탓이었나 보다. 이렇게 습관이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몇 년 전 유럽여행을 갔다. 하루 한끼 정도는 한국 음식을 먹었다. 이렇게 한국 음식을 먹을 때는 일행은 환호성을 지르고 야단들인데 외국 버스 기사는 이때도 자기 나라 전통음식점으로 가 식사를 한다. 우린 이렇게 맛있는데, 허기야 지금 우리가 먹고 받아들이지 못하는 외국음식도 자기들의 입에는 최고 음식일 터인데 우리가 못 받아들이는 것과 같겠지. 어릴 때부터 자기 입에 뱀 음식 이상 맛있는 음식도 없을 것이다.

서산에서 모임이 있어서 서산토속 음식을 하는 식당엘 갔더니 개국지, 곰삭은 능쟁이젓갈 등 이름 모를 음식을 같이 간 일행은 모두 맛있게 먹는다. 나는 이곳 음식에 익숙하지 않아 그들이 먹는 것만큼 맛있지 않았다. 보편적으로 먹는 잘 한다는 식당만 못한 것 같았다. 이렇게 같은 백의 민족이지만 그 지방에 따라 문화와 풍습과 음식이 조금씩 달라 자기가 자란 곳의 입에 익은 음식이 제일인 것이기 때문이다.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변한 것이다. 시골의 풍속, 환경에 길들여진 것이다. 그리하여 서울에 가서 쇼핑을 하며 그 냄새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일 게다.

시골에 사는 분들이 서울 자녀들 집에 가서 빨리 돌아오는 이유를 조금 알 것 같다. 그래서 고향이 그럽고 고향을 그리워하는가 보다. 나는 오늘 내가 시골 사람이 다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시골에서는 언제나 타인인 것 같이 느껴왔는데 정말 이제는 시골 사람이란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서울에 오면 언제나 가기 싫어했는데, 오래간만에 빨리 시골로 내려가고픈 마음이 든다. 익숙한 차의 소음도 교통건물도 밀려가는 인파도 이제 싫고 낯설기만 한 것 같다. 차 소리 나지 않는, 네온사인이 없는, 한적한 시골이 오히려 익숙하고 편안한 것을 느꼈다. 귀소본능(歸巢本能) 역시 시골이 나의 영원한 고향인 것을……

隨筆・이 순 수

흠에서 와 흠으로 가야하는 인생이거늘, 오늘의 서울 나들이가 나를 일깨워 준 것이다. **瑞山文學**

까치의 수난

한 동 철

예부터 사람들이 오순도순 모여 사는 시골 마을에는 여러 종류의 새들도 둥지를 틀고 마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함께 느긋한 삶을 살아왔다.

그런 무리들 중 까치와 까마귀는 오랜 세월동안 우리 민족과 더불어 살아온 새라고 할 수 있는데 전설이나 민화 속에서 이들이 자주 등장하는 것도 우리 생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새였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삶의 테두리 안을 맴돌며 반가운 소식이나 불길한 징조를 전해주는 전령으로 여겨졌던 까치와 까마귀-반가운 소식을 전해준다고 굳게 믿었던 까치가 오늘날까지 그들의 존재함을 과시하고 있다면 불길함의 상징이었던 기분 나쁜 새, 까마귀는 언젠가부터 우리들 시야에서 사라져 버리고 지금은 찾아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까마귀가 떼지어 ‘까옥까옥’ 울면 동네에 초상이 난다든지 마을에 흉한 일이 생길 징조라 하여 삶의 매무새를 다시 한번 점검하게 했는데, 흉한 일이 생길 가능성을 그림자처럼 달고 다니는 현대인들에게 더 이상 불길할 정보를 알려줄 필요가 없게 되었는지 까마귀는 ‘오비이락(鳥飛梨落)’, 달랑 네 글자로 된 교훈만을 남겨놓은 채 슬며시 우리들 곁에서 사라져 버린 것이다.

까마귀 고기가 정력에 좋다는, 까마귀에겐 몰살선고 같은 뜯소문이 퍼졌던 십여 년 전부터…….

아침에 까치가 와서 울면
반가운 손님이 오신다지

사오십여년 전 소학교 국어 책에 나왔던 동시의 시구처럼
까치야말로 길한 소식을 전해주는 길조로서 사람들의 보호와
사랑을 한껏 받는 가장 친근한 날짐승이었다.

사시사철 마을이나 집 근처의 큰 나무 위에 등지를 틀고
우리네 일상사를 훤히 내려다보며 동거동락(同居同樂)해온
까치.

간밤의 긴 어둠을 밀어내고 찬란한 아침 햇살이 장지 틈을
비집고 안방으로 파고들 때, ‘깹깹깹’ 청량한 소리로 짙어대
는 까치 소리에 잠을 깨 눈을 비비며 상쾌한 아침을 맞이하
곤 했다.

새 날의 새 시작을 청아한 까치 소리로부터 출발하게 되니
설사 반가운 전령이 아니라 해도 이 날짐승을 경원시할 일이
야 있었겠는가.

까치는 그 자태 또한 이 민족의 정서와 깊이 닿아있다 할
수 있다. 다른 새무리들처럼 호화롭거나 아름다운 색으로 치
장하지 않고 언제 어디서나 쉽사리 눈에 떨어 수 있는 하얀색,
검정 그리고 남색으로만 단순 처리된 몸 색을 가지고 있으니,
조상들이 즐겨 입었던 백의민족의 백색으로 터질 듯 둥근 앞
가슴을 포근하게 장식하였으며 날개와 꼬리는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검정과 남색으로 물들어 무색 것을 즐겨 입은 선조들
께서도 까치를 더욱 사랑하셨으리라.

춘하추동 네 계절을 주민들과 어울리며 살아가는 까치는
동네 사람들과는 한 식구처럼 낮이 익었을 것이다. 그래서 낮
모르는 외지 손이 동네 어귀에 들어오면 그 낮설음을 짓는
소리로 온 마을에 알렸을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든 슬픈 소식이든 사람이 직접 찾아가 전해 주던 시절에는 궂은 소식을 갖고 온 손님이라 해도 손님만큼 이야 오죽이나 반가웠을까.

까치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며 심상찮게 짓어대면 어떤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다 하여 집 주변을 단속하는 경고음으로 받아들여지기도 하였다. 어른들은 굴뚝 근처나 켄늬리에 불이라도 나지 않았나 살펴보기도 하고 뱀같은 승악한 짐승이 울안으로 침입하지 않았나 살펴보기도 하였다. 특히 술조사(세무서에서 나온 단속반)가 나왔는지 여부를 살피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었다. 식량이 턱도 없이 부족했던 지난 시대엔 가양주 담그는 것은 국법으로 엄하게 금지되어 있었다. 그러나 조상들의 제사에 올릴 제주는 정성스레 집에서 담가 올려야 자손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었고, 집안에 대사가 있을 즈음이면 한 섬들이 술바탕이 두어 개에 식구들마저도 모르게 술을 담그곤 하였는데 이런 집들을 적발하기 위해 마을엔 종종 술조사가 나왔던 것이다. 소식은 삼시간에 이웃에서 이웃으로 전해지고 사람들은 술독이나 누룩을 감추기 위해 우왕좌왕, 어떤 집은 대문에 금줄을 치고, 어떤 집은 사립문을 걸어 잠그고 동구 밖으로 피난하기도 하였다. 이런 비상사태를 훤히 내려다보는 까치는 이 나무에서 저 나무 꼭대기로 난리난 듯 옮겨 다니며 미친 듯이 ‘까악까악’ 울어대었던 것이다.

불개 물든 저녁 노을이 내리는 땅거미에 덮여 소리 없이 스러질 때, 까치는 등지로 들기 전 저녁 인사를 보내곤 했다. 이제 밤이 되니 온종일 농사일로 지친 육신의 피로를 씻고 편안한 밤을 보내라는.

해 넘어간 뒤 짓는 까치소리를 하루의 석별을 고하는 인사로 받아들인 순박한 인정, 대화가 통할 리 없는 이 짐승과의

말없는 대화가 이 보다 더 정겨울 수 있었을까.

까치는 또한 책력에도 밝아 그 해에 부는 태풍이나 거센 비바람에도 끄덕 없을 튼튼한 나무를 골라 등지를 틀며, 천세력이나 만세력을 보지 않아도 그 해의 삼살방(三煞方)을 미리 알고 문을 내니 사람들은 집을 고칠 때, 토역일을 할 때 까치집 문 난 방향을 보고 손댈 일을 했다고 한다.

어디 그뿐이라.

칠석날 무렵엔 마을에서 까치의 모습을 볼 수 없었는데, 일년중 겨우 하루를 허락 받아 견우와 직녀가 만나는 날, 이들은 멀리 하늘 나라로 날아올라 두 연인이 만날 수 있도록 서로의 머리를 맞대어 오작교를 지으니, 이 까막까치 다리 위에서 만난 두 연인 아쉽게 헤어질 제 이별의 눈물이 비되어 뿌려 칠석날 새벽엔 가랑비가 오고 마을로 돌아온 까치들 머리털이 벗겨졌던 것이다.

까치까치 설날은 우리네 연중 가장 큰 명절인 설날 바로 전 설날 그믐 날로, 하고 많은 짐승들 중에 유독 까치에게만 설날을 부여한 조상들의 '까치 사랑'하며, 아이들은 '까치 설날' 동요를 부르며 색동옷 까치설빔 입을 설날을 손꼽아 기다리곤 했었는데.

너무 잘 발달된 문명의 소음들 때문일까?

이제, 그 때 듣던 그 까치소리, 잘 들리지 않는다.

제일 높은 가지에 안간힘을 쓰며 떨어질 듯 매달려 삭풍을 견디며 추위에 얼굴이 빨개진 까치 몫의 감도 찾아보기 힘들고 아이스케키가 생겨나기 훨씬 전부터 아이스케키처럼 오도독 깨물어 먹던, 초가지붕 추녀에 매달려 아래로만 자라던 수정 고드름도 찾아볼 수 없다.

온갖 매연으로 뿌옇게 흐려터진 하늘에선 엄마 품속처럼 따스할 것 같은 포근한 함박눈도 그리 쉽사리 뽕뽕 내려주지

않는다.

해마다 설달이면 설날 오기를 하루하루 헤이며 즐겨 부르던 '까치 까치 설날'도, 장롱 속에 고이 접어 간직해둔 설빔을 어서 빨리 입어 봤으면 하고 바라던 가난하던 동심도 우리 곁을 떠난 지 오래이다.

TV 뉴스에선 과실에 막대한 피해를 끼치는 까치를 잡아 주면 마리당 오천원씩 보상해 주겠다는 과수원 사장의 현상금 얘기가 보도되었다.

까치가 정력에 좋다는 헛소문이 또 퍼지기 전에 우리 모두 두 팔 걷어붙이고 까치 사냥에나 나서야 하지 않을까?

瑞山文學

교정을 거닐며

한 가을, 무엇보다도 별이 아름답다. 푸르디푸른 하늘과 뭉게뭉게 피어나는 흰 구름, 길 옆에 하늘하늘 피어있는 코스모스도 아름답거니와 지난 여름 가지가지에 충실한 잎새를 갖추고 한 여름의 영화를 만끽하던 잎들이 겨울 맛을 채비를 서두르는 양 알록달록 물들어 떨어질 날을 초연히 기다리는 모습은 정녕 아름답기만 하다.

날씨도 제법 선득거려서 점차 양지녘이 그리워지는데, 정오가 지난 대기는 따스한 기운으로 충만해 있어 햇볕도 쏘일 겸 교정을 거니는 일이 잦아졌다.

교정을 거닌대야 20여분도 채 안걸릴 넓지않은 면적이지만 구석구석 살펴보면 평소 접하지 못했고 느껴보지 못했던 작은 삶들이 찬가를 부르는 듯 나를 붙잡아 놓곤 한다. 일년 내내 누구의 손길도 미치지 않았을 후미진 곳, 풀더미 속에 피어 노오란 향기를 퍼뜨리는 앙증스러운 들국화의 작은 꽃송이들, 오직 자연의 돌봄만으로 자라 주저리주저리 작은 흑진주 같은 열매를 달고 있는 까마중.

‘자연 식품을 먹어 봐야지’

까마중 열매를 송아리째 훑어 입에 넣어 본다. 달콤하게 퍼지는 지난 기억들.

“선생님, 선생님 난 곧 죽을지도 모르겠어요. 혀가 보라색으로 변하면 죽을 징조라는데……”

까마중을 따 먹으면 입속이 온통 보라빛으로 물드는데 보라색으로 채색된 혀를 뽀로로 내보이면 깜짝 놀라서 어리둥절

해 하던 여 선생님, 그 모습을 떠올리며 혼자 미소를 지어본다.

밭길을 학교 교목인 은행나무 아래로 옮긴다.

이 학교와 더불어 나이를 더해 갔다면 90이 넘었을 아릅드리 은행나무 세 그루도 그 잎을 노오랗게 물들이고 있었다.

거의 한 세기를 이 자리에 서서 일제침략시대부터 이 날까지 변화하는 세상과 함께 나이테를 불리고 그 속에 이 학교의 역사를 차곡차곡 간직하며 자랐을 나무, 쪽쪽 뻗은 거센 가지에 촘촘히 매달린 잎새들은 하늘을 가리고 웬만한 바람이 불어서는 끄덕도 않을 품이 세상 쓴맛단맛 다보고 청탁을 가림없이 모든 것을 다 수용할 거룩한 성자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이 생각 저 생각에 젖으며 노오란 꽃들이 발디딜 틈도 없이 뻗뻗히 들어선 금계국 화단 앞으로 가 본다.

코스모스처럼 키가 크고, 꽃모양도 비슷하지만 꽃잎이 노란 이 꽃은 골든 웨이브라는 아름다운 본래 이름도 갖고 있다.

노란색 물감을 칠한 듯, 꽃밭에는 갓 피어난 꽃송이도 있지만 까맣게 여문 꽃씨들도 연약한 대궁 위에 매달려 살랑 바람에 꺾일 듯 휘청이고 있었다. 종이 고깔을 집어 꽃씨를 따 담았다.

‘금식실 남쪽 창가에 뿌려 두면 내년엔 잡초 대신 금계국이 자라 또 하나의 금계국 화단을 이루겠지…….’

두어 흙도 넘는 꽃씨를 금식실 창 앞에 뿌렸다.

지난 봄 새로 옮긴 교실 근처엔 서너평 뒹직한 공터가 있었다. 쓰레기와 돌 무더기가 지저분하게 널려 있기에 꽃이나 심어 볼 요량으로 돌 무더기를 정리하고 땅을 일구었다. 오랫동안 불모지로 굳어진 땅은 쉽사리 일궈지지 않아 비가 온

후에야 쇠스랑을 동원하여 두어평 정도를 간신히 일굴 수 있었다.

일군 가장자리엔 화분에서 자라던 은행나무 한 그루를 심었다. 주변엔 파리폴도 포기를 나누어 심고 수선화 알뿌리도 줄 맞춰 심고 비오는 날마다 분꽃 묘와 봉숭아 묘를 모종하였다.

‘잘 살아서 꽃이 피면 예뻐해줄 테고 죽어 버리면 너만 손해니까 알아서 해.’

아침마다 물을 주고 비 내릴 때 몇번 흠쳐다 준 비료덕인지 꽃들은 무럭 무럭 자라 작은 숲을 이루고 빨간 분꽃과 봉숭아가 어우러져 피었다. 보기 흉하게 늘어진 철조망 가닥엔 조롱박 넝쿨을 올렸더니, 호리병 같은 귀여운 조롱박도 서너개 열렸다.

이르게 핀 꽃들이 지고 뜨거운 여름햇볕도 사그러들 무렵 분꽃씨는 가뭇가뭇 익어갔다. 그러자 누가 시초했는지는 몰라도 앞 교실 일학년 아이들이 벌떼처럼 모여들어 꽃씨를 따느라 쉬는 시간마다 분꽃밭은 성시를 이루곤 하였다.

“일학년 애기들이 내 분꽃 밭을 초토화 시키네.”

담임 선생님들께 항의조로 말하면서도 얼굴에 낙서처럼 하얗게 분칠한 아이들의 천진무구한 모습을 보는 것은 큰 즐거움이었다.

한 보름쯤 지났을까? 이제 더욱 차가워진 날씨 탓인지 꽃들은 더 이상 피지 않았다. 아이들도 언제 그랬었는 양 분꽃밭을 밟은 듯 하였다.

점심을 먹은 후 햇볕도 쏘이고 꽃씨도 딸점 꽃밭으로 가져온 종자를 받다가 문득 급식실 앞 창가를 보니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금계국의 새싹들이 꼬물꼬물 고개를 쳐들고 땅밖으로 나

오고 있는게 아닌가.

‘아니, 벌써 나오면 어찌려고?’

жат았던 가을비를 봄비로 착각했던 것일까? 아니면 따뜻한 양지녘이라서 꽃씨속의 시계가 너무 빨리 돌아 갔을까?

‘내년 봄에나 나오겠드니 벌써 싹을 틔우다니? 머지않아서리가 내리고 모진 추위가 닥칠 텐데, 꽃을 피우기는 커녕 10센티도 못자라 얼어죽고 말 것을…….’

금계국의 어린싹을 보노라니 가련하고 애처러움에 꽃씨를 원망해 보기도 하였으나 이 또한 자연의 섭리일 것을 낸들 어쩔수 있으랴.

사실 나는 내년 봄에 그들이 태어나는 모습을 볼 수 없을 터였다. 교직을 마감할 날이 머지않았고 꽃들이 싹을 틔울 명년 춘삼월이 되기 전에 이 학교를 떠나야 될 것이었다. 서른해 교직 생활의 많은 부분을 이 학교에서 보냈고 이제 모든 마감 또한 이 학교에서라는 생각에 올 가을은 마음의 갈피를 잡기 어려운 계절이었다. 그래도 남은 시간을 잘 보내리라 마음을 다잡곤 하였다.

‘내가 떠난다 해도 꽃은 피어날 테고 아이들은 빨간 분꽃과 노란 금계국이 활짝 핀 꽃밭에서 나비도 따라 다니고 꽃씨도 따며 꽃처럼 예쁜 마음을 키우며 자라나겠지. 봉숭아꽃을 따서 새끼손톱에 꽃물도 들이며 빨간 꽃물이 손톱에서 사라지면 아이들도 그 만큼 자란 거겠지.’

나의 바람이 거품처럼 사라졌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추위에 오돌오돌 떨고 있는 잘못 태어난 새싹들. 곧 닥칠 겨울의 혹한 속에서 꾸녕 한 마디 못하고 얼어 죽고 말 어린 싹을 보노라니 마음이 아팠다.

그러나 한편 생각하면 내가 뿌린 꽃씨가 나를 위해 아름다울 앞 날의 제 삶을 포기하면서까지 모습을 보여주려고 했

구나 싶어 꽃씨의 가혹한 마음씨에 눈시울이 붉어질 정도였다.

‘그래도 아직 많은 꽃씨들이 차가운 땅 속에 묻혀 내년 봄이 오기를 기다리며 저희들끼리 도란 도란 속삭이고 있겠지? 아무리 추운 겨울 추위에도 희망만은 고스란히 간직한 채 피어날 날을 기다릴 거야. 애들아, 안녕!’ 瑞山文學

폐교에서

한 낮이라고는 해도 시린 기운이 떠돌기 시작하고 어디론가 날아가는 기러기 울음 소리는 소슬한 바람 소리와 함께 초겨울 기운을 한층 더 흔들어 깨웁니다.

누군가라도 맞이하고 싶은 양 열려진 교문, 안으로 들어가니 한 살이를 마감하고 누렇게 빛바래가는 풀더미 속에 세종대왕이 앉아 계셨습니다. 반대편 화단에는 이순신 장군께서 큰 칼 옆에 차고 쓸쓸한 이 학교를 지키며 서 계셨습니다.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

이승복이도 책보를 옆구리에 낀 채 동무들을 기다리며 서 있고 독서하는 소녀도 하얀 모습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침상대도 서 있고, 오층탑도 서 있고, 신라 백제부터 조선이 한 자리에 숨쉬고 있는 이곳에 재잘재잘 떠들며 장난치는 아이들 모습이 보일 듯도 한데 낙엽만 뒹구는 텅빈 운동장. 그래도 ××초등학교라는 문패는 여전히 붙어있어 활기차던 옛 모습을 떠올리게 하였습니다.

아이들도 떠나고 선생님들도 떠나버린 빈 터, 국기 게양대 높은 곳에 펴려이던 태극기 모습도 보일 리 없는 이 폐교가 꼭 유령이나 나올 듯 느껴지는 이 기분을 형은 아마 가늠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J형

해방과 전쟁 이후, 문맹 퇴치를 위해 가마떼기를 깔고 호롱불 밝혀 ‘가이가 거이겨’를 외우며 야학으로 문을 열었던 이 학교가 그때 그 야학생들이 이제 허리 굽고 등 굽어 주름

진 몰골로 현 시대적 효용 가치가 거의 사라진 오늘 학교 역시 똑같은 신세가 되어 그 이름이 학교 호적부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땡땡땡’ 울리던 학교 종소리에 무럭무럭 피어오르던 종달새 보리밭의 보리 내음도, 선생님 오르간 소리에 맞춰 뚝뚝뚝 울던 뚝뚝새, 따오기도 자취를 감춘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래도 학교만은 새롭게 단장하고 쌓이고 쌓여가는 기억들을 낡은 캐비넷 속에 차곡차곡 간직하며 바뀌는 해마다 새 아이들을 맞고 일년동안 같은 키로 자란 아이들을 똑같이 한 칸씩 올려 보내며 마을에선 제일 크고 높은 집임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서 있었습니다.

그 품에서 자란 코흘리개들이 어엿한 국민이 되고 짝을 찾아 맞추어 태어난 새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를 찾을 때 학교는 대견하고 흐뭇한 마음을 펴려이는 태극기로 환영하곤 하였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밥끓던 시절이 까마득한 옛 얘기가 되어 기억에서 사라지고 몸도 마음도 새 것을 걸쳐야 한다고 야단들이더니 학교에도 드디어 바람이 몰아쳤습니다.

너도나도 일찌구나 고향을 등지고 멍텅구리나 땅을 파먹으며 부모를 봉양하고 땅을 지키는 세상이 되자 교실을 채울 아이들조차 구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열한명씩 되어야 축구 경기를 할 수 있는 것처럼 몇 안되는 아이들만으론 학교를 유지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게다가 남아론다는 선생들은 이제 예산만 축내는 거추장스런 존재로 퇴락하여 정리해야 할 대상이 되었습니다.

마을 제사집에 축문을 써주고 가르친 제자들 결혼식에 주례를 서던 선생님들은 돈과 권력이 판치는 살기좋은 세상이 되자 촌지나 받아먹고 폭력이나 휘두르는 속아내야 될 인간

대열로 도매금으로 넘어가고 제자들은 112를 돌려 그들의 배움터에서 저희들 선생을 순찰차로 잡아가게 하고는 박수를 쳐했습니다.

우리 나라 좋은 나라, 아아 대한 민국 안에는 얼마나 많은 선생님들이 있고 그 많은 중에 존지를 받을 수 있는 행복한 선생들은 얼마나 많을까요? 무턱대고 폭력이나 휘두르는 폭력교사는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존지를 받고 폭력을 사용하는게 정당화될 수 없다는거야 삼척동자, 미륵장승이라도 다 아는 일이지만 걸핏하면 ‘억’소리가 사회의 예서 제서 판치는 판에 존지를 받았으면 몇 푼을 받았겠으며 돈과 권력이 야합하여 일 순간에 몇 십명씩 어린 생명들을 화장시키는 터에 폭력을 휘둘렀으면 얼마를 휘둘러 댔겠습니까?

그저 약하고 멍청하리만치 순종만 하며 살아온 선생들은 너도 나도 돌아가며 패대도 되는 동네 복인 양 정부도 언론도 학부모도 학생들도 온 나라안이 온통 ‘선생 죽이기’에 살판났으니 이를 어쩍니까?

돈도 없고 힘도 없고 과거부터 그랬듯이 그저 ‘제발 죽어지이다?’

이제 곧 새로운 천년이 시작된다고 떠들어 대는데, ‘국가 백년지대계’를 위해 그토록 죽을 짓을 한 선생들이 제 정신을 갖고서야 어떻게 교단을 지켜나가겠습니까?

J형

선생이란 부끄러운 직업을 가진 죄로 제대로 어깨 펴고 거리를 나다닐 용기도 없고 천직이라 여기고 밥만 먹으면 늘 서던 교단에의 애착도 춘삼월 봄 눈 녹 듯 사르르 녹아버려 많은 선배, 동료 교사들이 왜사리에 썰물 빠지듯 교단을 빠져나갔습니다. 어쩔 수 없이 남아 있는 교사들이라 한대도 그

몰골이 오죽하겠습니까?

‘수요자 중심 교육이니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너무도 지당하신 말씀이구 말구요. 그러나 교육이 어디 시장 구텡이에서 이루어지는 상행위입니까?

공급자가 아무리 공급하려하나 수요자가 수용하기를 거부하면 시장 경제 논리에 따라 공급을 중단해야 합니까? 체벌을 해서라도 강제로 수용시키려 한다면 그것도 폭력입니까?

학부모에게 뺨이나 맞고 교장에게 질책이나 당하며 폭력 교사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문제 학생들을 올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열빠진 교사들이 있다면 그런 녀 나간 교사 밑에서 교육받은 학생이 오죽하겠습니까?

못 본 척 모르는 척 외면해 버리면 마음 편하고 문제되지 않을 일을 빗 때문에 싫은 소리 들어가며 열정을 바치겠습니까? 그런 풍토를 조성한 것이 누구이며 그런 여건에서 교실이 붕괴되는 것이 어찌 선생님만의 책임이랄 수 있습니까?

J형.

어떻게 해야 좋은 노릇인지, 그 방도가 뭇인지 좀 제발 가르쳐 주십시오.

‘그래도 사명감을 갖고 굳굳이 나가야 교육이 살지.’

어린 애기 타이르는 사명감같은 말씀을 하시려면 아예 접어두십시오.

엿그제 C일보 기자 수첩에 KAIST교수의 토론회 발언 내용이 실렸었습니다.

“음악 학교, 체육 학교처럼 SOFTWARE 특수 학교를 만들어 인재를 키우자. 단 이걸 교육부 밑에 두면 망하니 정통부나 과기부 산하에 두어야 한다.”

이게 웬 경천동지(驚天動地)할 말씀입니까?

학교를 교육부 밑에 두면 망한다니 그런 말씀하신 그 교수

님 요즘도 안녕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원로 교사 한 명을 자르면 유능한 젊은 교사 들을 쓸 수 있다더니, 원로 교사들이 거의 교단을 떠난 지금 별의별 짓을 다해도 채워지지 않는 부족 교사는 또 어인 말씀입니까?

삼십년 남짓 교단에 서면서 ‘교육자’나 ‘스승’이란 단어를 입에 올리기가 거북스럽고 부끄러웠고, 꽤 길었던 여정에 이렇다 할 족적을 남긴 것도 없이 떠나는 자가 뭐 그리 할 이 야기가 많겠습니까마는.

사람들이 묻곤 하였습니다.

“십년도 더 남은 교직을 떠나서 무얼 하려고?”

“염소나 한 마리 끌고 폐교 운동장에 가 풀이나 뜯기며 살지.”

빈 국기계양대 너머로 피어나는 뭉게구름도 보고 심심하면 세종대왕, 이순신 장군, 하늘나라 송복이와 얘기도 나누고 그래도 심심할 땐 노래도 부르고.

‘내 - 고향 가고싶다. 그 - 리운 언덕

동무들과 함께 올라 뛰 - 놀던 언덕

오늘도 그 동무들 언덕에 올라

매아리 부르겠지 나 -를 찾겠지.’ 瑞山文學

토산불알을 찾다가……

남 정 화

나는 서산시 예천동에서 연탄을 배달하던 창길이라는 친구를 근 10년간이나 찾아다닌다. 그런데 창길이라는 이름대신 동네에서는 토산불알이라고 불려오고 있었다. 사실은 창길이라는 이름도 애나 어른이나 과부, 처녀 가리지 않고 토산불알이라고 부르는 것이, 좀 뭐 하다고 연탄집 상민이 엄마 김오곤 여사가 지어준 이름이다. 어쨌든 어딘가 좀 부족한 구석이 있는 놈이지만 나는 창길이의 그 순박한 마음에 끌려 종종 술도 사주고 담배도 사주면서 그놈이 연탄 배달을 할 때, 외간남자와 노닥거리던 계집X들의 해괴망측하고 낮간지러웠던 꼬락서니를 땅바닥에 누었다 일어섰다 엎드렸다 앉았다 그 시늉을 다 해가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즐겨 들으며 정이 폭 들어온 터였다. 그러던 어느 날 항상 내 가슴에 응어리져있는 그 대구 개구리소년이 생각나기에, 그놈하고 들어서 소주를 마시다가 울적한 마음에 토산불알에게 연탄 배달하며 매일 술이나 얻어먹지 말고 그 기막힌 대구 개구리 소년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여느 때와 같이 일장 훈계를 하고는, 지금 당장 나가 찾아오라고 그 날 따라 좀 과격하게 호통을 쳤더니, 이놈이 벌떡 일어나 킁킁 울다가 개구리 개구리하며 뛰쳐나간 후 돌아오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던 중 작년 가을에 Y대학병원에서 꿈같이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후에는 더더욱 이놈이 보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었다. 오늘도 토산불알 창길이를 찾아 헤매던 나는 관악산 기슭의 서울대학교에 까지 오게 되었다. 나는 감격스러웠다.(여기가 그렇게도 가고

프
로
트

싶던 서울대학교로구나!) 학교 정문 앞에 서서 그 광대한 캠퍼스를 바라보니 서울대학교의 이미지가 더욱 새로워지는 것이었다.

서울대학교!! 아! 서울대학교!!

나는 종종 서울대학교가 아니었다면 우리 나라가 지금 어디쯤 가고 있을까를 생각할 때가 있다. 나는 서울대학교가 있기에 우리 나라가 있고, 우리의 미래는 서울대학교에 달려 있다고 굳게 믿는 사람이다.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사람을 보면 측은한 생각이 들면서 아주 어리석은 인간으로 치부해 버린다. 그 이유는 너무나 손쉽게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나라를 쥐고 흔드는 국회의원, 장관, 판사, 검사들이 어느 학교 출신인가를 보면 너무나 뻔한 결론이다. 이렇게 국가의 장래가 좌우되는 막중한 자리를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거의 다 차지하고는 좌지우지하고 있는데도 그렇지 않다고 반대하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는가 말이다. 나는 그 출중한 인물들을 배출한 서울대학교가 위치해 있던, 원 터에 가서 그 지형을 한 번 살펴보고자 서울 동숭동의 대학로에 있는 마로니에 공원을 찾아갔다. 우람한 아름드리 나무가 뽕뽕이 들어선 공원 안에는 가지각색의 군상들이 무료한 시간을 썩어 삼키고 있었다. 먹이 찾아 방장을 떨며 돌아다니는 비둘기만을 표정 없이 바라보고 앉아 있는 한가하고 심난한 사람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공원 벤치를 거의 메우고 있었다. 한 손에는 비를 들고 두 눈을 이리 돌리고 저리 돌리며 씨부렁거리는 미화원에게 서울대학교의 모형이 있는 곳을 물어 찾아가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정문 옆 야외 공연장 쪽에서 팽과리 소리가 들리더니 여자의 날카로운 금속성 음이 들려왔다.

“모여라! 모여라!”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모여라!”

그녀는 팽과리를 한 참 친 다음, 같은 말을 또 계속 외치는 것이었다. 마로니에 공원에 모인 한가하고 심난한 군상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었다. (아니, 서울대학교에 넣어준다고?) 귀가 번쩍 띄었다. 나는 단숨에 뛰어가 맨 앞줄을 차지했다.

착 달라붙은 청바지에 검정 배꼽 T셔츠를 입은 30대 초반의 팔등신에 가까운 미인 타입이다. 허리를 뒤로 제치고 팽과리를 칠 때나 핸드마이크로 외칠 때마다 배꼽이 쑥쑥 드러나는데 그게 아주 일품이었다. 그 때문인지는 몰라도 그리 넓지 않은 야외 공연장이기는 하지만 순식간에 발 디딜 틈도 없이 주위를 꽉 메웠다. 자리를 찾느라고 이리 기웃 저리 기웃거리는 사람들을 보니, 재빨리 뛰어와 앞자리를 차지한 내가 대견스러웠다. 나는 기웃거리는 사람들에게 나를 과시하기 위해, 앞에는 자리가 전연 없다는 표시로 공연히 일어나서 뒤를 향해 두 손을 흔들며 고개까지 설레설레 흔들어 보였다.

잠시 후 배꼽 T셔츠의 여자는 청중이 기대한 만큼 모였고 생각이 들었던지, 눈을 지긋이 감고 잠시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는 듯 하더니, 핸드마이크를 오른 손에 들고 청중을 좌우로 죽 훑어보고는 하얀 이가 살짝 보이도록 생긋이 웃으며 시작하는 것이었다.

“여러분! 여기에 왜? 오셨습니까?” 그녀는 배꼽 T를 훌쩍 걷어올리며,

“이 못난 배꼽을 보려고 오셨습니까? 아니면 이 팽과리 소리가 듣고 싶어서 오셨습니까?” 나는 그녀의 말이 끝나자마자,

“둘 다요!” 하고 큰 소리로 대답했다.

“아저씨는 서울대학교란 말에 호기심이 생겨서 오신 것 같은데요?”

“맞아요! 바로 그겁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가 앉으며 절규하듯이 대답했다.

“여러분! 지금 우리 나라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녀의 질문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중년 신사가 대답했다.

“IMF 탈출 아십니까?”

“좋습니다. 또요?”

“휴전선입니다.”나이가 꽤 많은 할머니의 대답이다.

“좋아야. 또요?”

“다 좋습니다만 가장 시급한 것은 부정 부패의 척결이라고 생각합니다.”대학생 풍의 키가 훗칠한 청년의 대답이다.

“분수를 모르는 낭비와 사치 풍조의 추방입니다.” 파마를 한 50대 주부의 대답이다. 배꼽T는 “맞아요 맞아” 하더니 나를 바라보면서,

“아니 제일 먼저 앉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계신 아저씨는 왜? 묵묵 부답이십니까?” 하며 나를 일으켜 세운다. 실은 나도 찬스를 기다리고 있는 참이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럼 저도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신 말씀들은 모두가 정답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큰일났습니다. 정말로 큰 일이 전국 방방곡곡에서 터지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우리 나라는 지금 교육부재입니다. 교육이 없다고요. 학교는 있어요. 교실도 있고요. 선생님도 있어요. 그러나 교육이 없어요. 이거 어찌지요? 교육부재면 국가 필망입니다. 교육이 없으면 국가가 망한단 말입니다. 학교에 한 번 가보세요. 학생은 무질서와 부도덕의 극치이고, 교사는 탄식과 포기 와 방관, 학부모는 항의와 이기심과 아집…….

아수라장이 무언지 아십니까? 이 때, 검정 배꼽 T가,

“그만! 그만 하세요. 앉으세요. 아저씨께서 이 앞줄에 앉으

실 때부터 좀 달리 봤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지금 말기적 현상입니다. 선생님들이 교실에 들어갈 땐 전장에 나가는 심정이랍니다. 그래서 전투에 임하는 각오로 교실에 들어간답니다. 학교 현장에서 벌어졌던 많고 많은 기막힌 일 중에 하나만 소개할까요? 학생이 복도를 지나가는 여 선생님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고는, 이를 나무라는 그 선생님을 부릅뜬 눈으로 바라보며 ‘이 여자 생사람 잡네’ 하드래요. 아니 학교가 왜 이 지경이 됐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 모양입니까? 저는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 이유를 말씀 드리겠어요. 서울대학교 때문입니다. 서울대학교 때문에 우리 나라의 교육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서울대학교를 없애야 한다~ 이 말입니다. 뭐 잘못된 것 있습니까? 서울대학교만 없애면 교육 문제는 완전히 해결됩니다.”

나는 너무나 기대에 어긋나는 말을 하는 그녀에게 다가가 핸드마이크를 낚아채 가지고

“나는 서울대학교에 가고 싶은 사람은 다 모이라기에 평생 소원을 풀어보고자 이렇게 맨 앞줄에 앉아 대기하고 있는데, 이 무슨 똥판지같은 소립니까?” 하고 항의 조로 물었다. 그러나 그녀는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지금 우리 나라는 서울대학교엘 가야만 출세가 보장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학생들이 서울대학교에 가지 못 할 바에야 공부해 무엇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학교 꼴이 이 꼴이지요. 학교를 이 꼴로 만들어 놓은 원인 제공자가 서울대학교 아닙니까? 처방이 나왔어요. 암세포를 도려내면 정상화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지금 국가기관의 요직에는 거의 서울대학교 출신들이 차지하고 있는데도 나라가 이렇게 어수선한 이 때, 만약 서울대학교를 없앤다고 생각해 봅시다. 안됩니다. 생각만

해도 아절합니다. 절대 안됩니다.”선글라스를 끼고 계속 팔짱을 끼고 서있던 중년 신사의 옆변이었다.“

나도 서울대학교를 없애자는 발상에는 도저히 찬성할 수가 없었다. 그 때 번뜩 내게 기발한 아이디어 하나가 떠오르는 것이었다. 나는 엉겁결에 배꼽 T님! 하고 손을 번쩍 들었다. 그 때 배꼽 T가 손짓으로 일어나 발표하란다.

나는 핸드마이크를 들고 웅성거리는 청중을 진정시키기 위하여 땀을 좀 들인 다음 천천히 말을 시작했다.

“서울대학교를 없애다니요? 절대 반대입니다. 나라가 마비된 다구요. 정계나 재계 언론계 할 것 없이 서울대학교 판이라는 것을 모르십니까? 그런데 서울대학교를 없애요? 그런 망국적인 발상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나는 서울대학교 수를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각 시·도에 한 개씩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우뢰와 같은 박수와 함께 함성이 터져 나왔다.

“웁소! 웁소! 저분을 국회로 보냅시다! 아니오 교육부장관으로 보냅시다!”

“청와대감이다!” 청중 모두가 일어났고, 박수와 함성이 끊임 줄을 몰랐다.

배꼽 T도 청중 따라 박수를 치고 함성을 외치며 열심히 호응하더니 내 핸드마이크를 받아 가지고 손을 아래위로 흔들며 청중을 앗힌 다음.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동감입니다. 베리 베리 굿 아이디어입니다. 저도 오죽 교육문제에 고민을 했으면 있는 돈 없는 돈을 다 털어서 JER, AER, ZER, IER 등의 연구기관에 용역을 주었겠습니까? 저는 앞으로 이 네 연구기관을 그 연구소 이름의 첫 글자를 따서 JAZI연구소라고 줄여서 부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축하해 주십시오. 오늘 만족할만

한 연구 결과가 JAZI연구소에서 제게 통고되었습니다. 네 연구기관의 연구 결과가 글자 한자 안 틀리고 똑 같으니 아, 이보다 더 만족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뻐해 주십시오. 얹히고 설킨 우리 나라의 교육문제는 이제 해결되었습니다. 아주 만세 만 만세입니다. 자, 여러분 이걸 좀 보십시오.” 그러더니 배꼽 T는 커다란 여행용 가방을 열어 인쇄된 한아름의 A4 용지를 꺼내들고서,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는 누가 질문 한 마디 던질 새도 없이 좋아서 펄펄 뛰는 기세로 그 A4 용지를 산지 사방으로 뿌려대는 것이었다. 뭔가 긴급 뉴스를 알리는 신문 호외를 신나게 뿌리듯이 말이다. 그러자, 숨죽은 듯이 배꼽 T의 말을 듣고만 있던 그 수많은 관중들이 일제히 환호하듯 일어서는 것이었다. 그리고는 모이를 보고 우 물려가는 비둘기 떼처럼 허공에 훅날리는 A4 용지를 남보다 먼저 줍기 위해 거의 결사적인 동작들이었다. 나도 그들에게 질세라 관중 속을 비집고 돌아다니며 가까스로 겨우 한 장 주어 들고는 가쁜 숨을 몰아 쉬며 예의 A4 용지를 썩 펴 들어보았다. 순간, 금방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A4 용지의 그 생동하는 활자들이 나의 시선을 왈락 끌어당겼다.

나는 흡사 우리 시대의 복음이라도 되는 양 몇 번이고 읽고 또 읽었다.

〈JAZI 99-9 연구보고서〉

학교 교육 정상화를 위한 개선 방안
전국의 모든 대학교의 교명을 서울대학교로 변경한다.
그러면 우리 나라의 모든 대학은 서울대학교뿐일 것이니,
자연히 학교 교육은 정상화 될 것임. 끝.

JER.AER.ZER.IER 연구소 대표 J A Z I

瑞山文學

사 탕

윤 용 문

술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용만은 오늘도 술집에 앉아 지칠 줄 모른 채 왁자지껄 떠들며 해가는 줄도 모른다.

화장실에 가려고 밖에 나오니 해가 서산에 걸쳐 있다.

아차 싶어 급히 집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빨라진다.

농촌에서 열심히 일해도 일손이 부족할 지경에 동네 일이 네, 친목회입네 하루같이 돌아다니니 가족들이 좋아할 리 없다.

오늘도 아침에 콩을 털어야 한다며 마당에 가득 널어놓고 나왔는데 이미 해는 저물어 다 건우기는 틀렸고 마누라의 바가지에 아버지의 걱정을 들어야 하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

아버지는 얼마전 대 수술을 하시고 어머니마저 돌아가신 뒤 부쩍 어려워하신다 말씀도 많아지시고 얼굴만 마주쳐도 몸이 아프다고 하소연하신다.

집이 가까울수록 아무도 마주치지 않았으면 하는 기대를 하면서 마당에 들어서자 콩 다발을 안고 일어서시는 잔뜩 찌푸리신 아버지 얼굴과 마주친다. 무슨 말을 하실 듯 하여 선수를 친다.

“어디 아프슈?”

“아이고 허리도 아프고 아나푼디가 읊다.”

“편찬으신디 뭐러 허시너라구 그러슈”

“안허면 누가 헐다니?”

할 말이 없어 얼른 콩다발을 받아들다 보니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오늘따라 유난히 한 쪽 볼이 부은 것이 보인다.

“이빨 아프슈?”

“이빨두 아프구, 안 아픈디 있간”

“마니 아프슈?”

“아이고 죽것다”

“잇몸이 부었나 불이 마니 부으셨슈”

하며 불에 손을 가져간다.

아버지는 겸연쩍게

“으응, 사탕 물었다.” 瑞山文錄

비 료

심한 갈증에 용만은 눈을 뜬다.

아직도 덜 깬 어젯밤의 술이 정신을 몽롱하게 한다.

비척이며 일어나 냉장고에서 냉수를 따라 벌컥벌컥 마시며 배를 쓸어 내린다. 창문을 열고 밖을 보니 아직도 캄캄하다.

시계를 보니 네 시 반

어젯밤 취중에도 마누라의 잔소리가 귓가를 맴돈다.

어제 아침에 마누라가 일기예보에 비가 온다고 했으니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마늘밭에 비료를 주라며 신신당부를 했는데 비료 사러 간다고 나가서 비료도 안 사고 술만 잔뜩 취해서 밤늦게 들어왔으니 꽤나 심했을 텐데 기억이 나지 않는다.

지기 싫어하는 성격에 친구들과 어울려 쓸데없이 세상일에 열을 올리며 논쟁을 하느라 술독에 빠져 돌아왔다.

“우-엑”

자꾸만 헛구역질을 하며 주섬주섬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밖으로 나간다.

날씨는 잔뜩 찌뿌려 금방이라도 비가 올 것 같다.

이제 밝을 시간이 된 것 같은데 캄캄하기만 하다.

비료는 사오지 않았으니 있을 리 없다. 문득 어제 이웃에 사는 당숙이 비료를 사오는 것을 본 생각이 나 당숙 댁으로 향한다.

혹시 당숙이 깨지 않을까 문간 옆 어둠 속에서

하얀 푸대를 더듬어 지고 마늘밭으로 향한다. 날은 흰히
밝아오는데 비가 오기 전에 빨리 줘야 한다는 생각에 서둘러
비료를 주기 시작한다.

반쯤 주었을까, 누가 부르는 소리에 돌아보니 당숙이 뭐라
소리를 치며 달려오신다.

“뭐라구유?”

“야! 자네 그거 조금 아닌가? 비료는 그냥 있고 조금 푸대
가 없어졌어”

“.....”

瑞山文學

아아 白頭靈山

이 영 하

1. 延吉 가던 날

지난 봄 초등학교 동창 모임에서 우연히 던진 말이 이내 성사되면서 올해 동창회는 여름 백두산 근처에서 열게 됐다는 농담들이 오갔다.

점차 출발 일이 임박해 오자 손등에 돌아난 무사마귀처럼 은근히 신경이 썩인다. 대학수능시험을 앞둔 고 3짜리 학생의 심정이라 할까. 역사책과 기행문들을 차례로 내리 훑고 그 간에 TV에 방영됐던 기록물은 물론 생소한 중국의 생활 용어에도 소홀하지 않았다.

서울 문턱에도 가보지 않은 시골 사람이 한강다리 난간 수를 안다는 식으로 현지 가이드의 설명을 능가할 정도로 백두산의 지식이나 조선족 개척역사에 밝아야겠다는 해도 좋고 안 해도 그만인 부담 때문이었다. 하기가 여행이란 자기가 아는 정도만큼만 보인다는 말이 있지만.

'99년 6월 16일 오후 13:50 김포공항을 출발하기로 정해진 중국의 민항기는 무슨 사유에서인지 25분 후에야 서서히 이륙을 했다. 앞쪽에서 60대 중반의 남자승객이 비행기 늦게 뜬다고 애매한 안내양을 향하여 떠들어댄다. 기내의 많은 한국인이나 약간의 중국인 승객들 모두 소, 닭 보듯 할뿐.....

포식한 고래처럼 잡다한 생각을 품은 행객들을 가득 실은 은빛 비행기는 구름장 흐르는 공중을 유영하듯 날은다. 양 극지의 빙산 모양도 닮았고 태고적 설산 풍경과도 비슷하며 때

로는 부드러운 숨 터널 속을 빠져나가서 인지 그리 무료하지
만은 않다.

직행 버스로 서산에서 천안까지 소요되는 두 시간만에 열
기 후끈한 북경 공항에 내려앉는다. 미루나무와 수양버들만
이 드문드문 서 있고 참초 깔린 활주로와 난달만 바라보다가
넓고 촌스런 공항 안에서 1시간 30분을 기다린 17시 45분에
야 다시 延吉행 비행기에 올랐다. 승객은 섞임 없는 한국인뿐
인데 알아 들을 수 없는 기내 중국어 방송이다. 인사 몇 마디
한국어로 한다고 큰 비용 드는것도 아닌데 ‘에이-하루바빠
38선 상공 직선으로 날아가는 날이 와야해, 녀두리가 나오
다.’ 작고 낡은 비행기에 마음이 쓰여 눈을 자꾸만 아래로 향
하는 동안 1시간 40분만에 서늘한 기운이 스며드는 연길 비
행장에 도착한다.

1985년 개통되었다지만 마치 근래에 테이프를 끊은 듯 산
뜻하여 잡쳤던 기분이 전환된다. 연변시를 둘러싼 두툽한 능
선은 판화의 선처럼 기복이 없이 밋밋하게 보인다. 일행을 실
은 중형버스가 호텔앞에 몇자 제복을 입을 청년들이 정중히
인사하고 짐을 나른다.

대우그룹회장 김우중의 부인이 짓고 운영한다는 이 호텔
은 연길 최고급이라 소개하기에 머릿들을 보니 1996년 6월 1
일 定礎라고 새겨 있다.

입으로는 음식을 눈은 연변가무단에 보낸다. 서울찬가, 화
개장터, 돌아와요 부산항, 아리랑, 고향의 봄등 정수라 조영
남, 조용필, 설운도, 김세레나 등의 모창이지만 그들을 능가
할 정도의 열창이다. 북한의 혁명가 음조가 가미되어 묘한 느
낌을 주는 것 같다.

연길시의 아침은 벌써 선득선득하니 초가를 날씨인데 거

리를 오가는 자전거의 물결이다. 중국에서 광주시 다음으로 많아서 집집이 두 세대 풀이고 1인 1대씩 가지고 있어 연길 시에는 323,000대의 자전거를 보유한 셈이 된다. 우리를 태운 전용 중형버스는 아침 시장이 열린 도로 가의 소박한 저자거리를 서서히 지나 시가지를 벗어나자 속력을 내기 시작한다.

연길시의 겉 모습은 개발이 한창이었던 70년대 초기 한국의 어떤 지방도시를 보는 듯 투박한 시멘트 건물들이 여기저기 서지만 도색이 안돼 우중충한 회색도시이다. IMF바람이 이곳까지 불어와서 짓다만 건물들이 가끔 눈에 띈다.

2. 白頭山 가는 길

비포장 도로를 6시간 달려 백두산에 당도해도 운이 따라줘야 천지를 볼 수 있다는 가이드 최창호(연변대 출신)와 한족 운전기사에게 장도의 안전운행을 부탁하는 박수를 보낸다. 연길시 동남쪽 고개를 넘자 오른쪽 구룡 따라 길게 이어진 남향 기슭에는 모두 과수원이다. 이 농장이 동양 최대요 세계 제2의 규모를 자랑하는 사과, 배 밭으로 사과나무에 배나무를 접목하여 사과와 배를 합한 향미를 낸다는 독특한 과일이다. 주민들에게 일정한 수(50주)를 분할 재배 관리한다는 설명이나 수세로 볼 때 거름기가 부족한 것 같고 전지 기술도 낙후된 것 같아 질과 양에서 떨어질 것 같다.

용정시에 이르는데 30분이 걸렸지만 노래 선구자에 등장하는 용우물, 해란강, 일송정, 비암사는 오는 길에 보자며 그냥 지나가기로 한다. 도로가의 논밭들은 거칠기는 하나 토색도 괜찮고 거름을 잘 받을 수 있는 토질이다. 몇 잎씩 갈라져 바람에 나풀거리는 옥수수와 한 뼘쯤 자란 콩이 정성껏 가꾸어져 있고 조각 논에도 뿌리를 잡고 한창 가지치기중인 벼들

이 물밀을 가린다. 맞은편 구룡자락에 매어둔 소들도 살이 올라 제법 통통하고 그 위쪽으로는 불록불록한 봉분 앞에 시멘트 비석이 세워져 조선족 묘지임을 짐작케 한다.

한국의 남쪽 지방처럼 들판 가운데나 산 밑에 웅기종기 물려 있는 부락들은 한눈에도 조선족과 한족의 가옥을 구분 짓게 한다. 합각 지붕에 흰 벽은 조선족 가옥이고 맛배절이에 붉은 벽돌집은 한족 집으로 거리를 두고 두서너 집씩 보인다. 담장 대신 쇠울타리가 눈에 익다. 바라만 봐도 먼 일가친척들이 사는 동네에 나들이 온 듯 정겨운 마음이 든다.

해란강의 시원인 실개천이 흘러나오는 백운평에 들어서니 1920년 10월의 통쾌한 전황이 떠오른다. 긴 골짜기 안에 일본군 연대 병력이 들어서자 서쪽산록에 잠복해 있던 홍범도 장군의 독립군과 동쪽에 매복한 이범석 장군 부대원들이 김좌진 상령관의 지휘에 따라 일시에 토끼몰이 식으로 양편에서 협공 작전을 취하여 대승을 거두었던 그 유명한 청산리 싸움터이다. 대패한 일본군은 그 보복으로 부락을 불지르고 뺑뺑이 들어찼던 원시림을 삭벌하여 80년이 지난 계곡에는 활엽잡목만 우거지고 무심한 흰 구름만이 떠 돈다.

저만치서 트럭이 보이면 모든 차량들은 그 차가 지날 때까지 노면에 정차하였다가 40~50M의 비자나무 1개를 실은 트럭이 지나서야 다시 운행을 한다. 이러한 트럭을 가며가며 여러대 만난다. 벌써 10여 년 전부터 들던 이야기인데 여전히 계속 베어져 나가는 것이다.

차는 길림성 이도백하 고려음식점 앞에서 멈춘다. 마을과는 거리를 두고 있는 이 단독건물 식당에서는 미리 준비한 생 두부와 푸른 배추김치, 부루쌈과 숙성된 된장, 무생채, 콩나물 무침이 놓여지고 밥과 토장국이 나오더니 닭백숙까지

올려진다. 투박한 그릇 류나 음식 담음 새는 불품이 없지만 어쩐지 소박하다는 생각과 느껴오는 미각은 다르다. 언제부터인가 화학 조미료에 길들여졌던 혀끝이 다시금 살아나는 듯 싸-해 온다. 커피를 마시면서 바라보는 백두산은 추상적으로 그린 한 점의 서양화요 사막 저편의 신기루의 모습이라고나 할까. 희끗희끗 눈 반점까지 박혀 마치 꿈속에서 보는 양 아련히 올려다 보인다.

봉산옥림이라 쓰인 입간판을 보면서 우리의 입산금지와 같은 뜻일 거라는 해석을 해본다. 뽕뽕이 우거진 활엽수 위로 쪽쪽 솟아오른 낙엽송, 백양나무, 미인송이 삼대처럼 들어차 동굴 속처럼 컴컴하게 보인다. 입산관문에 이르기 전 도로가 날 글자의 표찰에는 “溫馨之至別有天地”라 쓰였는데 그 간격이 산만하여 얼른 의미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곳은 향기 피워내는 그윽한 지역”이라는 뜻으로 새겨 보면서 희귀한 동식물들이 천국임을 알리는 문패와 같다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대우가 세웠다고 써 있다.

3. 오! 天地

낮은 좌차 두 대에 분승하고 구불구불한 길을 따라 성스러운 백두산을 오른다. 머리가 꺼병한 30대 중반의 한쪽기사는 여름을 출발하여 차례로 봄과 가을을 거쳐 단번에 겨울의 가운데로 들어선다. 잎을 피운 활엽수 지대를 벗어나 미인송 군락지에 접어들고 다시 섞인 것 없는 악화나무(자작나무과) 사이를 누비듯 지난다. 같은 한 산에 고저에 따라 굽이져거나 마디도 없이 흰칠하게 자란 미인송을 보면서 세상의 근심 걱정 모르고 잘 키워낸 씨 있는 집 자손을 연상하고 높은 지대에서 거센 바람에 시달리며 가지를 유지하기 어려운 악화나

무를 좌우로 보면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 강인하게 성장한 사람에 비유해 보는 사이 개간지를 연상하게 하는 풀, 이끼 지대에 오른다. 땅에 깔린 채 피고있는 보라색 풀이끼의 작은 꽃들과 골골이 쌓인 잔설이 대조를 이루며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잔잔한 정경을 펼친다. 드디어 차가 봉우리 정상이가까운 평평한 산턱에 이르자 푸수수하니 가벼운 화산토가 밟힌다.

방한복을 대여한다고 외치는 소리를 귀 밖으로 들으며 단숨에 급경사의 정상에 오른다. 4~5분이나 걸렸을까. 올라가서는 천지를 등지고 심호흡부터 해본다. 끝없이 펼쳐진 일망무제의 樹海. 그 부드러운 숲 위로 드리우는 구름의 그늘이 대지 군데군데에 얼룩무늬를 짓는다.

하늘 가까운 호수를 바라보는 순간 간담이 서늘해지고 일체의 생각들이 끊기면서 그만 말문이 막힌다. 평소 윗대조상 사진 띄어 둔 거실에 높직이 걸어 놓은 백두산 천지 사진을 보면서 가는 날에는 우선 제사부터 지내야겠다고 별러 왔는데 그저 멍하니 침묵에 잠기고 만다. 오늘의 천지에는 평온과 적막이 깃들어 있었다.

천지 안쪽은 현무암 조각들이 저절로 흘러내려 봉우리마다 천지를 향하여 읍하듯 고개 숙인 모습이고, 바깥 쪽은 백설기에 대추를 뿌린 듯 풍화된 백토로 산머리가 허영게 보인다. 중국 사람들은 장백산이라 부르지만 우리 선인들은 고려 때부터 백두산으로 불려왔다. 이곳에서 동쪽으로 30리나 도망가서 흐르기 시작한다하여 '도망강'이라 부르던 것이 변음되어 두만강 또는 도문강(圖們江)이 되었고 다른 하나는 앞쪽인 서쪽으로 누비듯 흐른다 하여 '앞 누비강'이라 하다가 압록강으로 변음 되었으며, 동북쪽 송림사이로 흐르는 물에



<사진.1> 백두산 천지

봄마다 피는 술 꽃이 누렇게 충을 이루어 떠 내리는 것을 보고서 '술꽃강'으로 부르는데 한자로 松花江으로 쓰인다는 기록을 본 일이 생각나 방위에 따라 그 시원(始原)처는 이쪽과 저쪽이려니 막연히 눈짐작을 하다가 다시 천리평원 만주벌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저기가 말 타고 활 쏘며 치달던 고구려 선조들의 땅이란 말인가. 섬나라 일제에 빼앗긴 나라를 다시 찾겠다고 찬 자리에서 밤잠을 못 이루던 선구자들이 정처 없이 떠돌던 곳이로구나. 잃어버린 옛 땅을 향하여 혼자서 묵념을 드린다.

일찍이 여명기에 다녀왔던 육당 최남선은 '한 아버지'로 비유했고 1898년에 다녀간 러시아의 N.G가린은 '마음을 사로잡고 혼을 빼앗는 듯한 매혹적인 광경'이라고 술회한바 있다.

이렇게 평온한 천지도 불과 300년 전까지 화산 활동을 하던 두려운 산이었다. 1597년 8월과 1668년 4월, 그리고 1702년 4월 14일에 화산이 폭발했었다는 기록을 보면…….

화산재가 비처럼 내렸다. 한낮에 천지가 갑자기 어둡더니

황적색의 화염과 연기가 나고 비린내가 가득하여 마치 뜨거운 화로 속에 있는 듯 하다가 4시경이 지나서 그쳤다. 근래 1973년에도 천지 북쪽 20KM지점에서 4월과 6월에 지진이 있었다는 신문보도를 읽었던 기억이 있다. 이런 상황에 언제 다시 화산활동이 나타날지 예측 할 수 없는 휴화산 상태인 것이다.

백두산은 당초부터 나라를 열은 우리 민족의 성산이었는데 조선 숙종 38년(1712) 청나라사신 목극등이 백두산 경계비를 세운 후 '소국에 사람이 없어 좋은 땅을 많이 잃었다'고 한 적이 있고 6.25동란 때 북한에 원조를 보낸 대가로 천지를 기준 여섯 봉우리는 중국에 빼어 주고 일곱 봉우리만 남긴다. 민족의 동의 없이 천지 반쪽을 그렇게 잃고 말았다.

최근 조사서를 보니 천지의 둘레는 13.1KM, 남북으로 4.8KM, 폭 3.35KM, 수심 273M(평균213.3M)로 담긴 물의량을 추산하면 초당 1톤씩 계속 퍼낸다 해도 60년 이상이 걸린다고 한다. 북한에서 상당수의 산천어를 방사했는데 잘 자라는 걸로 알려지고 있다. 아직은 오염이 안됐으니 끌어다 음료수로 마시는 일만 남은 것 같다.

벽찻던 감격의 순간을 삭이며 산을 내려 오느라니 여러 사람들에 둘러싸인 사십대 중반의 한 부인이 창백한 얼굴로 의식을 잃어 가는 상태이다. 마침 지니고 있던 우황청심원 하나를 깨어서 입 속에 넣어주고 다시 걷는데 뒤에서 바지를 휘여 잡는 여인은 몇 번이나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하고 그 일행들도 박수를 치며 고맙다는 인사를 보낸다.

지난날 우리의 선조들이 산에 들 때에는 삼가고 두려워하는 마음에서 용변까지도 처리하여 가지고 돌아오는 청정심으로 살았다. 그런 모습을 그리워하면서 하산하여 장백폭포(비

룡폭포)를 향하여 산모퉁이를 돌아들자 저만치 산턱에는 마치 모시펄을 표백하려고 길게 널어 늘어트린 모양으로 눈에 가득 들어온다.

송화강의 원류인 이 폭포는 16M의 폭에 68M의 높이로 설명한다. 이 장판을 본 어떤 문인은 ‘한복의 웃고름처럼 휘날리는 듯 하더라’는 표현도 했다. 흘러내리는 용암천 바닥에서는 사발크기의 구멍에서 82℃의 온천수가 솟는다고 한다. 여기서 익혀낸 계란 1개에 500원씩 팔고 송수관을 연결한 온천장에서는 1달러씩의 요금을 받는다. 한국의 변두리 목욕탕 시설에도 못 미치는 낡은 시설로 외화를 줍는다. 주차장 가까운 길 아래에는 한국의 모텔급 규모의 호텔 외부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대우에서 투자하였다는 말을 들으면서 언뜻드는 생각은 일단 자기들 땅에 들어온 것은 결국 자기네 이득이 된다는 계산 아래 끌어 들였을 텐데 몇 년만에 본전을 뽑을 것인가.

4. 용정의 시름

투숙한 백산대주점(호텔)의 저녁은 쌀쌀한 늦가을의 기운이다. 마침 단오절이라해서 창호지 같이 얇은 찹쌀전병과 삶은 계란, 흰죽, 밥을 낸다. 이들의 별미를 드물게 맛보는 절호의 기회였다.

어제까지는 낯선 풍물을 보라 가이드의 설명 들으랴 겨를이 없었지만 오늘은 축적한 지식을 느긋하게 사유하면서 기회마다 가끔 한마디씩 거들어야겠다는 생각이다. 장도에 피곤한지 눈을 붙이고 코고는 사람, 말없이 앞만 응시하는 측도 있어서 버스 안은 조용하였다. 지난밤에도 세면을 얇은 듯한 행색의 기사는 장이 서는 도로에 접어들자 속도를 줄인다. 도

로양측 알바닥에 누런 시멘트 종이푸대를 깔고 푸성귀 몇 묶음, 시들은 과일(수박, 바나나) 몇 개, 쪼지바진 토종닭 몇 마리, 찢기 덜 빠진 돼지고기 몇 덩이. 생활용구와 싸구려 옷가지 몇 점씩을 앞에 널려놓고 앉아 손님 기다리는 상인이나 장에 나와 서성대는 사람들도 하나같이 깡마르고 가무잡잡하니 의복이나 얼굴에서 가난이 흐른다.

장터를 벗어나자 머리를 길게 기른 한 처녀가 동행인도 없이 한적한 도로를 걸어간다. 들고 가는 보통이로 볼 때 처녀는 곡식이나 기르는 닭 두어마리 붙들어 나와 모처럼 화장품이나 몇 가지 잡화를 장보아 가지고 돌아가는 길일 것이다. 그래도 전통문화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에서 뜨거운 핏줄이 느껴져 뛰어 내려가 손이라도 잡아주고 싶어진다.

일년 농사 열심히 지어 보아야 겨우 식구들 옷 한가지씩 사고 나면 그만 이라는 우리의 동포들. 그해가 그해인 농사 일손을 놓고 도시나 한국으로 돈벌이 떠나는 청년, 처녀, 부인들 그래서 노약자와 어린이만 남는 농촌, 총20만 명의 처녀들 중에 약 10만 명이 한국, 중국, 일본으로 나가 결혼하여 눌러 사는 처녀들로 늘어만가는 노총각들의 따분한 신세. 학교는 학생이 줄어 한 달에 5~6만원 하는 교사의 월급을 못 주는 형편이고, 한국으로 돈 벌러 가느라 얻은 빚이 중국과 한국의 소개자들 주머니만 채워주고 사기 당하여 보증을 섰던 친척들까지 연쇄적으로 빚 더미에 올라 앉아 자살자가 속출한다는 딱한 처지에 가슴이 아려 온다. 어떻게든 '한국에서 돈벌어 중국에 돌아와 쓰자'(掙在韓國花在中國)는 게 목적이란다. 한국은 살아라해도 살고 싶지도 않지만 살수도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라고 거침없이 말한다. 지난 시대 그 곤궁했던 일제치하에도 돈을 모으면 독립군부터 돕고(軍錢) 그 다음

자식들 가르치며(學錢) 나머지 가지고 살아 나간다.(食錢)는 신념으로 살아 나왔던 고마운 동포들이었다.

근래 들어 한국에서는 자성의 소리가 들리기 시작한다. 의료계에서는 심장병 어린이 수술을 해주고 대학생들은 여름 농촌봉사 활동을 벌이며 도서도 모아 보내고 사기 당한 사람들을 돕자고 모금운동을 하지만 행여 생색이나 내고 과시하려 들다가는 오히려 이질감만 불러 일으키니 자중할 일이다.

가이드는 백두산 천지를 본 것은 행운이었다고 강조를 한다. 매년 6월 하순부터 8월 하순까지 2개월이 백두산을 볼 수 있는 기간인데 날씨가 개이는 날은 한 달에 2~3일뿐, 연간 1주일을 넘지 않는다고 목소리에 힘을 준다.

중국의 원로 작가 梅濟民이 쓴 '北大荒'의 묘사 부분이 먼 향수를 불러온다.

* 장백산의 여름은 값으로 계산 할 수 없다네(長白山的夏天付不出來價錢)-개간하는 이들의 노래

* 하느님이 씨를 심고 우리가 거둔다네-약초 캐는 이들의 노래

* 뭉둥이로 노루잡고 바가지로 물고기 퍼내며 들썩이 밥솥에 날아드는 곳이라네(捧打獐子瓢鰭魚野雉飛到飯鍋裏).

산 속에서 짐승들과 더불어 사는 산 사람들은 순한 짐승들처럼 되어진다. 여인들은 저습한 곳에 베어놓은 나무에 싹뜨 물을 뿌려 두었다가 비온 뒤에 가서 버섯을 따온다. 내 상류까지 올라가서 채취한 버섯이나 나물, 나무 열매 등을 나무통에 담아 물위에 띄워놓고 따라 내려와 강가의 집 앞에 박아 놓은 말뚝에 걸린 나무통에서 꺼낸다. 법이 없어도 짐승들이 털갈이를 하고 새끼를 낳는 여름에는 사냥을 하지 않는다. 새끼 딸린 짐승들을 만나면 슬그머니 피하여 주기도하고 배고

픈 어미가 인가 근처에 내려오면 개들을 매어두고 먹이를 놓아준다.

또한 미련하다는 곰도 사육, 훈련시켜 목에 붉은 천을 둘러주고 몸에 사슴가죽 주머니를 달아 소금, 성냥, 편지, 연장 등을 보내면 몇 십리 먼길이라도 잘 다녀온다. 그때는 신선한 과일을 찬 냇물에 담가 두었다가 먹이곤 한다. 요즈음은 그런 곰을 집단으로 사육하며 쓸개를 뽑아 팔고 있다.

용정시내가 가까워지자 가이드는 일송정의 위치를 가리켜 준다. 우리는 누구의 선창 없이도 선구자 노래를 합창하였다.

일송정 푸른 술은 늙어 늙어 갠어도
한줄기 해란강은 천년 두고 흐른다
지난날 강가에서 말달리던 선구자
지금은 어느 곳에 거친 꿈이 깊었나(후렴)

2~3절 생략

21세기의 청년 작곡가 조두남이 목단강변 여인숙에 투숙하고 있던 어느 날 젊은 시인 윤해영이 가사를 들고 찾아와 곡이 붙여지게 되었다는 일화를 알려 주었다.

용정평야 한 가운데를 가르고 흐르는 해란강은 한국의 준용하천 정도이고 일송정도 독립 운동가가 오는날 용정의 해란강이 내려다보이는 산봉우리 큰 소나무 아래 자주 모여 앉아 나라와 시국걱정, 고향소식을 나누던 조선족들을 못마땅해하던 일본인이 그 소나무를 베어 버리자 다시 그 자리에 아들격의 작은 소나무를 심어 기른다고 한다. 그 위에 팔각정이 올려다 보인다.

우리 민족이 정착하기전의 용정은 갈대숲과 수양버들등 초목만이 무성한 물개들의 서식지였는데 1884년 朴濶焉과 張

仁錫이 들어와 한 우물부근에 초막을 짓고 개간을 하여 밭농사를 시작하자 동포들이 모여들어 취락이 형성되고 점차 도시형태를 이루어 나간다. 그 뒤 1906년 李時淳이 옥수수과 조를 심던 황무지에 개답을 하고 최초로 벼농사를 지어 성공하면서 소득이 높아지자 생활이 안정되고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된다. 여러 민족이 함께 사는 용정시의 인구는 6만이지만 60%가 조선족으로 어느 민족보다 근면하여 월등한 생활을 누리면서 높은 교육열을 보인다는 설명에 누구의 제의도 없이 힘찬 박수가 터졌다.



<사진 2. 윤동주 詩碑-필자의 동창 이삼웅씨와 함께>

점심식사를 끝내고 두만강 가는 길에 일제 암흑기의 저항시인 尹東柱(1917~1945)의 집과 교회에 들렀다. 일본 유학 중 독립운동에 가담했다가 28세에 옥사한 불운한 시인의 가대로 볼 때 주변 일대에서는 상당한 농경지를 소유한 지주였음을 느낄 수 있었고 일찍이 교회를 세워 그 지역 구심적 지도 역할을 하였던 선각자 집안이었음을 교회 내 기념 전시물

에서 알 수가 있었다. 또한 그가 수학하였던 대성중학교는 1개의 교사전동에 여러 게시물을 설치해 놓고 안내인을 배치하였다. 비록 황량한 북간도 땅에서 품었던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서시에 담아 역사의 하늘에 떠서 우리들의 별이



<사진 3. 두만강 중류>

무심히 흐르는 강 건너 산엔 키 높이의 조선술이 드물게 서있고 그 비탈 따라 드문 간격으로 박아 놓은 입간판으로 보아 중·북 국경선임을 실감하게 한다. 그 아래로 도문강(두만강)이 숨죽여 흐른다. 강폭은 약 50M쯤 될 것 같고 물살은 빨라 보이나 바지만 건고도 능히 건널 수 있을 것 같다.

강을 끼고 한참 내려가니 도문시에 이르고 교량이 보인다. 다리 중간에 서로 다른 국경 표시색이 뚜렷하고 각기 입구에 초소가 있다. 버스는 다시 산언덕 팔각정까지 오른다.

강 건너 칙칙한 회색도시가 북한의 국경도시 회령이라고 한다. 망원경 안으로는 건너 강가의 풀숲사이로 5~6명의 하동들이 천렵을 하고 그 위쪽 미루나무 그늘에는 3~4명의 노

인들이 한담을 나누는 듯. 우두커니 서서 오고가지 못하는 금단의 땅을 바라보노라니 긴 한숨만 토해진다.

5. 북경의 섬 자금성

산이 보이지 않는 북경의 신시가지는 구획정리가 되어 우뚝우뚝 고층건물들이 들어서기 시작한다. 우리가 투숙한 북경해일주점(호텔)도 새로 지어서 한국의 신라호텔이나 하이아트호텔 수준의 시설이다. 시책적으로 찾아온 외국여행객에게 좋은 인식을 주어 국가의 면모를 높이려는 방법일 것이다.

새벽 창문의 커튼을 젖히니 앞 빈터에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나와 기공체조를 한다. 무게도 있어 보이고 점잖은 운동 같아서 좋게 보인다. 미래인들의 조용한 생활 운동이 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고급호텔 뷔페식이라 해도 진기가 없는 밥과 기름기 많은 찬들이 대부분이므로 준비해 간 김과 깻잎으로 식사에는 무난하였다.

길림성 조선족 출신 가이드 이성태의 설명이 시작된다. 중국에 모택동이 없었으면 국가가 있을 수 없고 등소평이 아니었다면 생활이 없었을 거라는 것이 이들의 공통된 인식이라 한다. 잘 사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모두가 이 두 지도자에게 감사해 한다는 말을 들으면서 우리 역대 대통령들의 퇴임 후 존경도를 생각하느라니 괜히 쓸쓸해 진다.

북경은 힘을 얻은 자가 주인이 되곤 하였다.

* 10세기경 거란족이 요 나라의 도움으로 정하고 南京이라 함.

* 1234년 몽고족 징기스칸이 청나라를 세우고 북경을 차지함.

* 주원장이 명나라를 세운 후대에 자금성을 짓고 통치중

에 농민군 이자성에 의해 함락됨.(저승사자 얼굴로 소문이 난 그가 온다는 말만 듣고 미리 도망 쳤다함.)

* 1911.10.10 손문의 신해혁명으로 중화민국이 성립됨.

* 1945.10. 1 대장정에 성공한 모택동이 국가성립을 선포 함.

중국의 근대사와 운동, 사태 등을 기억해 내면서 이화원에 도착한다. 걸으로 보아 별스럽지 않던 어원에 들어갈수록 대단한 별장이라는 생각이 든다. 1755년 서태후의 조부가 조성 하여 손녀대에 이르러 수렴청정을 하고 영화와 온갖 사치를 누린다. 이곳의 건물이나 정원미 보다 심장한 의미를 담은 명칭들에 관심을 갖기도 하였다. 바다를 방불하게 하는 인공호수를 운회옥우로 부른다든지 호수가 배운문, 서운문, 옥연문 등 구름의 변화를 보는 위치에 따라 부여한 명칭들은 참으로 적절한 표현들이었다.

서태후 전용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유람선을 타니 문득 좋은 세상에 태어나 호강한다는 행복감이 잠시 스쳐간다. 290여만 평의 평지 3/4면적을 7M 깊이로 파고 물을 끌어 담은 것이 곧명호요 나머지 1/4의 땅에 파낸 흙을 쌓은 것이 160M 높이의 만수산이라니 장비가 보잘 것 없던 그 시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사역 시켰던가 선착장 옆에는 중선 크기의 돌배가 정박한 목선처럼 물에 잠겨 있다, 로마의 스페인 광장에서 보았던 돌배보다는 훨씬 더 크다. 동서양 모두 온전한 정신가지고 한 짓은 아닐 것이다. 방향분별이 안돼 패철을 꺼내서 보니 서태후가 수렴청정 했었다는 樂壽殿은 정남향(子坐午向)이고 호수에 이르는 통로는 동서(卯・酉)를 가리킨다.

紫禁城 (1961년부터 故宮으로 개칭)은 하도 웅대해서 우선 圖上으로 살펴보았다. 궁성 동서남북으로 호수를 파서 하나

의 섬 형태로 만들고 다시 직사각형의 궁전 한바퀴를 동자하를 파내어 물로 이중으로 둘러쌌다. 궁정의 면적은 727,000㎡, 길이 1,000M 폭 725M로 전각 60개와 740개의 부속 건물로 모두 9,999칸 반이라 한다. 방 하나에 하루밤 씩만 자고 나가도 27년이나 걸린다고 하니 그 규모가 얼른 머리 속에서 그려지지 않는다. 불현듯 몇 년 전에 보았던 영화 '마지막 황제'에서 서태후가 어린 '푸이'를 세우고 수렴청정하던 화면만이 기억된다.

궁전의 지붕은 황제를 상징하는 색으로 황유리 기와지붕이 햇빛에 번쩍이고 전각 앞에 놓인 금동 향아리는 영국과 불란서 군인들이 도금한 금을 긋어 갖고 다음에 입성한 일본 군인들이 또 긋어가서 거무스름하다고 한다. 대궐의 좌향은 정남향(자좌오향) 이었고 일정한 간격으로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건청궁, 신무문 등이 일직선으로 자리하였고 좌우로 부속건물들이 배치되어 있다.

황제가 정사를 보던 태화전(1406~1420)은 1.2M의 목재기둥 86개로 지어지고 그 높이가 28M나 된다. 그 안에서는 황룡이 서려 있어서 향을 피우면 용상의 황제는 마치 구름 속에 있는 듯 위엄이 갖춰지고 계단 아래에는 조복한 신하와 머리를 조아리는 외국사신들 모습이 떠올러지고 지난 시대 우리의 외교사를 곰곰이 돌아보게 된다.

천안문 광장에 서보니 확실히 대국다움다는 생각이 든다. 사방 10KM인 44만평 광장에는 일백만 명의 인민을 수용한다. 동쪽은 역사 박물관 북쪽은 천안문, 남쪽은 국립은행 인민대회장이 위치해 있고 長安街는 10차선으로 일백리(40KM) 뻗어 있으며 그 가도에 북경대반점(호텔) 사회과학원과 금융계통 건물들이 높이 솟아 있고 그 앞으로 자전거의

물결이 흐른다. 중국의 변방 소수민족들의 평생소원이 백두산과 만리장성 구경하는 것하고 고궁 나들이라서인지 이상스런 옷을 입은 사람들이 가끔 보인다.

天壇은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문화유산 건물이다. 등그런 환구의 층계를 올라 천단에 이르니 중앙에 천심석이 있고 그 뒤로 회음벽이 있다. 천자가 하늘을 향하여 고하면 그 음성이 이 벽에 부딪쳐 메아리로 돌아와 하늘에서 내리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한다. 그앞 좌우로 옥돌로 만든 소머리가 제물대에 올려 있고 패등주가 세워있다. 뒤에는 황천지제가 거하는 황궁으로 좌우에는 북두칠성과 28숙 등 못 별들 신의 집과 바람, 구름, 비 우뢰의 신집을 배치 하였고, 그 뒤에는 황천상제를 모시는 기년 전으로 좌우 건물에 악천가무와 악천예의라 불린 현판으로 보아 하늘의 제신들을 위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리 민족의 개국신화를 정형화한 神市에서의 제천의식을 보는 듯 하여 숙연한 감이 들게 한다.

6. 人民과 萬里長城

북경에서 70KM 거리에 있는 만리장성을 가는 날은 비가 내려 질척거린다. 가이드를 통하여 서행을 당부하여도 여전히 속도를 내는 꺼병한 한쪽기사는 듣는지 마는지 표정이다.

달에 가는 인공위성에서 찍은 사진에도 나타난다는 세계 7대불가사의 중 하나라는 이 장성의 실제길이는 6,350KM이니 일만오천팔백칠십오리나 된다. 기원전 221년부터 30만 대군을 동원하여 황하의 상류인 임도에서 시작하여 압록강 근처인 요동까지 돌이 있는 곳은 돌로 돌이 없는 곳은 흙벽돌(전)을 구워서 쌓고 사막지대에서는 흙과 모래를 혼합하여 토성으로 쌓았다. 진나라 때 5,000M, 명나라 때 6,000M를 쌓

았는데 그 이전에 각 지역 제후들이 쌓았던 방성을 진시황이 연결시킨 것이다.

당시에 11세의 소년에서부터 환갑의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조리 동원시켰더니 언제 마음놓고 처자식하고 살아 볼 날이 있었을까. 흔히들 우스개 소리로 ‘하룻밤을 자도 만리장성을 쌓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가 있다. 한 처녀가 시집을 오니 병약한 남편에게 장성공사 소집영장이 날아온다. 안타까운 부인은 이웃집 청년에게 하룻밤의 잠자리를 해줄테니 남편 대신 공사장에 나가 달라는 제의를 하게되고 여자가 귀한 그 사회의 남자는 달게 응하고 약속대로 하룻밤 동침하고 가서는 영영 돌아오지 못했다 한다.

산의 능선과 봉우리로 이어져 나간 성의 평균 높이는 10M에 5M의 넓이와 1M의 두께로 되어 있는 북쪽은 절벽이며 봉우리마다 관측소를 두고 그곳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계단식 통로를 내었다. 오열 종대의 군인들이 행군 할 수 있는 넓이인데 관광객 발길에 반질반질 달아 자국이 나있다. 모택동도 ‘장성을 오르지 않고는 사내 대장부라 할 수 없다’(不到長城非好漢)고 했다던가.

북경의과대학이라 쓰인 반초서글씨 현판의 교문 안으로 버스가 들어간다. 허름한 건물 2층 강의실에 앉자마자 백발이 성성한 노교수와 팀 일원인 듯한 젊은 남녀 교수 몇몇이 후줄근한 흰 카운을 입은 채 들어와 약 10분간 인체 기본강의를 하고 한 사람 한 사람 손목 진맥을 하고는 약을 권한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리 공감이 가지 않아 사양하는 태도를 보이자 눈치를 보던 일행들도 뒤로 빠지는 모습이다. 돈 맛들린 정부가 교수들까지 내세워 외화벌이를 하는 것이 그리 좋게 보이지가 않는다. 그러나 어디를 가나 보신이라면 솔깃

해 하는 한국관광객의 취약한 마음이 문제지 그들만 탓 할 일은 아니다. 교직원 11,000명의 세계 최대의 대학에서 한국 유학생들이 가장 우수하여 조기에 박사 과정을 마치고 귀국한다고 한다.

7. 잠을 깨운 定陵

풍수지리적으로 북경 제1의 명당 십삼릉 지하궁전을 가는 중이라는 가이드의 말에 혼자서 신바람이 난다. 솔직히 말해 만리장성이나 자금성보다 이 명나라황제들의 무덤 속을 보는 것에 더 호기심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북경평야의 북쪽 끝 산자락에 위치한 이 능들은 명나라 삼대인 성조부터 의종까지의 황제, 황후, 후궁들을 장사지낸 황실 묘원 인 셈이다.

근래 개발했다는 정릉(재 8대 신종 주익균)은 길이 88M에 너비 1,175㎡로 27M지하에 현궁을 조성하였다. 보좌 앞에는 향대를 중심으로 좌우로 축대를 세우고 앞에 바탕이 만한 도자기를 놓았다. 석관의 크기가 가로4M, 세로5M, 높이3M이니 다른 부장품들의 크기는 열거하지 않더라도 알만하지 않은가. 특히 10척 높이의 육중한 돌문 안과 밖은 마치 이승과 저승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이 지하궁의 비밀을 영원히 감추기 위하여 설계도와 도구는 물론 술한 종사자들까지 생매장하였다고 한다.

출구 연도 옆에는 물결 무늬 위에 승천한 용을 조각한 비석에 '신종황제지릉'이라 새긴 전서체가 붉은 꽃 돌 속에서 비바람의 마모 없이 그대로 잘 보존되어 있다. 또한 그 앞에는 백비를 세웠는데 가이드도 잘 모르는 눈치다. 한국의 백비는 청사에 길이 남을 청백리에게만 세워주는 자랑의 표징인데, 인간 주익균은 비교적 조선에 호의적이었던지라 호감이

가서 묵념을 드린다.

당시 전국민의 연간 식량이 600만석이었고 전국의 조세징수가 백은 400만량이었는데 이 농을 조성하는 데만 곡식 800만석과 백은 800만량이 쓰여 졌으며 6년간 6,500만 명을 동원하여 축조 하였더니 1일 3만 명씩 종사시킨 셈이다. 이렇게 백성의 고향을 빨아드려 굶주리게 하고서도 왕권이 온전히 유지되기를 바랬을까. 현대의 사학자, 지질학자, 과학자들조차 축조과정이나 지하통로의 비밀을 풀어 내지 못한다고 한다. 공주의 무령왕릉이나 경주의 천마총을 어린이들 소꿉장난에나 비교 할 수 있을까.

북경시가지의 가로수는 가시 없는 아카시아와 수양버들, 오동나무와 은수원사시, 미루나무등 비교적 속성수들이라 관상수로서는 그저 그렇다.

후덥지근한 여름인데도 특색한 국방색 국민복을 벗지 못하는 인민들,

‘지식은 돈만 못하고 돈은 권력만 못하다. 많이 알수록 수입이 적다’는 금전에 최상의 가치관을 두는 보통사람들,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잡으면 된다.’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한 작은 거인 동소평의 소신

동서양의 표현을 아직도 중·서양으로 쓰는 대륙적 오만성, 자기들 중심의 중화사상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후진적 자존심.

세계인구 60억, 아시아인구 35억, 중국인구 12억을 넘었다니 지구촌 사람들 4~5명 중 1명이 이들이다. 56개 다민족이 뒤섞여 사는 나라. 조선족은 19번째의 비율이나 교육, 문화, 청결, 생활면에서는 타민족의 추종을 불허 한다는 우수 민족이건만 크지 않은 한반도 안에서 달막이며 조금 있다고 과시

하고 차별하는 가진 자들, 내 편이 아니면 네편으로 간주하는 힘 잡은 사람들의 편파성, 중립적 사람들이 소외당하여 쌓이는 감정 누리며 살아야하는 우리나라. 바람 잘 날 없는 내 조국은 언제쯤이나 번하게 개이려나.

멀리 향리를 떠나와서 오리구이를 먹고 썬커스를 관람하면서 우롱차를 마셔도 맘 한구석에 낀 시름이 걷히지를 않는다.

옛새동안 가족 분위기를 자아내던 아홉 사람들 여로의 끝이 보이기 시작한다.

‘나선 길에 상해쪽을 더 둘러보고 돌아가서는 복잡한 서울에서 빠져 나와 한적한 농촌(서산)으로 이사 들어가 조용히 살겠다’는 박원진씨 부부만 공항에 남겨둔 채 갈 길을 재촉한다. 감로 여행사 노처녀 심실장의 명령(?) 대로 첫날부터 끝날까지 바늘에 실가 듯 함께 해준 노처녀 란씨. 내어 놓고 보아도 중늙은이가 확실한 동창들의 만족한 듯한 표정.

북경시내가 아스름하게 멀어져 간다. 瑞山文學

명청한 내 시의 자궁, 서산이여

김 순 일

서산이란 순박한 고향민들의 행동 그리고 그 주위의 자연물들을 묘사하면서 끊임없이 인간의 참 모습을 찾아 해대면서 비판과 분노와 아이러니, 해학도 있지만 그 밑바탕에 깔려 있고 끝까지 견지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원만함과 선량함과 따뜻한 눈초리와 부드러운 손길이다.

나는 세상 사람들이 소위 명청도라고 부르는 충청도에서도 가장 말이 느리고 명청한 스산(서산)에서 태어나 지금까지 고집스럽게 살아오고 있다.

찰싹이는 바닷물 소리 속에서 태어나 옆치고 걸음마를 배웠고, 갯바람 소리랑 비릿한 갯내에 절어 꺼먹장아찌처럼 성장하였으며 기름진 스산벌 흙냄새랑 함께 뒹굴며 어리디 어리게 살아왔으니(문장이 이렇게 늘어지고 늘어지는 것도 다 그래서다.) 명청 중에도 상명청인 스산 촌놈일 수밖에 없다.

지금은 자동차길도 잘 뚫리고 차들도 뽕뽕 잘 달려서 서울과 대전이나 인천까지 세 시간 거리도 안 되지만 옛날이야 어디 그랬나! 터덜거리는 버스를 타고 창자 속 흔들리면서 하루종일 가야했으니 자연 도회지의 문물이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뜸할 수밖에

그렇게 살다보니 세상 일 급한 것도 없었다. 철따라 바람 맛이 달라지는 바다와 산과 들과 살다보니 마을 썸썸이가 착하고 넉넉했으며 말씨 또한 느긋한 자연을 닮아 느낄 수밖에

없는 노릇이었다.

멍청하고/ 느긋한 사람들/ 마늘 생강이 팔리지 않아/ 찻간
에서 써어도/ 다시/
한발자리 심어놓고/ 조상 대대로/ 자식새끼 키워오듯/ 밀지
고 남는 것을/
계산하지 않고/ 눈물처럼 뜨거운/ 바다 캐고 흙 뒤지며 살
아가는/ 서산 사투리//

-줄시 「서산 사투리 · 75」

이 나이 먹도록 멍청한 스산의 바다와 산과 들과 그리고
그 속에 사는 새와 짐승과 벌레와 물고기와 푸성귀와 사람들
과 함께 살아온 나의 생각이나 글이란 것이 멍청할 수밖에

내 얼굴에는 늘 바보스럽게 해에 웃는 웃음이 붙어다녀서
사람되기는 다 틀렸다고 한다 피사리를 가셔도 피대신 버를
뽑아놓고 해에 웃는다고 주인한테 퇴박맞고 - 중략 - 병원엘
가 보았지만 별 이상이 없다고 한다.

어머니는 나를 데리고 절에도 갔었지만 해에 웃는 나를 내
려다보시던 부처님이 한바탕 웃어대더니 지성드릴 게 따로 있
지 어서 가라고 한다.

<무슨 웃음이 그렇지 부처님도 꼭 바보스럽구먼>

나는 시무룩한 어머니의 뒤를 따라 산을 내려오면서 별 회
한한 일이라도 엿본 듯이 해에 웃는다.

줄시 「서산 사투리 · 1」

세상은 너무나 부자가 되었고 세상은 너무나 편리해졌으
며 세상은 너무나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져서 살 재미가 없다
고들 한다. 이왕에 멍청한 애기로부터 시작했으니 그런 사람
하나 만나보면 정말 술맛이 날 것이다.

우산리(愚山里) 산골 사람이 송아지를 팔려고 새벽 삼십리 길 장에 나왔습니다. 이사람 저사람 눈치볼 것 없이 일찌감치 팔아버리고 주막집에 들러 해장국에 막걸리 몇 대접으로 출출한 배를 달렸습니다. 기분 좋게 술이 오른 산골사람은 주막거리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었습니다. 해가 누엿누엿 저갈 때 산골사람의 주머니에는 동전 몇 닢만 텅 굴었습니다. 빈손으로 돌아오지만 우산리 산골사람은 오늘 하루가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까짓 송아지야 또 한 마리 나면 되는 거지 ...>

홍얼홍얼 돌아오는 밤길을 개똥벌레가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 줄시 「서산사투리 · 8」

스산 앞바다는 우리나라 어느 갯가보다도 걸어서 고기떼들이 다양하게 몰려왔다. 기나 긴 겨울 얼었던 바닷가 풀리면 천수만을 비롯해서 가로림만 안흥 앞바다엔 비릿한 갯내가 떠들썩하게 살아가기 시작한다.

물 때 맞춰 갯가 아낙네랑 아이들은 굴을 파고 조개 캐고 낙지구멍을 쭈셨고 사내들은 먼 바다까지 나가 그물을 던지거나 낚시질을 했다.

온 산이 진달래꽃으로 곱게 물들 때면 장이 노랗게 툭툭 배고 살진 꽃게철이었고 담백하고 나긋나긋한 찰박(갑오징어)은 스산 사람들이 제일로 치는 막걸리나 소주 안주다.

보리가 누룩누룩 익어갈 무렵이면 안흥 앞바다에는 기름진 우럭때가 가득 몰려온다.

갯가 안흥 색시가 근친을 왔다 새신랑의 품속에서 야들야들해진 갯가 색시가 생글생글 근친을 왔다

바닷가 달을 품고 웅어리진 명울을 푸는 밤 갯가 처녀들이
모여 앉아 첫날밤 애기를 즐겼다

<보리 누름에 우력은 눈이나 뜨고 먹지.... 눈도 못 뜨겠더
라?>

갯가 처녀들은 가쁜 숨을 감추며 군침만 삼키고 있었다.

- 줄시 「서산사투리 · 4」

밀이 다 익어 수확할 때쯤 가로림만 개펄에서는 밀국낙지
(세발낙지)가 나온다. 낙지볶음이나 박숙을 썰어넣고 끓인 가
을 낙지탕도 일품이지만 한입거리인 밀국낙지에 소주 한 잔
은 세상 잡된 일들을 까맣게 잊게해주고도 남는다.

날씨가 서늘해지면서 천수만에는 왕새우(대하)철이 된다.

서울을 비롯한 도회지 사람들이 길을 메우고 몰려와 생으
로 먹거나 찌서 먹기도 하는데 요즘은 또 소금구이가 제일이
라고 야단을 떤다.

그런데 멍청한 사람들이 철따라 바다를 캐며 살던 서산에
도 산업화의 어두운 물결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산을 무너뜨린 흙으로 바다를 막으면서 물고기들의 고향
이 폐허가 되었고 갯가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의 역사를 보
면서 푸우푸우 막걸리 사발을 비우며 꺼억꺼억 울었다.

바닷가/ 육지가 되고 있었다/ - 중략 - 산보다 더 큰/ 폐선
이/ 질푸른 바다의/ 목을 조르고/ 지도를 바꾸어 놓던 날/ 사
람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가/ 자축을 하고 있었다/ 위대한 사
람아/ 꺼억꺼억 울며/ 천수만을 떠도는/ 무학의 달을/ 어찌할
거나/ 간월도 어리굴젓/ 그 가막굴이/죽은 갯물속에서/ 썩고
있는 것을. 어찌할 거나/

- 줄시 「서산사투리 · 55」

가로림만 펄밭에 사는 낙지도 갯지렁이도 황밭이 게들도
고향의 자궁을 잃게 되었다. 웅장한 공장들이 들어서고 굴뚝
이 하늘을 뚫으면서 기름때가 칼질을 하고 하늘에서는 산성
비가 내리고……。 그래도 돈냄새를 맡은 사람들은 개발을 앞
세우고 미래성을 쌓는다.

가로림만 건 바다에 기름때가 빨치산처럼 기습해와서 숨통
을 조인다 바다랑 함께 파아란 몸 섞고 살던 하늘의 얼굴도 번
들번들한 기름을 뒤집어쓰고 오갈들고 있다 대가리 한 번 얼
얼하게 써보지 못한 낙지가 초경도 치루지 못한 피조개가 때
죽음 당한 가로림만에는 몽달귀 처녀귀들이 시퍼렇게 날이 선
피웃음이 섬뜩하다.

- 줄서 「가로림만 기름때 - 산성비·84」

낙시에 걸린/ 등 굽은 망둥이가/ 코를 켜/ 낙시꾼들을 보고/
두 눈 껌벅껌벅/ 닭똥같은/ 눈물을//

- 줄서 「낙시-산성비·24」

등 굽은 망둥이까지 위대한 사람들의 앞날을 닭똥같은 눈
물로 걱정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개구리의 씨가 마르고, 풀밭에는 쇠똥을 굴리는 쇠똥구리
가 없어 풀잎이랑 냇물은 똥독이 오르고, 메뚜기가 산으로 가
고, 동네에는 조무래기 아이들이 모여서 웃고 울며 똥굴던 마
당이 없어진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공장의 굴뚝에서는 아황산가스가 몽텃몽텃 쏟아져나와 벼,
콩, 참깨, 무, 배추가 시들어 죽어가고 사람들은 골치가 패고
어질어질해서 죽을 지경인데 공장의 주인들은 완전 연소가
되니까 절대로 그럴 리가 없다는 세상에 우리는 살 고 있다.

산성비가 주룩주룩 내리는 도시로 나갈수록 사람들의 가

숨에도 시멘트 고드름이 자라고, 이웃집에 사는 노인네가 살아 있는지 죽어 있는지 상관없는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그러니 하늘인들 무사하겠는가?

할머니가/ 농약을 먹고/ 빨강게 독이 오른/ 고추를/ 가오내
닭고 계시다//검은 날이 선 구름떼/ 뭉턱뭉턱 떠오르는/ 하늘//
하느님 고추는/ 안녕하신가?//

- 졸시 「하느님 고추는 안녕하신가 - 산성비 · 11」

나는 산성비 연작 시집 「사람 어디 있나요」에서 ‘나는
믿는다/ 사람이 홀리는/ 구슬땀의 슬기는/ 하늘이 다 무너져
내리기 전에/ 살아 숨쉴 수 있는/ 파아란 구멍을/ 뚫으리라는
것을// 굳게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나는 믿는다.

서산의 바다와 산과 들과 그 사이 사이에서 살아가는 서산
사람들의 가슴이 명청하고 푸르게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믿는다.

포구를 썰렁하니 비어둔 채/ 조기잡이 나갔던 배들이/ 만선
기 휘날리며/검게 탄 얼굴로 돌아온다// 갯가 아낙네들의/ 메
말랐던 아랫두리에/ 물이 차오르고// 갯마을은 온통/ 사내 뉘
새를 말은/ 비릿한 웃음으로/ 가득 차 넘치는/ 오늘밤/ 계들은
바다 가득히/ 알을 풀겠다//

-졸시 「서산 사투리 · 76-안홍 포구」

비릿한 웃음이 다시 살아난 안홍 포구를 비롯해서 가로림
만의 펄밭도 언젠간 다시 살아날 것이다.

위대한 사람의 힘으로 바다를 막았던 제방도 백중 한사리
의 힘으로 무너져내리고 바다의 자궁에는 씨가 말랐던 물고

기때가 파랗게 살아날 것이다.

수수억년 흘러질하느라고 파랗게 멍이든 바다의 아랫두리가 더욱 팽팽해지고 썰물지면 갯가 아낙네들도 비릿한 웃음 날리며 펄발으로 낙지구멍 파러 갈 것이다.

하늘이 꽃가루가 파랗다/ 바람의 입술이 파랗다/ 나무들의
젓가슴이 파랗다/ 물소리의 실뿔줄이 파랗다/ 파아란 꿀을 먹고 사는/
새들의 노래가 파랗다/검정나비의 나래짓이 파랗다//
원추리 싸리 도라지 칙꽃의/ 꽃술에 맺힌 파아란 정액이 영롱하다//
술한 부처의 말이 폐허가 된/ 보원사지 빈 터에 지천으로 까쟁인/
잡풀들의 말이 없는 입이 파랗다// 서산마애삼존불님/파아란 아기 미소 하나 낡다//

-줄시 「용현계곡」

서산 마애삼존불님의 미소가 살고 있는 용현계곡에 가보면 오랫동안 비워두어서 하늘서부터 바람 나무 물소리 새들의 노래 나비 잠자리의 나래짓... 모두 싱싱하게 다시 살아나고 있는 파아란 손짓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용현계곡을 찾아온 술한 사람들의 입 입에 미소 하나씩 파랗게 물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다.

멍청하게 비워두면 이렇게 파아란 살이 싱싱하게 돌아나는 것을.....

파아란 햇빛이 쏟아져 내리는/ 파하얀 갯바람이 연포의 모랫벌을 간지럽히는/ 용현계곡 시린 물이 너럭바위 허벅지를 타고 내리는/ 소나기 한 보새기 지나가고 쌍무지개 피어나는/
한강에서 머물러 바라보는 맑은 하늘저녁 노을지는/ 검버섯 덕지덕지한 감나무아래 어머니의 품에서 젖을 빠는/ 파아란/
소리/ 소리/ 가슴 얼얼하게 고슴고 고수온

- 줄시 「매미소리」

우리집 울안에는 감나무 여덟 그루를 비롯해서 향나무 목련 라일락 동백 단풍나무 주목 천리향 등 수십 그루의 나무들이 살고 있다.

잔디밭엔 제비꽃이며 민들레 잡초까지 내버려두니 여치 땅개비까지 모여들고 나비 잠자리도 찾아와 놀다 간다.

그들을 실눈웃음으로 바라보다가 한여름 땀별을 피해 감나무 그늘에 앉아 있노라면 파랗게 쏟아져 내리는 매미소리가 그렇게 시원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무들이랑 풀잎이랑 함께 어우러져 내리는 파아란 하늘이 그렇게 고수울 수가 없다.

세상은 변할 수밖에 없다. 산업화로 파괴되어가는 바다와 산과 들도 내유년의 싱싱했던 그들만큼 소중한대. 그래서 더 가슴 아픈 때가 많다. 그러나 언젠가는 느긋하고 명청한 바다산 들로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다.

나와 내 시는 서산을 떠나서 살 수가 없다. 내가 살다가 언젠가는 문히게 될 바다요 산이요 들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명청한 내 시의 영원한 자궁이기 때문이다.

갯가불이는/ 갯가에서 살아야지/ 수족관의 농어/ 눈자위가
멀정고/ 살빛이 썩어/ 갯가불이는/ 갯가에서 살아야지/ 붓집
싸들고/ 도회로 물린/ 갯마을 처녀들의/ 몸엔 땀/ 재발 걸음걸
이/ 갯가불이는/ 갯가에서 살아야지

- 줄시 「서산 사투리 · 31」

瑞山文學

제1회 서산시 청소년문학제

백일장 우수작품

초 등 부

채송화	부춘초등학교 6의1	임지윤
고추잠자리	서령초등학교 4의2	유성용
달 속에 그려지는 얼굴	서동초등학교 4의3	홍순재

중 등 부

만남의 장소	대산중학교 2학년	김윤정
추수	서산중학교 1의5	이상재
가을손님	팔봉중학교 3의1	오장석

고 등 부

황금들녘의 풍요로움	서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효정
가을바다	서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장정화
나만의 자유시간	지곡고등학교 2학년	봉은주

초등부 최우수

채 송 화

부춘초등학교 6의1
임 지 윤

해님이 좋아서
구름이 좋아서
위로 위로
올라가려 하지만

올라가도 고만큼
힘을줘도 고만큼
하늘이 좀처럼
다가오지 않는다

그정도면
포기할 때가
되었는데도
가슴속 아무진 꿈

고이고이 간직한채

제 1회 서산시 청소년 문학제 백일장 우수작

오늘도 채송화는
해님을 만지려한다

초등 운문부 금상

고추잠자리

서령초등학교 4의2
유 성 용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눈
하늘하늘
은빛 날개
가느다란 빨간 꼬지

고추잠자리

파아란 운동장에
놀러 나왔다

쭉쭉 직선도 그리고
둥글둥글 커다란
원도 그리고
누가 누가 빠른가
시합도 하고

내 머리 위에도
빙글빙글
잡힐 듯 말 듯 놀리다가
폴짝 뛰어 손 내밀면

쏘옥
파아란 물 속으로
숨어 버린다.

초등 산문부 금상

달 속에 그려지는 얼굴

서동초등학교 4의3
홍 순 재



가을이다. 우리 가족은 해마다 가을이 되어 추석이 돌아 오면 강원도 태백시로 추석을 보내러 간다. 추석날 할아버지 댁에 가면 할아버지, 할머니, 슈퍼를 하시는 작은어머니와 작은아버지, 그리고 삼촌이 우리 가족을 반갑게 맞아주신다. 삼촌 동생 서희는 나와 동생 갑주가 오면 박수치며 좋아한다. 이웃 할아버지와 할머니도 우리 가족을 한 가족처럼 반갑게 맞아주신다.

작년에 있었던 일이다. 우리 가족이 서산에서 태백까지 간 시간동안 차를 타고 도착하니 친척 식구들이 마을 입구까지 마중 나와 계셨다. 하루를 푹 쉬고 이틀째 되니 삼촌께서 나에게 야구를 하러 가자고 하셨다. 나는 너무 즐거워서 삼촌께 빨리 야구를 하러 가자고 하였다.

“삼촌 빨리 가.”

“그래.”

내 마음을 잘 알아주는 삼촌 그래서 나는 삼촌이 좋다. 드디어 셋째 날, 추석이다. 우리는 친척들과 함께 차례를 지

내고 조상들의 묘에 성묘를 하러갔다.

“순재야. 여기는 증조 할머니 묘가 있는 곳이란대. 어서 절을 하렴.”

우리 가족은 증조 할머니 묘에서 절을 하고 이번에는 태백으로 올라가 또 하나의 묘에 들렀다.

“아까는, 증조 할머니 묘에 갔었지? 지금은 작은할아버지 묘에 가는 길이란대. 이렇게 조상들이 있기에 너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란다.” 하시며 할아버지, 할머니의 살아 계실 적 얘기를 들려주셨다.

평소에는 조상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지 못했는데 추석날 아버지로부터 조상들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는 조상들과 내가 어떤 끈 같은 것으로 이어져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친척들과 만나 즐거운 이야기도 나누고 조상들의 소중함을 느끼는 추석. 가을이면 추석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도 그 이유에서이다.

올해도 점점 차 오르는 둥근 달 속에 하나, 둘, 보고 싶은 친척들의 얼굴이 그려진다.

그리고 마음은 벌써 강원도 태백을 달리고 있다.

중등부 최우수

만남의 장소, 가을 하늘

대산중학교 2학년

김 윤 정



촉촉한 비가 온 대지를 적시더니 하늘이 더욱 청명하고 드높아 보였다. 2년 전, 그토록 가을을 보고 싶어 하다가 결국 못 보고 세상을 떠난 은경이가 놀고 있을 저 하늘, 은경이가 있으므로 나에게서는 가을 하늘이 더욱 새롭다.

은경이는 초등학교 때 같은 반이었던 나의 단짝 친구였다. 우린 언제나 붙어 다녔고, 서로 잘 이해해 주었다. 은경이는 도시에서 전학 온 아이라 시골에 대해 신기하다고 했다. 그래서 우린 자주 놀러 다녔던 게 기억났다. 특히 가을에는 예쁜 나뭇잎을 모으는 시합도 했고, 가을 하늘을 보며 서로의 미래를 점쳐보곤 했다.

“나는 너의 수호천사가 될 거야.”

“수호천사?”

“우린 죽을 때까지 함께 놀 거니까. 짜증난다고 나 피하면 안돼!”

“하하, 알았어. 그럼 나도 네 수호천사가 되면 되잖아,”

“그래, 좋아. 우리 서로의 천사가 되어 지켜주는 거야.”

그런데 5학년말에 은경이는 갑자기 전학을 갔다. 그리고 며칠 뒤, 내게 은경이가 백혈병이라는 안 좋은 소식이 전해졌다. 말로만 들던 백혈병....

겨울방학이 되어서야 난 은경이가 입원한 서울 백병원을 찾아갔다. 두 달 사이 부쩍 훌쩍해지고 그 길던 머리를 다 밀고서 여러 가지 약물로 하루하루를 버티는 은경이를 보자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다. 아직 어려서 아무 것도 몰랐던 난 은경이의 초췌한 겉모습에 놀라 백혈병이 위험한 병이라고 처음 느꼈다.

부모님께 허락을 받은 뒤, 난 3일 동안 은경이와 함께 있었다. 고통스러워하며 치료받을 때도 곁에서 지켜봐 주었고 말상대도 해 주었다. 마지막 3일째 되는 날, 처음으로 병실을 나와 이야기했다.

“윤정아, 내가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돌아오는 가을도 볼 수 있을까?”

“당연하지, 넌 오래 살 거야.”

차라리 가만히 있을걸 그랬다. 은경이는 창 밖의 앙상한 나뭇가지들만 바라볼 뿐,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돌아서서 보니 은경이는 너무나도 슬픔 눈빛으로 떠나는 나를 지켜보았다. 그게 내가 은경이를 본 마지막 모습이었다.

6학년이 되어 바쁘게 학교 생활을 했다. 아픈 은경이를 잠시나마 잊고서 공부에만 전념했다. 그냥 가끔 전화로 목소리를 듣고 했는데 아예 전화를 거는 것조차 귀찮게 여겨졌다. 내게로 날아온 한 통의 편지가 왔을 때야 비로소 큰 후회를 하며 눈물을 흘려야 했다.

은경이가 쓴 뽀뽀뽀 한 글씨.

“가을이 너무 좋아. 그런데 못 보고 가게 되었어. 미안해, 그래도 약속대로 난 네 수호천사가 되어 하늘에서 지켜 줄게. 잘 있어. 안녕.”

은경의 어머니께서 쓰신 문구,

“6월 28일, 은경이가 세상을 떠났단다. 이걸 네게 전해주라고 했어…….”

수호천사, 이 말을 자꾸 더듬어 보는데 어찌도 그리 많은 눈물이 나던지…….

TV에서만 보던 백혈병이 왜 하필이면 착한 은경에게 닥친 건지 모든 게 원망스러웠다. 죽음의 문턱에 서서 고통스럽게 투쟁하다 세상을 떠난 은경이. 은경이는 끝까지 내 수호천사가 되겠다는 약속을 지켰는데 정녕 난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에 한동안 많이 방황했고 충격 속에서 지내야만 했다.

그날은 힘없이 걸었다. 10월 7일, 은경의 생일. 생일이 있어서인지 더욱 가을을 좋아했나 라는 생각도 든다. 그런데 걷고 있는 날 누군가가 불렀다. 아주 희미한 목소리로 자꾸 내 이름을 불러댔다.

“은경이니? 그런 거야? 이은경! 나와. 나와봐…….”

울면서 소리치는데 또 목소리가 들렸다. 하늘을 보라며, 어서 봐달라며 재촉했다. 하늘을 보았는데 구름 한 점 없이 너무나도 깨끗한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은경이의 하얀 얼굴이 그려졌다.

‘거기서라도 날 바라보고 있었구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멍하니 먼 하늘만 바라보았다.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시선을 땔 수가 없었다.

가을이라 더욱 아름답게 느껴졌다.

올해도 어김없이 가을이 왔다. 가끔 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제 1회 서산시 청소년 문학제 백일장 우수작-

여느 때보다도 맑고 투명한 하늘이 펼쳐진다. 오늘도 은경이
는 날 바로 보고 있겠지. 떠난 게 아니라 영원히 서로를 생각
하며 매년 가을에 만날 것이다. 저 하늘에서.....

중등 운문부 금상

추 수

서산중학교 1의5

이 상 재



가을마다
내 맘은 외가댁에서 산다
두 팔 벌려
나를 맞아주는 나무

꿈벽꿈벽 조는
외양간의 소
외가댁은
가을마다 활기차다

할아버지 할머니를 따라
다녔던 모내기
'언제 이 모가 잘 자랄까?'
하는 조바심에
걱정했던 나

여름이 지나 가을이 오고
어느새 쭉 자란 벼가
익은 만큼 고개를 숙이고
나의 걱정을 풀어주는
추수의 즐거움
“올해도 이만하면 풍년이여!”
하시는 할아버지 어깨 너머
햇살이 밝다

어느새
익은 벼보다 커진 나의
가을의 추억들
가을 이맘 때 쫓아면
내 마음은 바쁘다
가을 애기 담느라고...

중등 산문부 금상

가을 손님

팔봉중학교 3의1반

오 장 석



해마다 이맘쯤 가을이 되면, 늘 우리 집을 찾아오는 손님이 있었다. 과일상자 한 박스를 안고 한 손엔 내 선물을 가득 들고 오시던 서울손님! 어렸을 땐 누구지도 잘 몰랐던 사람이었지만 초등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그 손님이 우리 고모와 고모부란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 하나 늘 고모가 추석 뒷날에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늘 두 분이 오셨다 갈 때마다 우리 집에선 수확한 쌀과 고추를 한아름 보내곤 했다. 어렸을 땐 그저 친척이니까 오는 줄만 알았다. 그래서 고모보고 “고모, 추석날 와. 그럼 다른 친척들도 많이 볼 수 있잖아?” 그렇게 묻곤 했다. 늘 고모는 그럴 때마다 웃기만 했고, 몇 년이 지난 후, 6학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그 웃음이 어딘가 어두워 보인다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날 저녁 고모가 간 후에 아빠보고, “아빠 고모는 왜 추석 뒷날만 오나요? 왜 우리 집에만 오나요” 그리고 할머니 큰 고모 애기만 하시지 왜 작은고모 애긴 한마디도 안 해요?” 라고 물었더니 아빠께

선 고모애길 꼭 해주셨다.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반대하시는 결혼을 하셔서 거의 인연을 끊고 사는 거라고, 그래서 추석날 못 오고 추석 뒷날이 늘 생일이라 아빠께서 초대하는 거라고,

고모의 사정을 알고 난 후, 그 뒤로 고모와 고모부가 오실 때마다 조금이라도 편하게 해드리려고 애를 썼다. 언젠가는 고모가 매일 웃음 지을 수 있는 날이 올 꺼라 믿으며....

그러던 어느 날 이었다. 전화가 왔는데 그 전화가 웬지 불안한 느낌이었다. 예감을 적중했고, 한전에 다니시는 고모부가 실장과의 다툼과 갈등 끝에 아파트 옥상서 자살했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 사실은 합당되지 못했고, 우울증 초기였던 고모부가 우울증 증세로 자살한 것이라는 판정을 받았다. 보상도 별로 못 받은 채 위로도 우리 식구들만 해서 고모의 슬픔은 그 누구보다 컸다. 그래서 작년엔 고모가 오지 못했다. 늘 오면 고모의 빈자리가 어찌나 쓸쓸하던지.... 그러며 고모는 시름시름 앓기 시작했다. 바깥 말라만 가던 고모를 만난 건 지난 1월 서울에 갔을 때 우연히 백화점에서였다. 멀리서 어렵듯이 봤지만 틀림없었다. 우리 고모였다. 아는 척은 못했지만..... 난 한가지 결심을 했다. 할머니, 할아버지께 말씀 드리기로.

시간이 지나고 지난 설날, 온 가족이 모여 저녁을 먹을 때, 결심한 대로 난 고모 얘기를 했고, 아빠와 엄마도 내 얘기를 거들었다. 고모가 혼자서 힘들게 사시고 있다고, 지금 많이 아프시다고.

며칠이 지난 후 불행인지 다행인지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연락을 하셔서, 고모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셨다. 아빠께서 만날 자리를 여름에 만들어 주셨지만, 고모에 집이 수해를 입어 만나지 못했다. 그래서 모든 친척이 가서 수해피해 현장에서 땀 흘리며 고모를 도와주었다.

그리고 이제 며칠후면 드디어 고모를 집에서 만날 수 있다. 늘 추석 뒷날 우리 집에 오시던 고모가 이젠 큰집으로 추석과 함께 고모 생일까지 겹쳐 크게 지낼 수 있다. 우리가 이제 고모의 그 동안의 아픔을 달랠 수 있겠지…….

설날에는 고모 시댁으로 가기 때문에 만날 수 없다. 하지만 언제나 내 곁에 그리고 우리 곁에 영원한 가을 손님으로 오시겠지. 이젠 전처럼 쓸쓸한 미소가 아닌, 환한 미소를 볼 수 있겠지. 또 뒤돌아 흘렸던 눈물들도 사라지겠지.

이젠 가을 손님으로 고모가 오시면 한아름 가을빛 추억들을 안겨 주리라. 그래야 두 번 다시 우리 고모가 슬픔이 없게 테니.

가을 향기가 듬뿍 묻어 있을 고모의 미소가 보고싶다. 그러며 며칠 안 남은 추석을 기다려 본다

고등부 최우수

황금들녘의 풍요로움

서산여자고등학교 2학년

김 효 정



“내가 언제 어머님 댁 그렇게 소홀히 한적 있어요?”

“너 집에만 가보면 그만이나?”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 또 말다툼이 시작되었나 보다. 늘상 들어 익숙해 질만도 할텐데 오늘은 왠지 유난히 소리가 크게 들린다. 좀더 귀 기울여 들어볼까 하다가 관두기로 했다. 대신 귀를 막고 잠자리에 들었다. 쉽게 잠이 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애써 잠을 청해본다.

우리 할머니 댁은 시골이다. 시골이라 하면 별 다를 바 없는 농촌이라지만 요즘 진짜시골은 찾기 드물다. 도시의 팽창에 못 이겨 시골 하면 흔히 생각했던 낡은 집과 할머니, 농기계, 굴뚝의 연기, 가마솥과 화로 등은 온 데 간 데 없고 신식 건물과 수도, 화장실, 보일러 시설 그래도 남아있을 법 했던 마당도 요즘은 화단으로 탈바꿈해 버렸다. 이에 비하면 우리 할머니 댁은 정말 보기 드문 농가라고 할 수 있었다. 많이 망가진 기와집에 흙벽, 수도도 틀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펌프로

물을 끌어 올려야만 쓸 수 있는 것이고 양은술과 세수대야. 나무로 만들어진 문, 그리고 그 옆엔 어렸을 적 누군가 소금을 받으러 다녔을 법한 키다 걸려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할머니와 가까이 하고 자라지 못한 난 도시에서 가끔씩 이곳을 찾아오는 것이 싫고 화가 났다.

집에 있으면 친구도 있고 전화도 맘껏 쓸 수 있고 전기도, 물도 모든 것이 편할 뿐인데 뭐 하러 그 먼 곳까지 역겨운 냄새를 맡으며 잠을 설쳐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첫째로 태어나 온갖 귀여움을 독차지하고 자랐던 나 인티라 고집도 췌고 그만큼 부모님은 힘들어 하셨다. 워낙에 버티다보니 보다못한 부모님께 매를 맞아가며 끌려갔던 적도 여러 번 있었던 것 같다. 해를 거듭하면서 나도 자랐고 머리에 든 것도 제법 많아지자 이번엔 이것저것 약속이 있다는 핑계로 할머니 댁에 가기를 꺼려했다. 처음 한두 번 그냥 넘어가시던 아빠도 시간이 조금 지나자 화를 내기 시작하셨고 조금 더 지나자 나와 의 문제가 부모님의 다툼으로 발전해 버리고 말았다.

‘애들 교육을 잘못시켰네’

‘니가 잘 못 가르쳐서....’

드물게 있던 다툼이 이제 할머니 댁에 갈 때쯤만 되면 다 반사로 일어났다. 다툼의 요인도 처음의 ‘나’에서 거듭날수록 ‘시댁과 친정’이라는 말로 바뀌었다. 모든 것이 내 탓일까? 반복되었던 일상 속에 난 다시 무심코 지나쳐버리고 말았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 크게 두 분이 다투셨다. 어느 해 가을 무렵이었을까. 추수를 해야할 계절이 찾아왔을 때였다. 집안은 모두들 이상하리만치 바빴고 엄마조차 일을 하러 다니시다들 외가나 친가에 신경 쓰고 있지 못했다. 주말이 되자 할

머니 댁엔 가야하는데 엄마가 외할머니 댁 추수를 도와드리러 가시기로 약속 하셨었나 보다. 아빠는 친절에만 신경 쓴다고 불같이 화를 내셨고 부모님의 틈바구니 속에 나와 내 동생은 우리대로 우울해져 버렸다.

친할머니 댁과 외할머니 댁은 그리 먼 거리에 있지 않다. 다만 외할머니 댁은 농사를 지으셔서 시골에 계셨고 친할머니 댁은 시가지 쪽에 위치하고 있었다. 친할머니께서는 그 즈음 병환으로 몸이 별로 좋지 않으셔서 병원에 다니고 계셨는데 내 생각엔 아마도 이러한 연유로 아빠가 화가 나신 게 아닐까 싶었다. 다행히도 두 분은 오해가 잘 풀리셨고 나는 또 다시 불 건너보듯 별달리 신경 쓰지 않고 지나갔다.

그런데 이제 할머니 댁에만 가려하면 내 여동생이 가지 않으려고 버텼다. 더구나 내가 가면 같이 가고 내가 안가면 저도 안가겠다고 우기는 것이었다. 화가 나고 짜증도 나 동생과도 엄청 싸웠던 것 같다. 그래도 나는 첫째라고 공부한단 핑계를 대면 대강 잘 넘어갔었는데 내 동생이 물고 늘어지는 바람에 나까지 혼나가며 따라가게 되었던 것이다. 타이르고 혼내고 매도 맞고... 그러나 내 동생과 나의 태도는 별반 달라진 게 없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부모의 입장이었어도 울분이 터질 일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아빠께서는 조용히 우리를 부르시더니 할머니 댁에 갈 차비를 하라고 하셨다. 어느 할머니 댁에 갈지는 몰랐지만 혼날게 두려워 갈 준비를 하고 따라나섰다. 차는 달려 도로를 지나 한적한 농촌길에 들어섰다. 오랜만에 와보는 외할머니 댁 이었다. 가서 심심할걸 생각하니 인상이 저절로 찌푸려졌다. 길모퉁이를 도는데 눈앞에 거대한 황금 물결이 일으켜졌다. 넓고 넓은 그 벌판이 누렇게 익은 곡식으로 가득 메워져 있었다. 별다른 인상을 갖고있지 않던 그곳의

해질녘 모습은 갑작스레 가슴 벅차게 차 올랐다.

할머니 댁에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선 문밖으로 뛰쳐나오시며 “우리 손주들 왔구나...”라고 말씀하시곤 반가워 하셨다. 너무 오랜만에 와서일까? 할머니의 얼굴에 주름살이 더 늘어난 것 같았다. 고생하셔서일까 아니면 세월이 흘렀다는 것의 징표일까. 할머니의 주름진 얼굴의 미소를 보자 속에서 울컥하며 뭔가 치솟는 기분이 들더니 이내 죄송한 마음이 들었다.

점심을 드시고 방에 들어가신 아빠는 옷을 갈아입으신 후 나오셨다. 그리곤 할머니와 함께 발으로 나가셨다. 채소를 이것저것 뽑으시는데 동생과 나는 그냥 보고 있기가 민망해 창고에서 호미를 꺼내들고 뒤를 따랐다. 머리 꼭대기에 있는 뜨거운 정오의 태양빛을 받으며 호미질을 쫓아 하는 손에 비지땀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힘이 들긴 했지만 평소처럼 싫지는 않았다. 하던 중간 중간 일손을 바빠 놀리는 할머니와 아빠를 보며 나도 서둘렀다.

“힘들지?”

아빠의 말씀이셨다. 그냥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나는 다음 말을 기다렸다.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만 참으렴. 지금 네가 흘린 땀이 너의 앞으로 삶에 있어 도움이 될 테니까. 아빠는 너희들이 온실 속에서 자란 화초처럼 약하길 바라지 않는다. 남보다 약하면 쓰러지고 마는 세상이 이곳이니까. 하지만 아빠는 너희들이 너희만 아는 이기주의자가 되기를 바라지도 않는단다. 부모, 형제를 모르고 예의를 경시하는 그런 사람은 존재의 가치가 없는 사람일 테니까 말이다. 너희가 지금 흘린 땀 속에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과 강인함이 새겨졌으면 좋겠구나.”

눈시울이 뜨거워져 간가. 진작에 왜 깨닫지 못했던 것일까. 또다시 말없이 일손을 놀리고 계신 아빠의 옆모습에서 자

량스러움을 느꼈다.

허리를 일으켜 주위를 둘러보았다. 태양빛에 찬란하게 빛나는 저수지와 아까 오면서 보았던 황금물결의 들판이 더큰 감동으로 다가왔다.

그후로도 나는 사실 할머니 댁에 자주 찾아 뵙지 못하고 있다. 말뿐인 핑계가 될지도 모르겠지만 고3이 가까워 지다 보니 시간이 그다지 나질 않는다. 얼마 전 찾아뵈인 할머니 댁의 모습은 예전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집을 허물고 다시 지은 것이다. 수세식 화장실, 수도, 우리 집에 없는 멋진 정원도 있다. 이곳도 변해버렸다는 생각이 아쉬움으로 가슴을 적시지만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남은 일생을 좀더 편안히 사실 수 있다는 생각에 위안을 삼는다.

그래도 지금 이곳의 가을, 그 황금들녘의 풍요로움이 가슴 가득히 들어온다.

고등 윤문부 금상

가을바다

서산여자고등학교 1학년

장 정 화

가을 영롱한 눈빛
에메랄드빛 눈물고인 바다를
가본 적이 있는가?

여름의 시선이 닿아있고
겨울의 손이 느껴져
상쾌함이 모여있는

그러나.....
아무도, 아무도 없다
나, 나 혼자

눈두덩이에 발자국 새기게
그랬다가, 그렇게 했다가

내가 떠남은 눈물로 다시 지우리라
떠나보내는 슬픔 잊으려

내가 가면 오래도록 아무도...
그래도 곳곳하구나

인적 드문 가을바다
이웃한 하늘 닮아
넓고 푸른 마음의 눈 열어
훗날을 기약하며 고독 이겨내는

나. 이 세상에서
가을바다를 닮아보리다

고등 산문부 금상

나만의 자유 시간

지곡고등학교 2학년

봄 은 주



내가 다니는 지곡 고등학교는 흔히 말하는 '시골'에 위치해 있다. 그리고 우리 집은 걸어서 40분을 더 가야 한다. 나는 버스를 타는 것보다는 걷는 것을 더 좋아한다.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40분씩 걷기 운동을 하고 있다. 아침에는 등교 시간에 쫓겨 바쁘게 걷지만 저녁에는 온 세상이 나의 것이 된다. 길가에서 새들이 짹짹거리면 예쁘다고 들여다보고, 지나가는 바람에 머리카락도 훑날려 본다. 지금은 포장을 하고 아스팔트를 깔아 학교 운동장이외의 흙은 밟지 못하지만 나는 흙 냄새도 좋아한다. 이른 봄, 집에 있는 비닐 하우스에 들어갔을 때 말할 수 있는 흙 냄새는 나를 다른 세상에 데려다 놓는다. 금방이라도 이집트의 왕자와 공주가 나타날 것 같은, 황홀한 기분에 젖는다. 또한 시간이 지남에 따른 풍경 또한 아름답다. 봄에는 내가 가장 좋아하는 연한 녹색의 입사귀들이 손을 흔들고, 여름에는 짙은 녹색의 잎들이 뜨거운 햇살을 받아 반짝거린다. 가을에는 여기 저기서 단풍들이 멋을 내

고 겨울에 내린 눈은 나의 발에 밟혀 ‘뽕드득’ 소리를 낸다.

봄의 연한 녹색과 여름의 시원한 바다, 겨울의 깨끗한 눈도 좋지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을 가을의 하늘이다. 사람들은 가을을 “천고마비의 계절”이라고 표현한다. 높은 하늘이라…….

내가 본 가을의 하늘은 푸르기만 하다. 구름 한 점 없이 완전무구한 맑은 하늘보다 여기저기 먹구름이 끼어 있는 그런 하늘이 더 좋다. 그런 하늘을 보고 있노라면 책가방을 땀 나도, 교복을 입은 나도 사라지고 어느새 기분은 하늘을 날아오른다. ‘저 구름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 정말로 선녀님들이 비와 눈을 준비하고 있을까?’ 과학 시간에 배운 ‘구름의 생성 원리’는 어느새 머리 속에서 지워지고 어릴 적 동화에서나 읽었을 법한 이야기들이 생각난다. ‘하늘에 계신 염라 대왕님이 화가 나서서 천둥이 치고 번개가 번쩍거리는 거래.’

‘아냐, 아냐. 염라 대왕님이 천둥이랑 번개를 잘 감추어 두셨는데 선녀님이 그걸 찾아내 가지고 놀다 떨어뜨린 거야.’

‘아니라니까. 내 말이 맞아.’

‘아냐. 내 말이 맞아.’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들과 곧잘 싸우곤 하던 것을 기억하면 입가에 절로 미소가 어린다. ‘맞아 나에게도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 지금 나의 머리 속은 온통 과학적인 증명만이 남아 있어도 말이야.’ 가을의 푸른 하늘 속에 나는 던져 넣기라도 하듯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면 그때서야 비로소 완전히 나를 잊어버린다. 새들과 같이 날아오르고 해와 같이 세상을 내려다본다. 지나가는 차들 때문에 금방 현실로 돌아오곤 하지만 그런 기분이 좋아 가을이 되면 내가 하늘을 올려다보는 시간은 점점 더 많아진다.

월요일인 내일이 되면 나는 또 학교에 나가 50분간의 수업

을 듣고 10분 동안 친구들과 수다를 더는 일을 반복할 것이다. 가끔은 즐기기도 하고 가끔은 옆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꾸중을 듣기도 하겠지만 대부분은 선생님의 말씀 하나 하나에 귀를 기울이고 교과서에 있는 글자 하나 하나에 정신을 집중하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고 있지만 내 장래 희망은 산 속에서 사는 것이다. 소설 '천년의 사랑'에서의 '성하상'처럼 말이다. 옛날 선비들이 벼슬을 사양하고 산 속에서 숨어 지냈다는 이야기, 소설 속에서 세상에 초연하고 자연과 더불어 사는 사람들 이야기를 동경한다. 얹어 필요 없다는 것을 아는 것 역시 하나의 얹이듯, 나는 세상일에 초연하기 위해 악착같이 세상에 붙어 지내야 하는 것이다. 내 장래 희망 탓인지 나는 답답한 것이 싫다. 좁은 교실에 50여명의 학생이 바글거리고 내 것이라곤 작은 책상과 걸상, 그리고 책 몇 권을 넣을 수 있는 사물함뿐인 학교를 나는 싫어한다. 하지만 그 곳을 벗어 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기에 나는 하나의 꾀를 낸다. 선생님께 들키지 않고 내 자유를 맘껏 누릴 수 있는 뒷자리. 그 뒷자리 중에서도 고개만 돌리면 눈앞 가득 산과 하늘이 펼쳐지는 창문 쪽 자리에 앉는 것이다. 그 자리는 비단 나만 원하는 것이 아니기에 자주 빼앗기곤 하지만 혹여 그런 자리에 앉기라도 하면 나는 선생님께서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셔도, 화를 내셔도 상관하지 않고 나만의 세계로 빠져든다. 가끔씩은 수업 중에 단 짓을 한다고 꾸중을 듣기도 하지만 어쨌든 나는 행복하다. 파란 가을 하늘을 보며, 창문을 열고 바람을 맞이하면 온 세상은 나의 것이 된다. 그 안에서 나는 나만의 자유를 누린다. 하늘을 날고, 세상을 내려다본다.

이 글을 쓰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하늘은 자연 그대로의 하늘이 아니다. 그저 글감에 지나지 않는 단어 그대로의 하늘

이다. 이제 이 글을 다 쓰고 나면 나는 그제서야 제대로 될
하늘을 맞을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가을 하늘
을 말이다. 나는 또다시 한껏 고개를 젖혀 하늘을 볼 것이다.
쓰러질 듯, 말 듯한 그런 모습으로 나는 하늘을 날고, 세상을
내려다 볼 것이다. 이제 나만의 자유를 누릴 시간이 왔다.

참새잡이

한 동 철

하얀 눈이 온 대지를 하얗게 덮고 게다가 매서운 북풍까지 몰아치면 아이들은 따뜻한 안방 이불 속에 두 다리 넣고 무료함으로 졸이 쑸다. 이런 아이들 등살에 어른들은 성화다.

자치기, 팽이치기, 딱지치기, 썰매타기, 연날리기, 고드름 싸움…….

겨울 철 놀이는 많고 많지만 그 중 참새잡기는 긴장과 기대 속에서 추위를 잊을 수 있는 겨울철만의 재미였다.

눈 위에 왕겨를 적당히 뿌리고 곡식 낱알도 몇 개 뿌려두고 삼태기나 싸리채반을 세워 놓는다. 나무가지 위 허기진 참새들이 기회를 놓칠새라 내려 앉으면 재빨리 줄을 당겨야 한다. 제발 가지 말라고 애원해도 닭들은 들은체 만체 참새잡이 함정 쪽으로 가고, 삼사리아 ‘위리위리’ 나직히 달래면 말을 듣기도 했지만. 참새들이 움닥움닥 모여 앉아 모이를 쪼을 때, 어서 빨리 줄을 당겨야 할 텐데, 닭들도 사이 좋게 모이를 쪼다. 사람 환장할 노릇이다.

마당에 누워 새김질하던 누렁소도 안타깝다는 듯 허연 코김을 뿜어내고…….

여물술 장작불 위에 석쇠를 놓고 가뭇가뭇 익어가는 참새 불구이의 진동하는 냄새. 참새고기 한 점과 쇠고기 한 근을 바꾸지 않는다는 기막힌 맛.

고기가 김치보다 흔한 오늘, 아득히 머언 추억 속에서나 헤집어 내어 군침을 삼켜 본다.

서산문화회원 주소록

성 명	주 소	연 락 처
김 순 일	서산시 읍내동 494-3 서산중학교	665-3909 664-5571
김 명 화	서산시 부석면 월계리 산 57 서산초등학교	662-4583 664-5122
김 태 우	서산시 읍암면 도당리 한아름A 207 운산초등학교	664-6348 688-4100
김 충 자	서산시 성연면 평리 성연회관	662-1726
김 현 구	서산시 읍내동 137 서산문화원	664-2212 669-5050
김 현 주	서산시 동문동 742-3	665-8533
남 정 화	서산시 예천동 716-3 성연중학교	688-3500 662-8049
류 상 동	서산시 읍내동 789-3 청정연구실	665-3613 663-5035
문 혜 옥	서산시 읍내동 797-19 안산A 403	664-1006
문 희 태	서산시 읍내동 44통 772-8 서령중학교	665-6727 664-5104
박 영 춘	서산시 동문동 1033-15	665-6498
박 태 진	서산시 동문동 542 서령고등학교	664-8150
박 희 량	서산시 대산읍 동림A 107-1033호 대산초등학교	665-7584 669-0152
서 중 숙	대전시 서구 월평동 누리A 112-103호 충남교원연수원	042-485-4771 0416-853-1224
성 정 희	서산시 동문동 318	665-4370
송 국 범	서산시 죽성동 삼성A 103-1005호 팔봉중학교	664-8481 669-1273
송 숙 희	광주시 서구 치평동 현대A 105-1005호	062-376-2946
신 득 균	서산시 읍내동 부영A 106-1305호 성연중학교	669-5254 662-8050

서산문화회원 주소록

성 명	주 소	연 락 처
유 병 인	서산시 읍내동 대산칼라인쇄사	667-2311
유 인 석	대전시 중구 유천동 현대A 104-102호 경향신문 중부지사	042-527-1869 042-253-9023
윤 용 문	서산시 성연면 평리 19 금강기획	662-8493 667-6400
윤 혜 선	서산시 죽성동 삼성A 115-1301호 서산초등학교	667-4982 664-5122
이 경 숙	서산시 동문동 하나로 맨션 B동 402호 한내과의원	663-6387
이 성 주	서산시 읍내동 11통 219 서산교육청	665-3007 669-0782
이 순 수	서산시 음암면 문양리 1구 360	663-6387
이 영 동	서산시 읍내동 부영A 102-705호 CD와 컴퓨터	666-1317 681-9585
이 영 하	서산시 석림동 영진로알 가동 606호	665-7703
이 종 안	서산시 음암면 탑곡리 1구 634	663-5633
이 화 란	서산시 해미면 대곡리 푸르른 문화공간	688-1950
주 병 구	서산시 석림동 신주공A 208-506호 서산농공업고등학교	666-0053 665-7400
최 병 기	서산시 대산읍 현대정유A 201-204호 현대정유	660-4154 660-5657
최 소 녀	서산시 읍내동 91	662-0399
한 근 식	서산시 읍내동 612-10 아라입시학원	664-2824 667-3926
한 동 철	서산시 읍내동 129-12 서산초등학교	665-8657 669-0408
홍 인 옥	서울시 중랑구 면목동 한신A 7동 114호	02-437-0248 02-439-0213

책을 펴내며

- 천년을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느라 떠들석하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정신의 샘인 문학을 사랑하는 새 천년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 새로 회원이 된 박영춘, 이순수, 주병구, 박태진, 최병기 회원님을 선보인다. 서산문학의 활력이 되리라 믿는다.
- 그 동안 서산문학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 새 천년에는 10집을 발간하게 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글을 쓸 것을 다짐해 본다.

(편집위원)

서산문학 제 9집

인쇄일·1999년 12월 7일
발행일·1999년 12월 15일
펴낸이·서산문학회장 류상동
편집·이영동
만든곳·도서출판 한외
(T.0455-667-2311)

■ 이 책은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책을 펴내며

- 천년을 마감하고 새 천년을 맞이하느라 떠들석하다. 물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정신이다. 정신의 샘인 문학을 사랑하는 새 천년의 아침이 됐으면 좋겠다.
- 새로 회원이 된 박영춘, 이순수, 주병구, 박태진, 최병기 회원님을 선보인다. 서산문학의 활력이 되리라 믿는다.
- 그 동안 서산문학을 후원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더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 고맙겠다.
- 새 천년에는 10집을 발간하게 된다. 새로운 마음으로 더 좋은 글을 쓸 것을 다짐해 본다.

(편집위원)

서산문학 제 9집

인쇄일·1999년 12월 7일
발행일·1999년 12월 15일
펴낸이·서산문학회회장 류상동
편집·이영동
만든곳·도서출판 한외
(T.0455-667-2311)

■ 이 책은 <충청남도 문예진흥기금>으로부터 제작비 일부를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서산문화 9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CD와 컴퓨터

뉴텍컴퓨터 서산점, PC BANK 서산점

컴퓨터 주변기기 S/W Digital 출력

대 표 이 영 동

서산시 읍내동 144-1 서부상가 1층 92호

☎(0455)681-9585 FAX.(0455)664-6053

금 강 기 획

도서출판 금강에서

♥각종 인쇄 도서출판 정치광고 기념품♥

충남 서산시 읍내동 144-1

☎(0455)667-6400 FAX.(0455)667-6432

대 한 디 자 인

**상패
현수막
프랑카드
행사용품
실크인쇄**

충남 서산시 읍내동 256-3
전화:(0455)668-0635
팩스:(0455)669-0635
H.P:011-409-8635

정 상 래

**대한매일신보사
 시내버스외부광고
☎(0455)663-0635**

서산문화 9집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라 입시 학원

원 장 한 근 식

서산시 읍내동 612-10번지
☎ 667-3926

RESTAURANT PIANO BAR



몽나무레스토랑

샤모니
Chamonix

서산시 읍내동 520-1(옥녀봉입구)
Tel.(0455)681-3700
Fax.(0455)681-3377
H.P.011-454-5888

Gallery & Coffee

전람회의 그림

=전시기획, 대관, 작품판매=

충남 서산시 동문동 928-5
☎(0455)669-3434